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DMin Final Project Approval Sheet

This DMin Final Project entitled

MAKING OF A MISSIONAL CHURCH PREACHER

written by

Hyun Yong Lee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in Global Ministries

has been read and approved by the undersigned member of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Mentor: Peter Im, PhD

Date August 2018

MAKING OF A MISSIONAL CHURCH PREACHER

선교적 교회 설교자 만들기에 관한 연구

By

Hyun Yong Lee

A DMin Final Project Presen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Doctor of Ministry in Global Ministries

August 2018

ABSTRACT

Lee, Hyun Yong

2018 “Making of a Missional Church Preacher.”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Doctor of Ministry in Global Ministries. 136 pp.

God calls for evangelists. He desires for missional church to grow and mature. During my time working as a missionary in the field and studying at Fuller Seminary, I experienced the process of God training me to be a preacher of a missional church. I started this research in order to become a healthy preacher of a missional church from a mission theological perspective.

The first chapter is an introduction of the research in the makings of a preacher of a missional church. It addresses the research background, research purpose, research objective, research significance, central undertaking, research inquiry, research methods, research scope, and research overview.

In the second chapter, I describe God’s history of creating preachers of missional churches from the perspective of Clinton’s lifelong leadership development theory. Through this process, I understood God’s work and providence in my life. I realize what Clinton meant by ‘ministry flows out of being’.

In the third chapter, I describe the gospel that a preacher of a missional church should proclaim. First, I explain the gospel of Jesus and the gospel of Paul. I describe gospel based on the gospel postulated by mission theologians Arthur Glasser, Roland Allen, and Sae Yoon Kim.

In the fourth chapter I describe the mission of the missional church from the perspective of church growth. I review McGavran’s view on church growth and Van Engen’s view on missional churches in order to establish the pastoral philosophy of the missional church.

In the fifth chapter, I explain the thoughts and characteristics of Kyung Jik Han's sermons, a preacher of a missional church. I analyze the contributions and spiritual gifts of Kyung Jik Han.

The sixth chapter is the conclusion in which I conclude by summarizing chapters one to six and provide recommendations.

In this research, I explain the process of forming preachers of missional churches through perspective of missional ministry by examining missional churches, missional ecclesiology, leadership development, and Pastor Kyung Jik Han's case. Through this research, I was able to confirm God's guidance in shaping me to become a preacher of a missional church

Mentor: Peter Y. Im, Ph. D

346 words

개요(ABSTRACT)

이현용

2018 “선교적 교회 설교자 만들기에 관한 연구.”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Doctor of Ministry in Global Ministries. 136 pp.

하나님께서서는 복음전도자를 부르신다. 선교적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나는 현지 선교사로 사역하고, 풀러에서 공부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적 교회 설교자로 세우시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나는 선교 신학적 관점에서 선교적 교회의 건강한 설교자가 되기 위해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제1장은 선교적 교회의 설교자 만들기에 관한 연구의 서론으로서 필자가 선교적 교회 설교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된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연구목표, 연구의 중요성, 연구의 중심과제, 연구의 질문들, 연구방법, 연구의 범위, 연구 개관을 다루었다.

제2장에서는 로버트 클린턴(J. Robert Clinton)의 평생지도자 개발론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적 교회 설교자로 만드시는 손길을 확인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내 자신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 과정을 이해하였다. 클린턴이 말하는 ‘사역은 존재로부터 나온다’ 사실을 확인하였다.

제3장에서는 선교적 교회 설교자가 선포해야 할 복음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나는 먼저 예수님의 복음과 바울의 복음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이 과정에서 선교신학자인 아서 글라셔, 롤랜드 알란, 그리고 김세윤이 규정한 복음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제4장에서는 교회성장학적 관점에서 선교적 교회의 선교에 대해 기술하였다. 먼저는 도날드 맥가브란(Donald McGavran)의 교회 성장학을 고찰하고 찰스 벤 앵겐(Charles E. Van Engen)의 선교적 교회를 고찰하여 선교적 교회의 목회 철학을 정립하려고 했다.

제5장에서는 선교적 교회 설교자인 한경직의 설교에 나타난 사상과 특징을 고찰하였다. 한경직의 궁극적 공헌과 은사를 분석하였다.

제6장에서는 결론으로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 및 제언을 하는 것으로 마쳤다.

본 연구를 통해 선교목회학적 관점에서 선교적 교회 설교자 만들기 과정을 복음적 설교, 선교적 교회론, 리더십 개발론, 그리고 한경직 목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적 교회 설교자로 만드시는 손길을 확인하였다.

Mentor: Peter Y. Im, Ph. D

250 words

헌정(DEDICATION)

이 논문을 옆에서 늘 격려해 주고 눈물로 기도해주며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함께 해 준 아내 임은정과 부모를 따라 두 번의 이민과 언어를 새롭게 익혀야 하는 현실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성장한 사랑하는 딸 다예와 다인에게 드립니다.

감사의 말(ACKNOWLEDGEMENTS)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설교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감사합니다. 목사로 부르시고 선교사로 키르기즈스탄에 보내셔서 그 민족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국에 목회 현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현장에서 어떤 사역자가 되어야 할지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선교적 교회의 건강한 설교자가 되기를 원하는 갈망을 주셨습니다. 이 논문을 쓰면서 건강한 설교자로 서기 위한 정의를 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존귀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풀러 신학교에서 수학할 때 강의해 주신 모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목회자와 선교사로서 나를 돌아보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선교사의 사역을 할 때 풀러에서 공부한 것은 마른 땅을 걷고 있는 나에게 시원한 안식처와 같았고 바른 길을 가는 좌표와도 같았습니다.

시간 때문에 논문을 포기하려 할 때 코칭을 통해 용기를 주신 이광길 교수님과 이정우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야생마를 길들이 듯 저를 채찍질 하시며 논문을 지도해 주신 임윤택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차(TABLE OF CONTENTS)

ABSTRACT.....	ii
개요(ABSTRACT).....	iv
헌정(DEDICATION)	vi
감사의 말(ACKNOWLEDGEMENTS)	vii
목차(TABLE OF CONTENTS).....	viii
표 목록(LIST OF TABLES)	xii
그림 목록(LIST OF FIGURES).....	xiii
제 1 장 서론	1
연구 배경(Background)	1
연구 목적(Purpose).....	2
연구 목표(Goals)	2
연구의 중요성(Significance).....	2
연구의 중심 과제(Central Research Issue)	3
연구의 질문들(Research Questions)	3
연구의 방법(Methodology)	3
연구의 범위(Delimitations)	4
연구의 개관(Overview of the Study).....	5
제 2 장 선교적 교회 설교자 만들기.....	6
사역 시간선	7
사역 시대구분	7
사회적 기지	7
1단계: 사역의 준비	8
하나님의 인도(1967-1986)	8
소명과 훈련(1986-1995)	10
2단계: 일반사역	12
소명의 재확인(1996-2000)	12
기다림과 위기(2000-2005)	15
3단계: 집중사역	18
해외선교사역(2005-2009)	18

	안식년과 고립경험(2009-2010)	20
	고립경험 후의 집중사역(2011-2018년).....	22
다루심 항목		22
과정상 항목1: 순종 검증		22
과정상 항목2: 말씀 검증		24
사건들		24
개발		25
과정상 항목3: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		25
사건들		25
해석적 논평		26
개발		26
주어진 은사분석		26
은사 Venn diagram.....		27
<그림 2> 이현용의 은사 Venn Diagram		27
Venn diagram에 대한 설명.....		27
영적인 은사: 목회, 사도, 지혜의 말씀		27
목회		27
사도		28
지혜의 말씀		29
타고난 재능: 긍정적 사고, 열정, 관계		29
긍정적 사고		29
열정		30
관계		30
습득된 기술: 지도력		31
지도력		31
반응유형		31
제1단계 준비		32
사건설명		32
분석		33
제2단계 숙명 인식 및 확신		33
사건설명		33
해석		33
제3단계 숙명 현실화		34
삶의 목적		34
요약		35
제 3 장 선교적 교회 설교자의 복음이해.....		36
예수님의 복음		36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37
예수님과 교회		39
예수님의 설교		40
바울의 복음		42
메시아 이해		43
메시아의 복음		45

선교사 그리스도	45
그리스도의 주되심	46
오직 예수	48
심판 주 예수	49
바울의 선교 메시지	51
바울의 선교 방법론	52
도시중심 전략	53
회당중심 전략	54
팀 중심 전략	55
제자훈련 전략	56
전진기지 전략	57
삶을 통한 인격적 모범	58
교회설립 전략	59
상황화 전략	60
예수님과 바울의 복음설교	61
복음적 토착 리더십 개발	62
복음적 팀 사역	63
종말론적 복음	63
요약	65
제 4 장 교회성장과 선교적 교회	66
맥가브란의 교회 성장학	66
성경신학적 원리	66
하나님의 영광	68
수색신학과 수확신학	69
보편적 안개 이론	70
부흥운동 원리	72
인간집단 원리	74
효과적 전도 원리	75
수용성 원리	76
제자 우선의 원리	77
토착교회 원리	78
벤 엥겐(Van Engen)의 선교적 교회	80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	81
선교적 관점에서 본 교회의 네가지 본질	82
선교적 교회의 새로운 용어들	83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를 향한 비전	85
선교하는 교회의 목적	85
언약의 공동체로서 교회	87
교회와 세상의 역할	88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	89
선교적 교회가 되어가는 지역 교회	90
세상과 교회의 상호 조직 관계	91
사역을 위한 교회 조직 모델들	92

	선교적 교회의 지도자	94
	선교적 교회의 행정과 프로그램	95
요약		97
제 5 장 선교적 교회 설교자 한경직		98
한경직의 생애		98
출생과 성장		98
유년기와 성장기		98
오산학교		100
유학		100
목회 활동의 시기		101
신의주 제2교회		101
베다니 전도 교회		102
영락교회와 은퇴후에 사역		102
한경직 목사의 긍극적인 공헌.....		103
한경직 목사의 은사 벤 다이어그램.....		104
한경직 설교신학		105
성경적 복음주의		105
청교도 신학		107
그리스도 중심 신학		107
고난과 섬김의 종인 그리스도		108
승리와 영광의 그리스도		109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 되시는 그리스도.....		110
선교적 교회론		111
설교에 나타난 중요한 특징		113
요약		115
제 6 장 결론		116
요약		116
결론		117
제언		117
부록 한경직 리더십 가치관.....		119
ENGLISH SUMMARY.....		126
인용 문헌(REFERENCES CITED)		128
약력(VITA)		136

표 목록(LIST OF TABLES)

<표 1> 이현용의 사역 시간선 및 사역 시대구분 7

<표 2> 설교 전집에 나타난 주제 분류 114

그림 목록(LIST OF FIGURES)

<그림 1> 선교적 교회 설교자 만들기 연구방법론	4
<그림 2> 선교적 관점에서 본 교회의 네가지 본질	83
<그림 3> 선교적 교회의 새로운 이론들	85
<그림 4> 선교하는 교회의 목적	87
<그림 5> 언약 공동체로서의 교회	88
<그림 6> 교회와 세상의 역할	89
<그림 7>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	90
<그림 8> 세상과 교회의 상호 조직 관계	92
<그림 9> 사역을 위한 교회 조직 모델들	93
<그림 10> 전형적인 리더십 스타일과 지도자와 추종자의 상호관계	94
<그림 11> 선교 활동과 교회 프로그램과의 관계	96
<그림 12> 환경직 목사의 궁극적 공헌	103
<그림 13> 환경직 목사의 은사 벤 다이어그램	104

제 1 장 서론

본 장은 선교적 교회 설교자 만들기 연구에 관한 서론이다.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연구목적, 연구목표, 연구의 중요성, 연구의 중심과제, 연구의 질문들, 연구의 방법, 연구의 범위, 연구의 개관을 기술한다.

연구 배경(Background)

나는 우리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모든 가족을 전도하였다.

나는 장로교 신학대학과 대학원에서 신학을 전공하였다.

나는 서울 영락교회를 섬겼다. 교육 전도사와 전임 전도사로 사역하며 교회 행정과 목회를 배울 수 있었다.

나는 주안 장로교회를 섬겼다. 목사 안수를 받고 교구와 행정을 감당하며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을 배울 수 있었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과 목회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나는 캐나다 토론토 영락교회를 섬겼다. 6년 동안 사역하며 섬김의 목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열정을 배울 수 있었다. 이민자의 삶을 사는 디아스포라와 선교적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갖는 시간이 되었다.

나는 선교사가 되었다. 키르기즈스탄에서 13년 동안 신학교 사역, 교회 개척, 현지 지도자 양육 사역을 했다.

나는 풀러 선교대학원에 와서 Intercultural Communication, Jesus The Missionary, 세계선교사, Leadership Issues, 지도력 평생 개발론을 공부했다.

나는 목포 복음교회 담임목사로 청빙을 받았다. 그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적 교회 설교자로 세우시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선교 신학적 관점에서 선교적 교회의 건강한 설교자가 되기 위해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연구 목적(Purpose)

본 논문의 목적은 목회신학적 관점에서 선교적 교회 설교자 만들기 과정을 기술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적 교회 설교자로 세우시는 과정을 재인식하는 데 있다.

연구 목표(Goals)

본 연구의 목표를 다음 네 가지로 귀결한다.

첫째, 로버트 클린턴(J. Robert Clinton)의 평생지도자 개발론의 관점에서 선교적 교회 설교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술한다.

둘째, 아서 글라서(Arthur F. Glasser)의 관점에서 효과적인 복음전도를 위한 복음을 정의한다.

셋째, 도날드 맥가브란(Donald McGavran)과 찰스 벤 엔겐(Charles E. Van Engen)의 선교신학적 관점에서 선교적 교회의 본질에 관하여 연구한다.

넷째, 선교적 교회 설교자의 모델로 한경직 목사의 설교의 특징을 기술한다.

연구의 중요성(Significance)

본 논문 연구의 중요성을 다음 네 가지로 귀결한다.

첫째, 클린턴의 평생지도자 개발론의 관점에서 선교적 교회 설교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술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 과정을 이해한다.

둘째, 글라서의 관점에서 효과적인 복음전도를 위한 복음을 정의하여, 복음적 설교자의 목회철학을 정립한다.

셋째, 맥가브란과 벤 앵겐의 선교신학적 관점에서 선교적 교회의 본질에 관하여 연구함으로써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목회철학을 정립한다.

넷째, 선교적 교회 설교자의 모델로 한경직 목사의 설교의 특징을 기술한다.

연구의 중심 과제(Central Research Issue)

본 논문의 중심 연구 과제는 선교목회학적 관점에서 선교적 교회 설교자 만들기 과정을 복음적 설교, 선교적 교회론, 리더십 개발론, 그리고 한경직 목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하는 것이다.

연구의 질문들(Research Questions)

본 논문은 다음 네 가지 연구 질문들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첫째, 클린턴의 평생지도자 개발론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선교적 교회 목회자로 만드시는가?

둘째, 글라서의 관점에서 효과적인 복음전도를 위한 성경적 복음은 무엇인가?

셋째, 맥가브란과 벤 앵겐의 선교신학적 관점에서 선교적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넷째, 선교적 교회 설교자의 모델로 한경직 목사의 설교의 특징은 무엇인가?

연구의 방법(Method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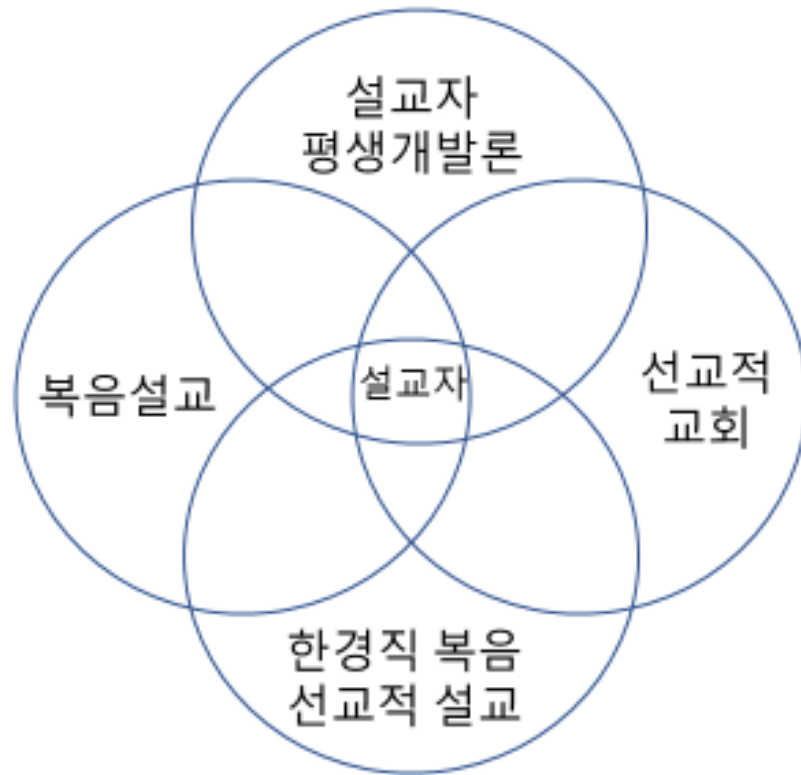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선교목회학적 방법론을 사용한다.

첫째, 클린턴의 평생 지도자 개발론을 사용한다.

둘째, 글라서의 선교신학 방법론을 사용한다.

셋째, 맥가브란과 벤 앵겐의 교회성장신학 방법론을 사용한다.

넷째, 사례연구 방법론을 사용한다.



<그림 1>

선교적 교회 설교자 만들기 연구방법론

연구의 범위(Delimitations)

본 논문의 연구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첫째, 리더십 개발 이론으로는 클린턴의 평생 지도자 개발론으로 국한한다.

둘째, 선교적 교회의 복음은 알란과 글라서를 중심으로 기술한다.

셋째, 교회성장신학은 맥가브란과 벤 잉겐으로 국한한다.

넷째, 선교적 교회 설교자 모델은 한경직 사례연구로 국한한다.

연구의 개관(Overview of the Study)

본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으로서 필자가 선교적 교회 설교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된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연구목표, 연구의 중요성, 연구의 중심과제, 연구의 질문들, 연구방법, 연구의 범위, 연구 개관을 다룬다.

제2장에서는 클린턴의 평생지도자 개발론의 관점에서 선교적 교회 설교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술함으로, 자신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 과정을 이해한다.

제3장에서는 글라서의 관점에서 효과적인 복음전도를 위한 복음을 정의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복음적 설교자의 목회철학을 정립한다.

제4장에서는 맥가브란과 벤 엥겐의 선교신학적 관점에서 선교적 교회의 선교적 본질에 관하여 기술함으로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목회철학을 정립한다.

제5장에서는 선교적 교회 설교자의 모델로 한경직 목사의 설교의 특징을 기술한다.

제6장은 결론 부분이다. 지금까지 연구한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을 내릴 것이다. 또한 후속 연구를 위한 몇가지 제언을 함으로서 논문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요약

본 장은 선교적 교회의 설교자 만들기에 관한 연구의 서론으로서 필자가 선교적 교회 설교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된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연구목표, 연구의 중요성, 연구의 중심과제, 연구의 질문들, 연구방법, 연구의 범위, 연구 개관을 다루었다.

다음 장에서는 클린턴의 평생지도자 개발론의 관점에서 선교적 교회 설교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술함으로, 자신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 과정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제 2 장

선교적 교회 설교자 만들기

본 장에서는 로버트 클린턴(J. Robert Clinton)의 평생지도자 개발론의 관점에서 선교적 교회 설교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술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내 자신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 과정을 이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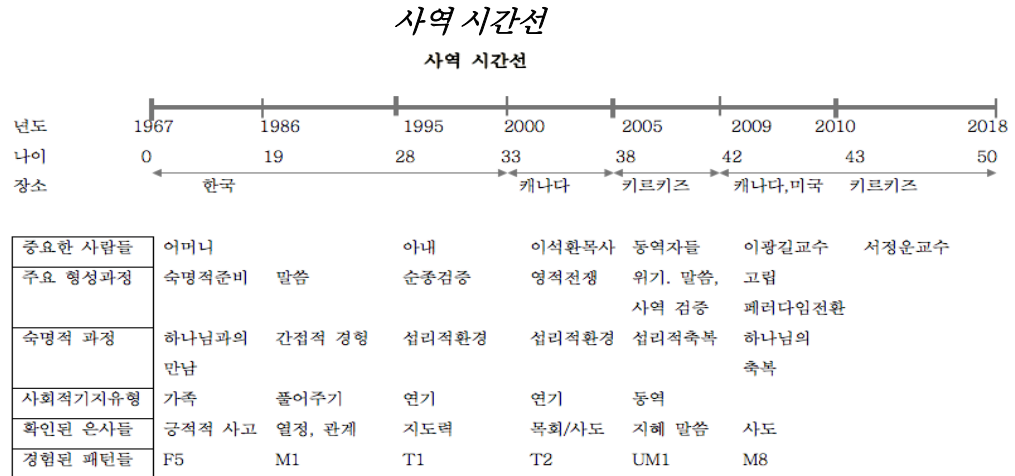
사역은 존재로부터 나온다. 클린턴 리더십의 핵심은 존재, 즉 “하나님과의 소통이다”.(2008:178) 그는 리더가 가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만들어 가시는 손길을 이해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역은 존재로부터 나옵니다. 당신의 사역이 당신이 누구인가에서 흘러나오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만드시는 활동을 더 많이 알수록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며 그 지식으로부터 사역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08: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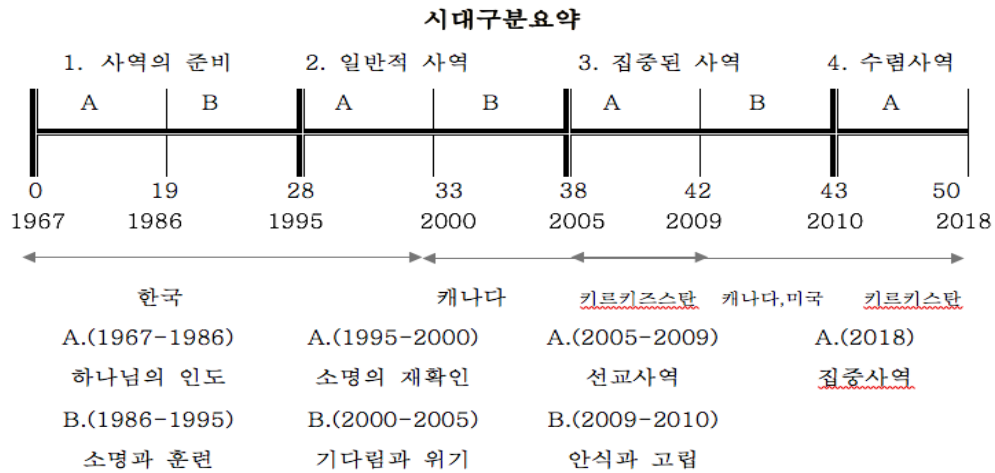
클리턴의 관점에 따라 나를 이해하기 위해 사회적 기지는 통한 하나님의 다루심을 이해하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 사회적 기지 유형들을 점점해 보고 선교적 교회의 설교자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검증하려고 한다.

<표 1>

이현용의 사역 시간선 및 사역 시대구분



사역 시대구분



사회적 지지

리더가 가진 사회적 지지가 중요하다. 나의 사회적 지지 3 단계는 사역의 준비, 일반사역, 그리고 집중사역으로 설명할 수 있다.

1단계: 사역의 준비

하나님의 인도(1967-1986)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다. 나는 충청남도 금산의 한 농촌에서 태어났다. 불교의 신앙심이 강한 그러면서도 샤머니즘의 성향이 강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아버지는 주관이 강하고 고집스런 분으로 한학을 하였고 침술에 능해서서 동네 사람들로 부터 존경을 받는 분이였다. 아버지는 어릴 적에 별 기억이 없다. 이유는 내가 1살 때 서울로 가서 돈을 버렸다. 가끔 명절에 시골에 오면 만날 수 있었다.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열정적으로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는 우리에게 늘 든든함을 주었고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런 와중에 우리 가정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할아버지의 강권으로 아버지가 살고 있는 서울로 이사하여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다. 비록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지만, 그가 술에 빠져 살았기에, 서울에서도 생활은 어머니가 책임을 져야 했다.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는 날은 두려운 날이였다. 어머니와 다투고 우리는 아버지의 주정 때문에 밤새 시달려야 했다.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이런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는데 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로 이사한 일은 나에게 놀라운 전기를 맞게 하는 일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확신을 갖는 것이였다. 면에 교회가 전혀 없어 예수님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성탄절이 무엇인지 듣지도 못했다. 어머니를 따라 절을 열심히 다녔던 나는 서울로 전학을 오면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의 인도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처음엔 사람들을 만나고 재미있기 때문에 교회를 나갔다. 열심이 교회를 다녀 고등부 회장을 맡아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배우게 되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서 숙명적인 인도를 하시는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집회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는 서원하였다. 그날 강력하게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는 서원을 하였고 2학년 때부터 신학교에 가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교회에 나간다고 아버지에게 야단도 맞고 제사 때나 명절 때면 온전히 집에서 밥을 먹을 수 없었다. 신학대학에 가는 일 때문에 아버지와 많은 갈등이 있었다. 그러나 장신대 신학과에 입학하였다. 어머니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나 신학대학에 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셨다.

정서적	<p>아버지에 대한 두려움과 미움이 있었지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늘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시고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는 든든함을 주었다. 하지만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라 부모의 갈등, 생활에 대한 어려움 등이 힘들었지만 교회는 나의 안식처가 되어주었고 하나님의 인도는 삶의 동기가 되었다.</p>
경제적	<p>아버지가 가정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에서의 삶은 늘 궁핍함을 느꼈다. 동생이 공부를 잘하였는데 인문계 고등학교를 포기하고 공고를 갔다. 돈을 벌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최선을 다해 지원했기 때문에 고등학교까지 잘 졸업하였다.</p>
전략적	<p>부모님이 전략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전략적 필요를 채워주었다. 교회에서 여러 관계를 통해 부르심에 응답을 준비하게 되었다.</p>
육체적	<p>건강했다. 하루 종일 축구를 하여도 지치지 않았다. 시골에서 산으로 들로 뛰어다녀서인지 운동을 잘했다. 그러나 육체적인 필요의 공급을 잘 받지 못했는지 키가 작다는 열등감을 늘 가지고 있었다.</p>

소명과 훈련(1986-1995)

신학교에 입학하여 부르심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냈다.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종교에 대한 회의도 들고 삶이 너무 힘들어 계속 공부할 수 없었다. 그래서 도피처로 2학년 마치고 군대를 지원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끌고 가신 곳은 사단 군중의 자리였다. 공부하기 싫고 소명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아 힘들어 했던 나를 군대에 가서 교회 안에서 살도록 인도하셨다. 군대는 하나님이 소명을 확인시켜주시는 장소였다. 말씀을 통해 만나주시고 소명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시간이었다. 군대를 제대할 때쯤 하나님께 새로운 소원을 하게 되었는데 “교회 사찰이 되어도 좋으니 아버지 품안에서만 살게 하옵소서”라는 것이었다.

군 제대 후, 교회 안에서 정말 열심히 봉사했고 학교에 복학하여 열심히 공부도 했다. 3학년을 마치고 4학년에 올라갈 때 담임목사님께서 고등부 교육전도사가 되라는 권유를 하셨다. 모교회에서 교육전도사가 되는 부담이 있었지만 기쁘게 수락하고 고등부 전도사가 되었다. 교회에서 생활비도 받고 장학금도 받게 되어 경제적인 부담을 덜게 되었다.

그러나 고등부 전도사로 사역하는 동안 사역하는 어려움을 겪으며 목회자로서 자질에 대한 검증을 하는 시간이었다. 인내의 부족과 인격적인 부족으로 인해 교사들과 갈등이 있었지만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환경에서 하고 싶은 사역들을 하며 인정을 받게 되었다.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 시험을 준비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검증을 경험하게 되었다. 1년동안 처음 교육전도사의 사역을 하며 한계를 느끼고 신학대학원입시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을 때 같은 교회에서 늦은 나이에 사역을 시작하신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소명을 확신시켜주셨다. 힘들더라도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알려주셨다. 그 말씀을 믿고 시험을 준비하여 신학대학원에 입학 하였고 교회안에서 사역하였다. 그 학교에서 아내를 만났고 아내를 통해 정신적인 지원을 받았다.

대학원 1학년을 마쳐갈 쯤 하나님의 인도로 서울 영락교회 유년부를 맡으며 교회를 옮기게 되었다. 대학원 2-3학년 동안 영락교회 유년부를 맡아 사역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사와 사도적인 은사를 확인하며 행복한 사역을 할 수 있었다. 아내와 결혼을 할 수 있게 하셔서 아내의 헌신과 지지를 받을 수 있었고 첫째 아이를 낳고 자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하셨다.

신학대학원 2학년 때 선교위원장을 맡아 일하며 견습선교사 파송과 선교사역을 진행하며 많은 선교사들을 만나는 기회를 얻었고 막연하게 선교에 대한 소망을 갖을 수 있었다.

신대원을 졸업하며 목회를 해야하는지 선교사로 나가야 하는지 많은 갈등의 시간을 보냈다. 아버지께서 사역의 자리로 인도해주시길 위해 많이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서울 영락교회에서 전임 전도사로 사역하는 것에 대한 요청을 받아 신대원을 마치며 영락교회 전임사역자가 되었다.

정서적	정서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는 시기였다. 소명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아 군대로 갔고 회복시켜 주신 은혜로 사역을 하며 정체성의 위기를 겪기도 했다. 전임사역자가 되기 전에 목회와 선교를 두고 많은 시간 고민하게 되었다. 아내와 가정을 이루며 첫째 아이를 낳고 정서적으로 많은 안정이 있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해주시는 데로 순종하기로 하였다.
경제적	부모님의 지원을 받지 못해 군대를 제대할 때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대 후에 사역을 시작하며 점차 안정되었다. 하지만 신대원 2학년 때 결혼한 이후 1년 3개월은 무척 힘든 시기를 보냈다. 교육전도사 사례로 생활하기 어려웠고 첫째가 태어나면서 재정이 많이 필요했었다. 이 때 우리에게 재정적인 연단의 시기였다. 아내가 음악을 공부했기 때문에 레슨을 통해 수입을 얻을 수 있었는데 결혼 후 일체 하나님께 맡기고 레슨을 하지 않았다.

	<p>이시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이런 경험은 지금까지 재정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했다.</p>
전략적	<p>삶의 방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교회를 옮겨가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예비하심이고 결혼도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진로에 대한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맡기는 것을 배우는 시기였다. 하나님께서 관계를 통해 필요를 공급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로 인도해가심을 경험할 수 있기도 했다. 운동을 좋아한 나는 교수님들과 축구를 늘 하였는데 교수님들의 도움으로 영락교회에 갈 수 있었다.</p>
육체적	<p>많은 스트레스가 있었지만 운동으로 풀 수 있었다. 매주 축구와 달리기를 통해 체력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육체적 모든 필요를 의존할 데가 없어 하나님의 공급을 기다렸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할 수 있었다.</p>

2단계: 일반사역

나는 일반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나는 소명을 재확인하였고, 기다림과 위기를 경험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였다.

소명의 재확인(1996-2000)

이 시기는 한국에서 전임 사역의 시기이다. 장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며 선교사의 길과 목회의 길의 길림 길에 있을 때 영락교회에서 전임전도사의 사역을 시작하였다. 전임 1년차 때는 사회부를 맡아 전국에서 들어오는 지원 요청들을 확인하고

지원을 결정하여 지원하는 일을 맡아 했다. 1년동안 많은 지역의 사회복지 시설을 돌아보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해에 나를 위해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다.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있을 때 우즈벡에서 사역을 하는 정준모 선교사가 한국에서 왔고 의논한 후에 정준모 선교사와 함께 2주간 우즈베키스탄의 여러 도시들을 돌아보며 중앙아시아에 관심과 애정을 갖게 되었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둘째 딸을 낳았는데 아이가 많아 아파서 아내가 정서적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

영락교회 전임 2년차가 되는 1997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계기가 있었다. 마침 영락교회 대학부 단기팀이 사역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즈베키스탄을 권면했고 우즈베키스탄으로 23명의 대학부 학생들과 가지로 결정하였다. 대학생들과 사역을 위해 열심히 준비했고 사역의 현장에 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를 받았다. 꿈 같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와 영락기도원에서 산상기도회를 교구별로 하게 되었다. 그 기도회 마지막 날 마당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중앙아시아 사람들의 얼굴을 환상으로 보여주셨다. 그 환상을 보고 나서 “하나님 저들에게 보내실 사람이 필요하시면 저를 보내소서”라고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나를 부르신다는 소명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소명을 확인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파송을 받을 수 있는 교회를 찾을 때 하나님이 인천에 있는 주안장로교회로 보내주셨다. 주안 장로교회는 전도를 열심히 하고 영혼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는 교회였다. 주안장로교회 부목사로 부임하여 안수를 받고 2년동안 사역하면서 부흥하는 교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다. 안수를 받고 바로 선교지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는데 한가지 걸림돌은 둘째 아이가 계속 아픈 것이었다. 무슨 이유를 모르다가 폐에 동공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서울대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는 수술 후에 너무나 건강해졌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 있었다.

아내가 소명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선교회 미용팀과 우즈벡과 카작에 단기선교를 가게 되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내도 동일하게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단기선교를 다녀온 아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함께 중앙아시아로 떠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준비하였다.

응답은 1999년 3월에 있었다. 토론토 영락교회에서 중앙아시아 키르키즈 민족을 입양하고 그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 선교사를 뽑는다는 광고를 했다. 그 광고를 보는 순간 전율을 느끼는 것 같았다. 존경하는 이광순 교수님께 전화를 해서 의견을 물었더니 바로 추천해주시겠다고 하셨다. 그날로 서류를 준비하여 토론토 영락교회에 보냈는데 그 해 10월에 토론토 영락교회의 선교사로 인선을 받게 되었다. 토론토 영락교회에서 교인들과 사귀는 시간을 갖기 위해 선교담당 부목사로 사역해 주길 요청해 좋은 모델로 생각하여 수락을 하였다. 소명을 확인하고 바로 선교지로 나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보내시기 위해 지체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12월 25일에 가족과 함께 가게 되었다.

정서적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시기였다. 소명을 확인했고 소명을 위해 준비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둘째가 건강도 회복했고 아내도 함께 소명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었다.
경제적	전임 사역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가장 안정된 시기였다. 서울 영락교회와 주안교회는 사택을 주고 기타 여러 면에서 생활하는데 부족하지 않았다. 다만 둘째 딸이 큰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비가 부족하였는데 필요를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하셨다.
전략적	이시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를 끌고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보내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시기였다. 소명을 확인케 하시면서 선교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 선교사들을 만나게 하시는 배려가

	있었고 교회와 선교에 대해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주셨다.
육체적	문제가 없던 시기였다. 결혼과 함께 아내가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어 더 육체적인 안정을 갖었다.

기다림과 위기(2000-2005)

토론토 영락교회 인선을 받아 토론토 영락교회 선교담당 부목사로 사역하게 되었다. 2년간 교인들을 사귀고 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약속하고 토론토에서 사역을 시작하였다. 선교 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선교정책을 세우고 입양한 키르키즈를 위한 단기팀을 구성하여 여름엔 청년팀, 가을엔 성인팀을 보냈다. 가을 성인팀은 직접 인솔하여 키르키즈의 여러 도시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보내길 원하시는 사역지가 어딘지 알기 위해 노력했다.

선교지로 가기 위해 살게 된 토론토 생활은 쉽지 않았다. 곧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물건 하나 살 수 없었다. 3살과 4살 된 딸들도 토론토에서의 생활이 쉽지 않았다. 유치원에 가서 영어를 하지 못해 다른 아이들과 놀지 못하고 돌아와야 했다. 영어를 익히는데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했는데 아이들이 잘 참아주었고 학교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졌다.

영주권을 신청한지 1년도 되지 않아 받게 되었다. 곧 선교지로 가야 할 사람에게 왜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영주권을 받았다. 그런데 그 영주권이 나의 발목을 잡은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IMF사태 이후에 한국에서 많은 이민자들이 캐나다로 왔다. 2000년부터 한 해에 200여 가정이 영락교회에 등록했다. 교회가 급격히 성장하게 되어 감사했지만 2년만 사역하고 선교지로 가기로 했는데 2년이 지나도 파송에 대한 거론이 되지 않는 것이었다. “언제 선교지로 가야 합니까?”라고 담임목사님과 당회에 의뢰해서 영주권 받았으니 시민권도 받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당회의 결정으로 막연히 기다려야만 했다. 매년

키르기스스탄으로 단기선교를 다녀오면 열병을 앓게 되었다. 서둘러 가야하는데 내가 있어야 할 곳은 키르기스스탄인데 하는 마음에 조바심을 내야 했다.

2004년 8월 트리어 파송을하기로 당회가 결정하였다. 2003년 12월에 새해 계획에 포함되었고 예산도 세웠다. 그래서 시민권을 신청했다. 그해 8월엔 키르기스스탄로 갈 수 있다는 기대를 가졌는데 두 가지 일이 파송을 가로 막았다. 첫째는 2004년 3월에 갑자기 담임목사님이 의료사고로 죽게 된 것이다. 파송해주기로 약속하신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니 방향을 잃게 되었다. 담임목사님이 없는 상태에서 선임이었던 나는 다른 목사님들과 교회를 책임지게 되었다. 설교, 행정, 심방, 교육등 새로운 담임목사님이 인선될 때까지 맡게 되었다. 8월 파송에 대한 계획은 미루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둘째는 시민권이 6개월이면 나온다는 것이 2004년이 다 지나도록 나오지 않았다. 그것이 나오지 않으니 파송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와중에 소명에 대한 위기가 왔다. 담임목사님이 없는 8개월 동안 다른 부목사님들과 교회를 책임지며 목회를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설교를 하는데 기쁨이 있었다. 목회와 말씀을 선포하는데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위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지 않은 것은 목회를 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것이다. 마침 담임목사 청빙위원장이 나에게 담임목사를 지원해보지 않겠냐는 의향을 물어왔다. 한동안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에 방향을 잃어버리고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인정받고 싶어 애쓰게 되었다. 그럴수록 마음에 평안이 없었다. 캐나다는 하얀 땅과 같이 안주하게 만드는 곳이다. 편하고 자녀교육, 삶의 질등 모든 면에서 있고 싶은 곳이다. 그곳에서 목회하며 지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서 소명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매일 새벽과 금요 기도회를 통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셨다. 토론토를 떠나야 한다는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청빙위원장에게 나는 담임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선교사로 파송받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담임목사가 선정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도왔고 하나님이 토론토 영락교회 영어목회를 담당했던 송민호 목사님을 선정해 주셨다.

송민호 목사님이 담임목사로 부임하고 바로 파송에 대한 일정이 정해졌다. 2005년 1월 23일에 파송이 결정되었고 파송 후 6개월간 안식월 보내고 선교지로 가는 것이 결정되었다. 파송받은 후 헬리팩스에서 가족과 함께 7월 중순까지 보냈는데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위로해 주셨고 새로운 환경을 향해 떠나는 우리 가족을 준비시켜 주시는 시간이었다. 이민교회에서 겪었던 모든 상처들을 치유해주셨고 회복되어야 할 소명을 확인시켜주셨다. 7월 중순에 토론토로 가서 인사를 하고 키르기스스탄으로 가게 되었다. 그 사이에 시민권도 준비되었다.

정서적	정서적으로 아내와 내가 불안한 시기를 보냈다. 파송이 늦어지는 것과 목회에 대한 욕심이 생기며 소명에 대한 위기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민 교회에서 선교가 소명임에도 불구하고 5년 반 동안 목회를 한 것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잃게 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끌고 가신다는 하나님의 견인에 대한 훈련을 받게 하셨다.
경제적	토론토 영락교회가 준 생활비는 충분하지 않았다. 계산상으론 늘 부족했다. 주신 것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훈련을 받게 하셨고 적절히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셨다.
전략적	매년 1-2번씩 키르기스스탄에 단기선교를 간 것은 그곳을 이해하고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을 배울 수 있게 되었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믿음을 확고히 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인도는 나와 가정에게 가장 유익하다는 확신을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경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을 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은 기간이었다. 캐나다, 타문화권에서 적응은 선교지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훈련이었다.
육체적	살아온 기간 중 가장 육체적으로 편안했던 시기였다. 아이들의 교육환경, 집, 생활여건 등 아내와 아이들, 나 모두에게 건강한 환경이었다.

3단계: 집중사역

나는 해외 선교사로 집중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경험하였다. 키르기스스탄 선교사역, 안식년과 고립경험과, 고립 후 집중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루심을 경험하였다.

해외선교사역(2005-2009)

나는 키르기스스탄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였다. 가족과 함께 오랫동안 기다렸고 집중하길 원했던 시기이다. 가족과 함께 키르기즈에 왔다. 사역지로 결정한 오쉬에서 삶이 시작되었다. 아이들 학교를 정하고 언어 선생님을 구하고 집을 구하는 일들이 쉽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는 기쁨으로 찾아다녔고 적응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 하지만 적응이 쉽지 않았다. 아이들의 친구문제, 홈스쿨과 함께 현지학교에 다니며 러시아를 익히는 문제, 비자문제, 먹거리 구하는 문제, 언어를 익히는 문제, 집을 구하는 문제, 문화와 키르기즈 사람들의 삶의 양식을 익히는 것, 경찰과의 관계, 정체성 문제등이 앞을 가로 막았다. 초기 선교사가 겪는 어려움들을 겪어 나가면서 커다란 장벽이 앞에 놓인 것 같은 절망감마저 들었고 언어의 절벽 앞에서 아내와 나는 사역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도 느끼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며 입이 열리고 사람들을 사귀어 나가며 터널을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 2년 동안 언어를 익힌 후 사역의 자리가 마련되었다. 선교사들이 시작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며 현지 지도자들을 만나 오쉬의 교회들을 방문하며 교회의 현실을 배웠다.

하나님의 인도로 오쉬 기술대학 내에 한국문화센터를 세워 한국어과를 열고 한국어 클럽, 영어클럽, 컴퓨터 클럽등 대학생 선교를 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고 여러 사역들자들과 동역할 수 있게 되었다.

한 가정을 전도하여 가정모임을 시작하여 이름을 믿음교회라고 하고 교회를 시작했다. 첫 번째 사역 기간엔 사역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사역을 잘 진행해 나갔다. 이 기간 동안 영적 싸움에 직면하기도 했고 현지인들과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들도 있었다. 하지만 4년의 사역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들이 잘 적응해 주고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한 결과이다.

정서적	<p>환경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가족 모두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을 해야 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모두 힘든 상황이었다. 사람들의 지지나 격려, 전화, 메일 등이 정서적인 필요들을 채워주는 공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아이들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며 가족이 얼마나 귀한 기지인지 재차 인식하게 되었고 동역자들과 동역하는 것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p>
경제적	<p>과송교회의 후원으로 안정적이었다. 그의 필요는 예기치 않는 손길을 통해 채워주셔서 끌고 가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다.</p>
전략적	<p>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를 더 갖게 되었고 사역에 있어서 동역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동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겸손임을 알게 되었고 현지인들과 관계에서 이해와 섬김, 언어가 신뢰를 만드는 요소이고 현지인들과 동역을 하는 중요한 가치인 것을 알게 되었다.</p>

육체적	<p>육체적 필요를 채우기에는 환경적으로 열악했다. 먹거리 문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겨울철 먹거리를 위한 준비가 많이 필요했다. 김장, 야채 저장 등 한국 자동차 수입을 하여 파는 분이 있어 컨테이너를 통해 기본 양념, 건어물을 공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물에 석회가 너무 많이 있어 식수를 해결하는 것도 많이 힘이 들었다. 난방문제도 어려움이 있었다. 아내의 몸이 적응하지 못하여 관절염에 시달렸고 나는 담석 때문에 고통을 겪기도 했다.</p>
-----	--

안식년과 고립경험(2009-2010)

첫 번째 사역을 잘 마치고 안식년을 갖기 위해 토론토로 왔다. 안식년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였는데 파송교회와 대화가 부족했다. 파송교회가 기대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의 차이가 있었다. 절충하여 6개월은 파송교회에서 선교적 동원사역을 하고 6개월은 개인적인 개발을 위해서 쓰기로 했다. 처음엔 역문화 충격을 경험하였다. 토론토에서 살았었는데 여러 환경이 새롭게 느껴지기도 하고 관계들도 쉽지 않았다. 아이들도 친구들과 만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친구들과 서먹한 느낌을 갖으면서 교회에서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교회의 요청에 따라 교회 사역을 돕고 6개월간은 공부하기 위해 LA에 있는 풀러 신학교 D.Min과정에 입학하여 공부를 하게 되었다. 4과목을 수강하여 듣고 숙제를 하면서 선교를 다시 정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었다. 커뮤니케이션의 실패들을 정리했고 첫 번째 사역 기간내에 있었던 실수들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안식년을 마치고 다시 사역지로 갈 때는 아이들을 선교사 자녀학교로 보내기로 하였기 때문에 안식년 동안 아이들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청빙의뢰가 있었다. 내가 원하여 지원하면 상황적으로 담임목사가 될 수 있었다. 나이도 된 것 같고 사역을 하면서 목회와 말씀을 전하는데 은사를 발견하였고 목회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시간 고민을 하고 기도하였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느냐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묻고 그렇게 되게 해주시면 안되겠냐고 때를 쓰기도 했다. 그런데 내가

가겠다고는 할 수 없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 것을 알았다. 거절하고 얼마나 서운하고 아쉬웠던지 한동안 헤어지지 못했다. 이런 과정을 보내면서 목회에 대한 강한 욕심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선교지로 돌아온지 4개월이 지났다. 다시 적응하고 관계를 만들어가며 사역을 시작하였다. 그 사이에 어떤 교회에서 다시 청빙의뢰가 왔다. 청빙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나를 선택하고 의사를 물어왔다. 그러나 거절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아버지의 때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정서적	정서적인 안정이 가장 필요했던 시기였지만 고립의 시기를 거치면서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아내의 지지와 이광길 교수님의 멘토링, 서정운 교수님의 배려 등을 받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갔고 안정이 되어갔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많은 위로가 되었다.
경제적	과송 교회와 여러 지인들의 후원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풀러에서 공부하기 위해 많은 재정이 필요했지만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사역을 위한 모금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아이들이 선교사 자녀학교에 갈 수 있었다.
전략적	고립의 과정에서 기도는 전략적면에 효과적이었다.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셔서 내 아쉬움과 원함이 절제될 수 있었다. 풀러에서 수강했던 여러 과목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진단을 해주었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육체적	안신년 동안에 많은 운동을 했다. 매주 축구를 했고 LA에서는 베드멘튼을 치기도 하고 파사다나의 뒷산을 오르며 건강관리를 했다. 아내도 쉼을 통해 체력이 많이 회복되었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검도를 통해 운동의 재미를 알게 되었다.

고립경험 후의 집중사역(2011-2018년)

안식년을 마치고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와 오쉬 신학교의 학장으로 사역을 시작하였다. 개척된 믿음교회의 사역을 열심히 하였다. 교회의 미래를 위해 리더를 세워 집중 양육을 하여 2015년에 교회를 위임하였다. 신학교는 1년 과정에서 3년 과정을 바꾸어 2회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2015년 9월 카라콜 지역으로 사역지를 바꾸면서 한국 선교사에게 위임하였다.

카라콜 도시로 사역지를 옮기고 현지 교회 리더 양육과 신학교를 세워 학생들을 모집하고 가르치는 사역에 전념하였다. 현지 교회 목회자 3인과 선교사 2인과 함께 이사회를 만들고 교수진을 구성하여 신학교를 운영하였고 그 신학교는 카라콜 지역 교회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교회 연합을 이루는 중요한 장소가 되었다.

다루심 항목

하나님께서서는 나를 다루셨다. 하나님께서 리더를 다루시는 과정항목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검증, 말씀검증, 그리고 패러다임 전환을 통하여 다루셨다.

과정상 항목1: 순종 검증

시기적 구분:

나이: 30세

기간: 1996년-1997년 7월

사역 시간선 단계: 단계 II, A

사건들:

1996년 여름에 정준모 선교사를 따라 우즈베키스탄을 둘러보았다. 돌아오려는 나에게 정준모 선교사는 중앙아시아 선교회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했다. 중앙아시아가 선교지라는 생각하지 못하였고 선교의 경험이 없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겠냐 라고 반문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라고 했다. 정준모 선교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여기시면 이현용전도사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 일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그 말에 감동이 되어 한국에 돌아와 중앙아시아 선교회를 만들었고 기대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애정을 보였다. 중앙아시아의 선교가 관심을 끌기 시작하던 때이기 때문에 중앙아시아를 알리고 증보하며 선교사들을 돕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은 나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순종의 결과를 보게 하신다는 것이다. 중앙아시아 선교회를 이끌었던 목회자들이 대부분 선교사로 나가 있다. 중앙아시아, 러시아, 중국등 중앙아시아에 모두 나간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선교의 열정을 갖게 했고 선교지에 나가길 원하는 통로가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헌신으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를 받게 되었다. 중앙아시아 선교회를 맡아 선교적 사역을 해나갔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순종을 거절했다면 많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해석적 논평:순종은 순종한 사람들만이 그 결과를 보게 된다. 순종이 믿음이라는 정의를 내리고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였지만 교리적인, 인지적인 선포였지 삶으로 체득되진 못하였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여정 안에서 순종을 통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신다. 그래서 순종의 요구를 통해 깊이 다루어 가셨다. 이 경험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나에게 축복이 되었다. 순종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알게 하는 귀한 은혜의 통로이다.

개발:

순종은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치있는 덕목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 이후에 순종하는 즐거움이 생겼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리가 가장 안전한 곳임을 믿게 되었다.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마음에 확신이 들면 따르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 순종의 사건을 통하여 지도력이 개발되었다. 그 사역을 통해 좋은 목회자, 선교사들을 만나게 하셔서 멘토링을 받게 되고 인격적, 사역적 영향을 받게 되어 지도자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게 하셨다.

과정상 항목2: 말씀 검증

시기적 구분:

나이: 42세

기간: 2008년 11월

사역 시간선 단계: III단계, A

사건들

2008년 11월에 아내와 현지 목사인 사이플러와 함께 굴초라는 도시를 방문하기로 했다. 굴초에 고난받고 있는 전도자인 키심잔을 위로하기 위해 가기로 한 것이다. 몇 주 전부터 키심잔을 방문해서 위로하라는 부담을 주셨다. 차를 타고 가는데 30분 후쯤 눈이 많이 왔다. 순간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3000미터의 산을 넘어 가야 하는데 내차가 후륜구동이고 사륜구동이 고장나 있었기 때문이다. 넘을 수 없을 것 같고 미끄러져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사이플러 목사님과 함께 다음에 가는 것에 대한 의논을 하며 망설이게 되었다. 그런데 옆에 앉아 있던 아내가 성경을 보면서 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며 울고 있었다. 그 말씀은 시편 24편 7-10절이다 “문들아 머리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자라.....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내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읽어 줄 때 전율을 느끼게 되었고 주저하지 않고 운전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극복하게 하셨다. 도중에 눈이 멈추어 산을 잘 넘도록 하셨다. 키심잔 집에 가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누렸다. 지쳐있던 키심잔이 위로를 얻고 담대해졌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살고 있던 언니 가정을 소개받아 아내와 함께 그 가정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복음을 전해 그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 가정교회를 시작할 수 있었다. 문을 여시는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승리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되었다.

해석적 논평: 선교지에서 많은 경험을 하였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사탄의 유혹이다. 사탄은 현실을 보게 하고 장벽을 보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저 않게 한다. 절망과 두려움으로 연약하게 남아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탄의 주요전략이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만남을 통해 예비된 자들을 부르신다. 부름의 현장에 사역자가 있어야 하고 주님을 전해야 한다. 때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나가면 열매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길 원하심을 가르쳐 주셨다.

개발

이 사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견시켰다. 말씀을 결과를 보게 된것으로 인해 신실하신 하나님, 끌고 가시는 하나님, 선교의 하나님인 것을 확신케 되었고 말씀의 권위를 더욱 믿게 되었다. 사역의 어려움이나 시험이 있을 때 말씀을 통해 승리를 확신했다. 또한 사역을 확장해 가셨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였을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선교적 교회의 설교자로 중요한 목회 철학의 기반이 되었다.

과정상 항목3: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

시기적 구분:

나이: 43세

기간: 2010년 3- 6월

사역 시간선 단계: III단계, B

사건들

안식년을 가지며 한 가지 시험으로 여겨지는 일이 있었다. 그것은 목회에 대한 갈망이었다. 안식년 동안 철저히 준비하여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교지에 돌아가기 위해 파송교회와 재파송에 대한 협의와 파송교회에 선교적인 정책을 세우고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하고 준비하는 것이 모든 관심이어야 하는데 어떤 교회의 청빙 권유를 나는 많은 혼란을 겪었다. 클린턴의 강의를 통해 데스티니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었다. 내가 계획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계획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 하나님이 무엇에 헌신하길 원하시는 깊이 묻고 전문성과 사역의 바른 방향을 결정해야 시대적 요구에 적합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목회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시면 선교적 교회를 준비해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선교를 계속해야 하든, 목회를 해야 하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지금 충실히 사역을 하는 것이 데스티니임을 알게 되었다.

해석적 논평

목회에 대한 관심이 선교사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의 전환이 있었다. 하나님이 어떤 데스티니를 가지고 나를 움직여 가시는지 바른 이해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 어떻게 쓰임 받을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묻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의 본분임을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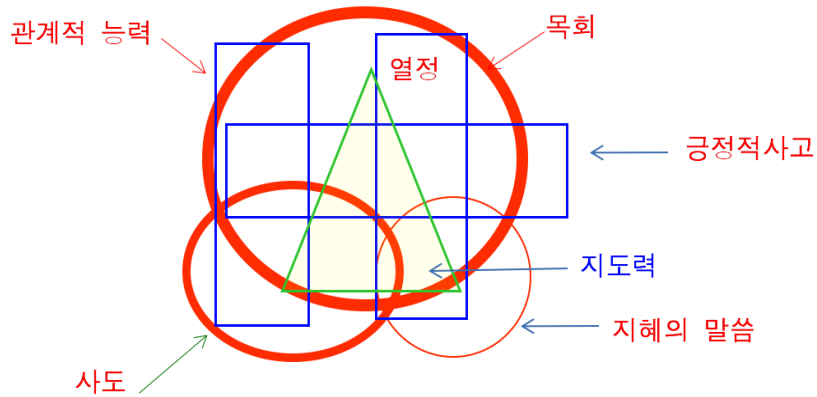
개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하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은 더 중요하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더 민감해야 하고 그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끌고 가신 그 자리에서 바르게 쓰임 받기 위해 말씀을 바르게 알고 가르치는 준비를 하기 위해 말씀의 은사에 대한 강렬한 사모함을 갖게 되었다

주어진 은사분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은사 Venn diagram



<그림 2>

이현용의 은사 Venn Diagram

*Venn diagram*에 대한 설명

영적인 은사: 목회, 사도, 지혜의 말씀

목회

은사에 대한 관찰을 하며 목회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은사임을 알게 되었다. 전 사역 기간 동안 개발되고 사용된 은사이다.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과 돌봄, 그들의 지속적인 성장에 많은 관심이 있었고 그런 상황에 있지 못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견딜 수 없어한다. 교육전도사 시절부터 전임 사역, 선교지에 가서도 이런 나의 은사는 지속적으로 사용받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때 나를 통해 돌봄과 권면을 받았다는 것을 고마워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선교지에 와서도 그 은사는 발휘되었다. 오쉬는 선교사들이 10가정도 있고 사업하는 가정은 5가정도 있었다. 함께 주일에 예배 드리길 원했다. 그 예배를 맡게 되었다. 다른

선교사들은 선교지에 와서 목회해서는 안 된다고 말지 않았지만 사업하는 분들, 선교지에서 영적인 필요를 느끼는 분들의 필요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말지 않을 수 없었다. 많은 분들이 힘을 얻었고 그분들이 성숙해 가는 것을 보며 큰 기쁨이 있었다.

이 목회의 은사는 지금까지 모든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개발해 주셨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주된 은사로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며 목회지에 나아가는 나를 사용하실 것이고 그것이 발휘되도록 하실 것이다.

사도

지나온 사역의 현장에서 이 은사는 내게 가장 많다고 생각했던 은사였다. 왜냐하면 거쳐온 사역의 자리마다 필요를 느끼며 시작했던 사역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시작된 사역을 통해 열매를 맺는 것을 지켜보며 기쁨을 느꼈다. 양평동교회에서 고등부 사역을 시작하였을 때 고등부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교사는 학생의 시기를 바로 벗어난 선배들임을 깨닫고 주일 모임 이외에 소그룹을 만들어 경험과 삶을 나누는 모임들을 시작했다. 대학교에 들어간 청년들을 선택하여 교육한 후에 특별 모임을 만들게 해서 내가 지정한 책들을 읽게 하고 토론하게 하면 재생산된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지금도 양평동 교회에 가면 그때 리더로 섬겼던 후배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 때의 경험을 이야기 하며 많은 영향을 받았었다고 이야기한다.

양평동교회의 둥근잎 느티나무 회지, 주안장로교회의 주안지, 토론토 영락교회의 교회지등 문서 만드는 사역, 중앙아시아 선교회, 토론토 영락교회의 선교위원회 운영등은 필요를 느껴 시작한 귀한 사역들이었다.

새로운 필요를 보고 필요에 맞는 사역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다. 선교지에서 많은 일들을 시도해 사역의 기반을 마련했고 그 사역들은 선교 사역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지금도 새로운 사역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많이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의 네트워크, 중국의 많은 전도자들이 중앙아시아로 오게 될 때 훈련센터, 훈련된 키르키즈 민족

선교사를 다른 나라로 파송하는 일등 새로운 사역을 생각할 때마다 흥분되는 마음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개발시켜 주시고 사용하실 것이다.

지혜의 말씀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다. 준비하기 위해 많은 시간 노력을 해야 한다. 한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발견하는 노력이 매일의 삶 속에 지속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고 알게 되는 기쁨과 그것을 선포하는 기쁨은 설교를 준비하고 노력하는 수고보다 훨씬 크다. 양평동 교회 고등부 전도사를 시작하며 설교를 시작한지 26년이 지났다. 사역의 원천과 자신감은 설교에 있다고 늘 생각했다. 그만큼 설교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고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설교하는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통해 깨닫는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는 기쁨이 있다. 그 기쁨은 목회의 은사의 기반이 된다. 깨달은 말씀을 통해 영적인 성숙을 이루지 못하고 늘 제 자리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을 보며 안타까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싶은 열망이 크다. 설교를 잘하고 못하는 평가를 받기 보다는 설교하는 자체가 즐겁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 나가는 즐거움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더욱 개발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이 은사가 마음껏 발휘하는 사역의 자리에 있길 소망한다.

타고난 재능: 긍정적 사고, 열정, 관계

긍정적 사고

살아온 과정이 순탄했던 것 만은 아니다. 아버지의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자라온 배경, 가난, 믿지 않는 가정에서의 신앙생활등 하지만 나의 가장 큰 장점은 긍정적인 사고였다.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갖었다. 이 긍정적인 면이 또 다른 은사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긍정적 사고의 은사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것은 어머니의 삶이었을 것이다.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아들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고 늘 내일의 소망을 갖도록 해준 어머니의 배려가 나로하여금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했을 것이다. 더 중요한 원인은 초등학교 6학년 때 만난 예수님 때문이다. 그분의 말씀은 나에게 늘 소망을 주었다.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섬기는 모든 일속에 믿음은 나의 삶의 원동력이었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소망의 끈이었다. 이 재능은 나를 끌고가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열정

열정은 많은 좋은 관계를 맺게 한 고리였다. 무슨 일에든 열심을 갖고 일하는 모습은 지도력 개발이나 사람들의 관계에서 장점을 갖게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교회의 예배나 모임, 행사들에 열심히 참여했고 맡겨진 일에 열심을 다했다.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다. 나의 가정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도 목사가 되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당연히 신학교에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었다. 교육전도사를 하면서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부장 장로님이나 교사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열정 때문이었다. 어떤 사역의 자리에서도 열정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았고 그 열정이 신실성과 함께 신뢰를 받게 하는 중요한 재능이 되었다. 나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기에 앞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는 중요한 도구가 더욱 잘 쓰임 받기를 소원한다.

관계

유년시절부터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잘하여 관계형성을 잘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며 관계형성의 좋은 습관들을 만들어 왔다. 그리고 긍정적 사고와 열정은 여러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기술을 갖게 했다. 좋은 관계 형성은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관계는 사역을 원활히 하고 동기부여를 하고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알게 되었고 왜곡되지 않는 관계를 통해 원활하게 목적을 이룰 수 있고 열매를 볼 수 있게 했다. 이것은 지도자로서 목회적, 사도적 은사를 발휘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것은 타고난 재능이지만 하나님의 숙명적 인도 속에서 형성된 중요한 재능이다. 데스티니의 목록을 정리하며 하나님께서는 옮겨주셨던 모든 자리에서 인내하며 사람들의 신뢰를 얻도록 인도하셨고 좋은 관계를 통해 사역을 길을 열어가셨다.

습득된 기술: 지도력

지도력

타고난 재능들은 여러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역할을 했다. 긍정적인 모습은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주었고 열정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교회 안에서 고등부 회장을 맡아 사람들 앞에 서게 되었다. 그리고 행사를 진행하거나 일을 만들어가며 좋은 관계가 효과적으로 일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을 배웠다.

대학교에 들어가서 총학생회 총무과 신학대학원에서 선교위원장을 맡아 큰 기관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면서 지도자의 역할을 배웠다. 그리고 교육전도사, 전임전도사, 부목사로 교회를 섬기며 교회 행정, 선교, 교구등을 맡아 사역을 하며 지도력을 개발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타고난 재능을 통해 지도력이 개발되었고 교회 안에서 사역을 통해 지도력이 발전하게 되었다.

습득된 지도력의 은사가 확대되길 소망한다. 클린턴은 “영적 지도자 만들기”에서 지도력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소통이다.”(1993:177)라고 했다.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통해 확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역동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건강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게 되길 소망한다.

반응유형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 나의 삶에 나타난 반응 유형의 가장 적합한 것은 데스티니 유형이다. 클린턴의 데스티니 유형의 정의를 살펴보면 3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는 데스티니 감각에 대한 것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라는 인식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관련된다 그리고 2 단계에서는 그 인식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움직여간다. 3단계에서는 그 데스티니에 대한 성취를 향하여 세워져 간다. 상징 : F.5

제1단계 준비

사건설명

하나님께서 교회가 없어 예수님을 모르고 성장한 나를 서울로 불러내셨다. 서울에 와서 친구의 인도로 처음 나간 교회에서 내가 받아보지 못했던 사랑과 배려를 받았고 하나님과 대화, 예배, 말씀공부는 특별한 체험이었다. 믿음이 성장하여 가정안에 있는 반기독교적인 문화에 대해 거부하기 시작하였다. 이 거부로 인해 아버지부터 고통을 겪게 되었다.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하고 성경책을 버리고 강제적으로 제사를 지내게 했다. 명절이나 제사 때가 되면 나는 긴장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 어려움 속에 가족을 위한 전도를 했다. 어머니와 동생, 형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였다. 동생이 먼저 믿게 되어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 5년 정도 기도하고 노력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

형은 더 시간이 걸렸는데 영적 싸움을 했다. 형이 일이 잘 안될 때 마다 “네가 기도해서 이번 문제만 해결되면 예수님을 믿을게” 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때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문제들이 잘 해결 될 때마다 변화는 있었지만 완전하게 변화되지 않다가 대학교 2학년 때 형이 대학을 졸업하며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한 사람씩 전도하며 가정의 분위기는 바뀌었다. 아버지는 내가 기도하기 시작한 지 20여 년이 지난 후에야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과거의 습관은 완전히 버리지 못하여 술과 담배는 가끔 하지만 교회에 나갔고 함께 가정예배를 드렸다. 이제는 제사나 명절 때 차례를 지내는 것 대신에 예배를 드린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어렵고 돌아올 때 얼마나 기쁘지 가족을 전도하며 느낄 수 있었다. 하나님의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을 느끼며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갖기 시작했다.

분석

시골에 살고 있는 나와 가족을 불러내신 하나님은 이미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게 하셨던 하나님은 나를 복음 전도자와 설교자로 세우시려는 준비를 하고 계셨고 한 사람이 변화되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미리 맛보도록 하셨다.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 헌신하도록 나를 끌고 가셨다.

제2단계 속명 인식 및 확신

사건설명

복음 전도자와 설교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소명을 인식하게 하시는 사건이 있었다. 중앙아시아를 다녀온 1997년 여름에 영락기도원에서 산상기도회를 하고 있을 때 나에게 환상이 보였다. 처음 있었던 일이라 너무나도 놀랐다. 우즈벱 사람들, 고려인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었다. 그들을 바라보며 내가 했던 기도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필요하시면 저를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했다. 짧은 시간 보여진 환상이지만 그날 밤 나는 오래도록 마당에서 기도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중앙아시아 선교사로 나를 보내주시도록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렸다. 그리고 선교사역 중에 몇 번의 담임목사 청빙을 거절하였지만 하나님의 때에 복음 설교자로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준비하심을 믿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기다리게 되었다.

해석

그 후 8년간 기다림을 갖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와 나를 부르셨다. 그 소명을 주시기 위해 중앙아시아를 다녀오게 하시고 보게 하셨다. 그리고 환상을 통해 확신을 주신

것이다. 그후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다.

제3단계 숙명 현실화

하나님의 데스티니는 결국 현실화되었다. 오랜 기다림을 거쳐 2005년 8월 가족과 함께 키르키즈스탄에 갔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의 기간을 갖었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다. 안식년을 갖으며 고립의 과정을 겪게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다시 선교지로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끌고가시는 자리가 어디라도 가겠다는 다짐과 함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2018년 2월에 목포에 있는 복음 교회의 담임목사 청빙을 받아 목회를 시작하게 하신다.

삶의 목적

나는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갖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충성과 순종을 하는 지도자로 기억되길 원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데스티니를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가셨다”는 분명한 고백을 하게 되었다. 가정 적합한 시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로 끌고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셨고 많은 형성과정을 거치게 하셨다.

그런데 그렇게 끌고가신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에 대해 믿음이 없어 불평했고 원망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을 놓치기도 했고, 바르게 준비되지 못해서 더 아름답고 훌륭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 죄스러움과 아쉬움이 남는다. 데스티니를 정리하며 나에게 분명해진 삶의 목적을 설명한다면 “복음을 위한 온전한 전도자와 설교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에 바른 순종과 온전한 충성을 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신실한 종이 되는 것이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끌고 가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곳, 그분이 선택하신 때가 가장 선한 것임을 믿는다.

요약

본 장에서는 클린턴의 평생지도자 개발론의 관점에서 선교적 교회 설교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술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내 자신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 과정을 이해하였다. 클린턴이 말하는 ‘사역은 존재로부터 나온다’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선교적 교회 설교자가 선포해야 할 복음에 대하여 기술할 것이다.

제 3 장

선교적 교회 설교자의 복음이해

본 장에서는 선교적 교회 설교자가 선포해야 할 복음에 대하여 기술한다. 필자는 예수님의 복음과 바울의 복음에 관하여 기술한다. 이 과정에서 선교신학자인 아서 글라서(Arthur.F.Glasser), 롤랜드 알란(Ronald J.Allen) 그리고 김세운이 규정한 복음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글라서는 선교신학적 관점에서 복음을 규정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보내심의 선교형식을 강조한다. “때가 차서 하나님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사”(갈6:4)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보내시는 선교 형식과 일치하나 독특한 모습을 보인다고 설명한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보내시는 선교 형식과 일치한다. 우리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생생하게 기억한다.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렘 7:25)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독특하다. 인간의 타락상은 극에 달하였다. 죄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 속죄 뿐이었다. (2006:296)

복음되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삶으로 보여주신 사역을 통해 궁극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를 열었다. 세례 요한은 두 시대의 분수령이 되었다. 율법 시대의 선지자였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메시지를 통해 새롭게 시작될 시대를 예언했다. 예수님은 그 요한이 예언한 분이다. 글라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이루고 있으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이미 오셨다”는 조지 래드(Gorge Ladd)의 주장을 인용해 요한과 예수님을 차별화한다.

예수님의 사역과 요한의 사역의 많은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다른 점이 있었다. 표면적으로 보면 양자가 모두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그 임박함에 대해 선포하였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실제 이루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 가운데 이미 오셨다.”(Ladd1964:109)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극단적인 스타일을 따르지 않으셨다. 전혀 다른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셨다. (2006:299)

예수님은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 내셨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 3:2) 자기 안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현재적 실존을 강조하셨다.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을 글라서는 ”정치나 군사적인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셨다 는것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표현하셨다”고 한다. 먼저는 하나님의 종으로 스스로 묘사하셨다고 한다. 레지널드 풀러 (Reginald H. Fuller)의 글(1960:277)을 통해 인용한다.

주의 종의 모습은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는 순간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까지 그 분이 행하신 모든 말씀과 행동에 통일성을 제공한다. 이 배경을 제거해 버리면 예수님의 생애는 연관성이 없는 여러 조각으로 나누고 말것이다. (2006:303에서 재인용)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나 메이사 됨을 증명하기 위해 기적을 일 으키셨다고 본다. 이것은 메시아적 이적들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실존을 보여주려는 의도에서 행하신 것이라고 본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가시적인 외형적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한다. 비유들을 통해 종말론적 현실과 선교적 과업, 제자들의 책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의도가 있다고 논한다.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구약에 나타난 직분인 선지자, 제사장, 왕외에 종이라는 직분을 첨가한다.

예수님은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서셨다. 그러나 그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달랐다 경고나 정치적인 메시지는 없었다. 대신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다. 형제애와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노예제도의 대해 언급하지 않고, 세리도 비난하지 않고, 부자들에게 탐욕을 조심하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며 사랑, 성실, 진실, 겸손, 검소함을 강조하셨다.(Glasser 2006:328) 예수님의 선지자 사역과 이에 따른 하나님의 나라 표적들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가져왔고 그리고 새 언약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으로 본다.

글라서는 구약의 메시야는 오실 메시아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적 요소는 없다고 한다. 제사장적 메시야는 생소하다. 예수님은 성소에 들어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돕는 제사장의 역할은 아니다. 히브리서에 예수님만이 완벽한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다리라고 설명한다.(히 9:11-14) 즉 예수님은 제사장적인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났고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참 제사장 되셨다고 본다.

예수님은 제사장적인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셨다.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 가르침과 모범을 통해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 개인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사역이라는 것을 보여 주셨다. (2006 331)

복음서는 예수님을 왕이라 칭한다.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왕이시다. 빌리도가 심문할 때 첫 번째 질문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의 대답은“네 말이 옳도다.”군중들이 기대하는 탁월한 능력으로 이스라엘 해방시킬 왕을 거부하셨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의 화해, 사랑, 자유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려한다고 글라서는 말한다.

예수로께서 수천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경험한 이후 군중들은 예수님에게 그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논리는 분명했다. “그가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수 있을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모든 원수들을 정복하도록 도울 수 있다” 예수님은 그런 정치 철학을 거부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 가치는 분명하다. 사랑, 하나님과의 화해, 그리고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가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된다. (2006:333)

능력있는 지도자가 아닌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제자 사역의 핵심적인 가치가 되었다. 모든 섬김의 본질은 순종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순종해야 할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사람들을 섬기셨다.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진심으로 사랑하셨다. 병든 자 고쳐주시고 용서하시고.등 모든 예수님의 행위는 하나님의 종의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수님과 교회

아서 글라서는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은 새로운 공동체 즉 교회라고 본다.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은 새로운 공동체 즉 교회일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의 최종 완성 사이에 역할을 감당하도록 신앙 공동체 교회를 만드시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다고 도전하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 본문이,이 논지를 지지한다고 확신한다. (2006:360)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최종 완성 사이에 역할을 감당하도록 새로운 신앙공동체, 교회를 만드셨다는 것을 글라서는 지지한다. 그는 “예수께서 교회를 염두해 두셨다는 증거는 별로 없지만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구원하는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 사회속에서 선교적인 공동체의 기초를 놓으셨다.”(2006:361) 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동일시 하지는 않았다고 보았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시치는 일과 여러가지 메시아적 행위를 통해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긴 기간 동안에 의도적으로 교회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셨다고 본다. 즉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마 4:19)는 말씀과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는 것(막 6:17) 등에서 교회를 준비하셨다는 것을 입증해 준것으로 보았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관계를 크리스텐 스키티스가르드(K. E. Skydsgaard)의 말(1951:386)을 인용하여 이렇게 주장하였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보다 상위 개념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존재의 근거를 하나님 나라에 둔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존재한다. 교회는 현재부터 하나님의 권능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께 최후의 승리를 허락해 주실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한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교회는 궁극적인 경계를 갖는다.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교회는 교회의 본질, 능력, 그리고 소망을 받는다. (2006:369에서 재인용)

글라서는 레드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대해 5가지로 정리한 것(1964:111-19)에 동의 한다. 레드가 말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뿐이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세운다. 교회가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마암아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면 교회는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셋째,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에 이루어졌고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선포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다.

넷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이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것과 같이 교인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다섯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관리인이다. 교회가 복음을 전세계에 전파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될 사람과 제외될 사람을 결정하실 것이다. (글라서 2006:369에서 재인용)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로 보고 그 나라를 만들어 가며 관리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글라서의 주장이다.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설교하셨다. 글라서는 복음서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대해 예수님이 선포하신 5가지 유형을 설명한다.

요한복음 20:19-2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 후에 나타나셨다. 그것을 통해 죄 용서의 본질적 권세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통해 예수님께 있음을 보여 주셨다고 본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결론적으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래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요 20:23)라 하신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을 근거로 죄인들에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선포하는 본질적 권세를 갖게 된 것이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제자도의 새로운 부르심을 선포한것으로 이해한다.(2006:374)

글라서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온 것 처럼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령께서 참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권세가 안수 받은 성직자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 그보다 새롭게 중생하고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 명령에 근거하여 그와 동일 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2006:376)

누가복음24:44-49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죽음과 부활이라는 중요한 핵심과 함께 중요한 일은 모든 민족에게 그분의 이름으로 “죄사함과 회개”를 전파해야 한다고 알려 주신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누가의 주장에 대해 글라서는 하워드 마샬(Howard Marshall)의 주장을 동의 한다.

해야만 한다라는 동사로 하나님의 역사의 행로 안에 하나님이 반드시 일어나고 일어나도록 해야만 하는 사건들은 ‘하나님의 결정에 따른 결과’라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Marshall 1971:111)는 것을 통해 십자가와 부활 처럼 동일한 중요성을 갖는 “신적 필요성”의 명령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Glasser 2006:377)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제자들은 복음을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전파해야하고(눅 24:47) 그리고 제자들이 전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나타남을 통해 알려 주셨다는 것이다.

마가복음 16:15-20절에서는 주님이 보여주신 것 처럼 제자들에게 표적이 따르게 될 것을 말한다. 글라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은 제자들이 스스로 세워지는 데 핵심적인 요소였고 처음 복음에 대한 교리를 전제하는데 필요했다. 이런 능력은 오직 몇 사람들이 기지고 있었으며, 확인된 바로는 특정기간 동안에만 이 능력이 주어졌다.(2006:384)

그는 제자들이 사역을 할 때 주님으로 주어지는 신적 권능이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마태복음 28:16-20절에서는 제자들을 향한 구체적인 과업을 지시한 것으로 본다 제자들의 책임을 “가서 제자를 삼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제자들이 완수해야 할 과업은 “제자 삼으라”는 것이다. 이 명령의 동사를 지지는 것이 3가지 분사가 있다. 가면서

세례를 주고 가르치라는 것이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종합하면 “너희는 가서 세례를 주는 것과 가르치는 것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제자 삼는 일에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글라서는 주장한다

첫째 제자 삼는 일은 세례를 통해 교회 안으로 편입시키는 일과 하나님의 나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교육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제자 삼는 일에는 세례와 세례가 의미하는 것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례는 종말론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상 질서로부터 해방해야 것을 내포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제자를 만드는 데에 가르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주님이 기대하는 수준까지 단계적 훈련이 필요하다. 가르침에 있어 마태복음 안에 5가지 윤리, 선교, 헌신, 공동체, 청지기적등 메시지가 있는데 이런 명령을 지키라는 가르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2006:382-384)

사도행전 1:8절에서는 이런 위대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핵심은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것이다.

글라서는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행하시고 보여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한다. 그 개념이 미시오 데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교회의 선교적 사역은 삼위하나님께서 모두 참여 하신다. 성부께서 정하시고 아들을 보내셨다. 아들이 구속하시고 성부화 함께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을 보내셨다. 하나님의 백성을 북돋우어 선교를 위해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한 것으로 본다.

미시오 데이의 목표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게 하는 것과 그들을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시키는 것이 된다. 성부께서 보내시는 자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고 성령은 계시자가 된다. 이 논리에 따라 교회가 선교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애통한 일이다.(2006:399)

바울의 복음

바울은 복음을 설교하였다. 바울 복음은 선교적 교회를 만들었다. 윌버트 쉐크(Wilbert R Shenk)는 “다양한 새로운 영역에 도전이 있지만 선교는 계속되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를 형성했다.”(2001:20) 라고 했다. 그 제자 공동체가 교회이다

바울이 이해한 복음에 대한 이해를 통해 선교적 교회 설교자의 목회 철학을 정립해 보려고 한다.

메시아 이해

바울은 자신의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주장한다.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 복음을 받았다고 주장한다(갈 1:12).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것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한다(갈 1:11).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복음을 위해 바울은 죽을 때까지 순종하였고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족적을 남겼다. F F 부르스(F. F. Bruce)는 바울이 정열적인 사역의 수행으로 10년만에 위대한 성취를 이루었다고 한다. 그는 롤란드 알렌(Roland Allen)의 글을 통해 인용해 바울이 위대한 사역의 성취자임을 밝힌다.

십년도 채 안되는 기간 동안에 성 바울은 제국의 네 속주 즉 갈라디아, 마게도냐, 아가야, 아시아에 교회를 일구어 놓았다. 주후 47년 이전에는 이 지역들에게는 교회가 한 곳도 없었다. 주후 57년에 이르러서는 성 바울은 거기에서 자기가 할 일은 끝났다고 말할 수 있었고 자기가 세운 교회들이 자기가 없는 동안에 자신의 지도를 받지 못해 소멸해 버릴지도 모른다는 염려를 하지 않고도 더 먼 서쪽 지방으로 선교 여행을 떠날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알렌 1927:3; 부르스 2002:30에서 재인용)

바울은 놀라운 선교사였다. 그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았다고 한다. 그 만남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 김세윤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7가지로 정리한다. (1995:307-15)

첫째, 바울은 다소에서 낳고 예루살렘에서 자랐다. 바리새파 삼마이 학과 행 22:3 바울이 가말리엘 무하에서 수학했다고 한다. 바울이 유대 전통에 극도로 열의가 높아 교회를 박하였는데 중요한 이유는 두가지였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라 선포했기 때문이고, 신 1:23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신성모독으로 보았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율법과 성전 의식을 공격했기 때문이다. 예수가 속죄의 제사를 드렸으면 성전의 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둘째, 다메섹 쪽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보았다. 그 만남에서 복음을 받았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래서 바울은 순종하여 아라비아로 갔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 목상하기 위해 갔다고 보는 견해들이 많은데 김세윤은 복음 전파하라는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갔다고 본다.

셋째,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나타남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소명을 받을 때 허락되었던 하늘 궁전에 대한 환상과 같은 종류의 것이었다(사 6장; 겔 1장)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목사가들이 하늘 궁전의 왕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과 미래 특히 종말에 펼쳐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받은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을 계시라는 말로 설명한다. 바울은 다메섹 경험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소명을 받을 때 허락된 환상으로 해석한다. 바울이 계시 비밀이라는 말을 쓴다.(갈1:12; 고전 2:6-10; 엡3:1-13; 골1:24-29)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서 계시된 구원의 계획이라고 본 것이다.

넷째, 바울은 십자가에 못박힌 예수를 메시아 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고백들 뿐아니라 그 신앙고백에 담긴 생각들을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는 시편 110:1을 성취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아 그의 오른 편에 앉아 계시는 주로서 심판과 구원을 위하여 이땅으로 돌아 올 준비가 되어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는 구원은 “예수가 주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의 주권아래로 들어가는데 달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와 구원의 중계자로 토라를 능가 대치되었다고 생각했다(롬10:4). 저주받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표하는 분으로 예수님을 본 것이다.

다섯째, 다메섹에서 본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남으로 이해한 것으로 추측한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화한 하나님의 지혜로 생각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나타난 그리스도는 첫 아담이 잃은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마지막 아담이다.

여섯째, 바울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시와 구원의 수단으로서 율법을 종결지우셨다고 생각하고 죄없는 그리스도가 자기 잘못을 인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불경건한 죄인, 하나님의 원수인 바울은 순전한 은혜로 의롭다고 선언받았음을 깨달았다. 일곱째, 바울의 복음과 사도직은 다메섹 도상의 그리스도의 출현에 근거한 것이다. 그의 신학과 사도로서의 존재 바탕이다. 그가 선포한 복음이 인간적인 복음이 아니라고 주장할 때의 의미이다(갈1:1).

이 처럼 바울의 복음의 기원은 다메섹에서 예수님과과의 만남이다. 그 만남을 통해 복음을 이해했고 복음을 위해 일생을 바친 선교사가 되었고 말씀의 선포자로 살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메시아의 복음

바울 복음은 메시아의 복음이다. 바울은 메시아 복음을 선교의 중요한 기초로 삼았다.

바울의 가르침과 설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생애에 맞추어져 있다. 그의 서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고 유사한 명칭들이 593회나 나오고 있다. (김승호 2007:99)

우리가 바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바울의 메시아관 이해해야 한다.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아는 것은 바울의 메시아적 선교를 바르게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선교사 그리스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로 보았다. 바울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은 단 한번으로 충분했고 또한 그의 오심은 모든 자들을 위함이였기 때문에 또 다른 성육신은 필요치 않았다고 인식한다(롬 6:10). 바울은 메시아는 성부 하나님에 의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고 그의 오심은 자발적이었다고 강조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였다(롬 8:3-4).

바울 서신을 통해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로 자발적으로 오심을 살펴보면 그것을 증거하는 구절은 고린도후서 8장 9절과 빌립보서 2장 6-8절이다. 특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로 말하고 있다. 본체의 헬라어는 본질, 실체, 실재를 뜻하는 것으로 하나님 본체는 바로 하나님 자신을 의미한다. 바울은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었고 하나님과 한 몸으로 존재하시는 분으로 인식했다. 특히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메시아로서 세상에 오셔서 행하셨던 선교의 목적을 보게 된다. 바울이

여기에서 “종”이라는 단어를 써서 인간들을 섬겨 그 인간들을 위해 자신을 대속 제물로 주시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것은 주님이 자신의 오심을 드러내신 정체성과 일치하는 것이다(막 10:45).

바울은 빌립보서 2:7-8절에서 “사람과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분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참 하나님이신 메시야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8절에 자발적으로 오신 선교사의 극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낮추셨다”는 말이다. 주님께서 스스로 낮추신 것이다. 낮추심의 행위 속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당신의 선교 목적을 성취하시는 자발적인 행동이다.

바울에게 자발적으로 세상에 오신 주님과 만남은 그의 삶의 목적을 바꾼다. 그는 스스로 주님의 종이 되기를 결단한다. 이 결단으로 메시야로 오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선교에 힘과 마음을 다하여 동참하기 위해 나서게 된다. 이런 삶을 위해 바울은 많은 희생의 대가를 지불했다. 이 희생은 자발적인 따름이다. 바울은 죽는 순간까지 주님의 자발적인 오심을 따라 자신을 포기하고 따랐던 선교사였다.

그리스도의 주되심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은 바울 신학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주”의 의미는 고전 헬라어에서 “주”는 신적 권리와 종 사이에 소유권,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존재하는 신분적 순위,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를 뜻 할 때 사용되었다. “주”의 두드러진 개념은 ‘권위’ ‘소유권’이다. 70인역에서는 “야웨” 보다 “아도나이”가 두드러지게 사용되었으며 이 호칭을 선호했다(호크마 2007:23). 김승호도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바울서신의 중요한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은 바울 서신에 나오는 중요한 개념들 중 하나다. “주” 혹은 “주님”이란 호칭은 바울 서신에서 275번이나 사용되었는데 12번은 성부 하나님을 지칭할 때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다. (2007:106)

바울도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불렀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고백했다(롬 1:1; 갈 1:10). 그 고백은 온 세상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과 인간에 대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다.

바울은 서신서들에서 거듭 ‘주’로 불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로 인간의 ‘주’가 되실 뿐 아니라 죄인을 구속하시는 ‘주’가 되셨다는 구원론적 의미로 사용했다. 메시아되시는 주님은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래서 영광을 받으심이 예수님이 주 되심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런 근거로 바울은 주님의 주 되심이 선교의 근거가 된다고 인식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부활하셨다”(롬 4:25) 라고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였고 그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올 것을 촉구한 것은 주님이 영원한 현재적 사건으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것이다.

김승호는 바울이 말하는 주되심은 삼중적 의미가 있다고 한다.

첫째는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롬 10:12; 14:7-9)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그에게 속한 자들이며 주님께 충성과 순종을 드려야 한다고 본다.

둘째는 교회의 주가 되신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교회의 주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동일한 의미의 단어 ‘머리’를 사용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엡1:23; 골1:18) 바울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할 때 그 의미는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권위와 다스림을 뜻했다. 교회는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 그 사실을 선포할 책임을 갖고 있다.

셋째는 믿는 사람들의 주가 되신다.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서신들에서 최소한 67번을 사용했다. (2007:118)

‘우리 주’는 바울을 포함한 모든 믿는 자들의 주가 되신다는 의미이다. 고린도 전서 6장 19-20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구속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노예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사단의 종에서 해방되어 주님의 종으로 그분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으로 바울은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철저히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 바울에게서 가장 중요했던 일은 예수님이 주 되심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다. 그것을 바울 뿐 아니라 메시아 되시는 주님을 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의 사명인 것이다.

오직 예수

바울은 “오직 예수”를 주장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일 뿐 아니라 오직 한 분의 구주시며 세상에 다른 구주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과거나 현재나 세상에는 자신을 구주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지만 세상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이는 오직 한 분 예수님 밖에 없음을 바울은 분명히 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유일한 구주 되심에 대해 로마서 5장 6-8절, 10장 9절, 12-13절, 고린도 전서 8장 6절, 고린도후서 5장 14, 21절, 빌립보서 2장 9절, 디모테 전서 2장 5절에 말하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구절은 디모테전서 2장 5절이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구주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심을 증거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구주 되심을 확신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했다. 바울이 오직 주님 만이 세상의 구주 되심을 말할 때 주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의 구주가 되시려 오신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포함하고 있다. 그 구주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다. 로마서 1장 3-4절과 갈라디아서 4장 4절, 빌립보서 2장 6-8절, 골로새서 1장 15절, 다모테전서 2장 5절, 디도서 2장 13절 등이다.

이렇게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화목제물이 되시는 것이다. 로마서와 고린도 에서는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라고 했다. 화목과 구속 사역은 이미 완성된 사역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구주가 되셨는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이런 일을 하셨고 그 일을 위해 그리스도는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오신 오직 한 분이신 메시아인 것이다. 정경호는 이런 바울의 인식이 바울 선교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고 한다.

바울은 이런 화목하게 하는 것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셨고 그들의 책임은 구원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것이다. 바울도 그 일을 부름 받은 사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을 다했다. 그가 세운 교회들은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도적 교회가 되었고 그 교회의 본질적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되었다. (2009:178)

심판주 예수

바울은 예수님이 심판주되신다고 주장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와 주님이 되실 뿐 아니라 다시 오시는 심판 주이시기도 하다.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을 심판하실 권한을 갖고 계시는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장차 있을 심판은 바울의 설교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주제들 중 하나였다. 바울은 사람들을 향해 회개하고 구원을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권고했다. 또한 바울은 다가올 심판에서 맞게 될 운명에 대해서도 밝혔는데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반응과 태도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도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전했다. 바울이 인식하고 있는 심판 주 되실 그리스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바울은 예수가 불신자들의 심판주가 되실 것을 선포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 주시며 세상은 그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될 것에 대해 바울은 서신들을 증거해 주고 있다.(롬 2:30-31; 살전 1:9-10; 살후 1:8, 2:11-12; 딤후 1:4)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날을 정하셨는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심판을 진행하실 것이라고 한다.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심판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 하셨다(요 5:27). 바울은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는 이유가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라고 본다. 로마서 2장 2절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라고 했다. ‘우리가 아노라’는 심판의 확실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누구도 다가 올 심판에서 피할 자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 임하게 될 심판은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한 동기가 되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해 경고 했고 죄를 회개할 것과 복음을 영접할 것을

촉구했다. 바울이 이렇게 전하는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믿는 자들의 심판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 선포한다.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과 믿는 자들의 심판은 큰 차이가 있다. 불신자들의 심판의 정죄의 심판이고 믿는 자들의 심판은 평가와 보상의 자리가 될 것이다. 믿는 자들을 위한 심판에 대해 바울은 그의 서신들에서 언급을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 후서 5장 10절과 로마서 14장 10, 12절이다. 고린도 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이며 선악 간에 행한 것들에 따라 받게 될 것이라고 했고 로마서에서는 판단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행위를 조사하여 그 행함에 따라 상급을 주실 자리이다. 그 자리는 판결의 자리가 아니라 보상의 자리이다. 그리스도인의 행함과 상에 대해 고린도 전서 3장 12-15절에 자세히 증언해 주고 있다. 12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놓여진 기초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두 종류의 건축 재료에 대해 말해주고 있다.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는 14-15절에서 밝히고 있다. 신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사람에게는 상급이 있고 그렇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산 사람은 상급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들이다(고전 4:1). 바울이 심판대 앞에 설 때 가장 칭찬 받을 만한 삶은 복음을 전하는 청지기의 삶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 청지기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는 고린도 전서 4장 2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충성’이라고 한다. 충성됨이 청지기가 가져야 할 필수적인 자질이다.

모든 열방 가운데 임하게 될 심판,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은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했던 동기였다.

바울의 선교 메시지

바울은 선교사였다. 그의 메시지는 선교 메시지였다. 롤란드 알렌(Roland Allen)은 바울이 전한 설교나 메시지 안에 다섯 가지 요소가 있었다고 한다.

첫째는 과거에 대한 호소, 둘째는 사실에 대한 진술, 셋째는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반론에 대한 답변, 넷째는 사람들이 품는 영적인 필요, 죄 용서에 대한 갈망에 호소하는 내용, 다섯째는 엄숙한 경고가 있다. (2008:110)

그는 이런 특징이 바울 첫 번째 쓴 데살로니가에 잘 표현되어 있고 바울의 선교의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한다. 이 편지는 단순히 선교적 복음 메시지가 놀랄 정도로 명쾌하고 적합한 형태로 되어있다고 한다. 데살로니가서를 통해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을 간추려보면 다음 같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존재한다(1장 9절).우상숭배는 최악 된 것이므로 버려야 마땅하다(1장 9절) 하나님의 진노가 더러운 짓을 하는 이방인에게 곧 나타날 것이고(4장 6절)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복음에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임할 것이다(2장 15-16절) 심판은 예상치 않은 때에 갑자기 올 것이다(5장 2-3절) 죽음에 넘겨지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 주는 구원자다(1장 10절, 4장 14절, 5장 10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세워졌고 모든 사람이 거기로 들어가도록 초대받았다(2장 12절).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들은 장차 그들을 영접하러 하늘로부터 그 구원자의 강림을 고대한다(1장 10절, 4장 14-17절). 그 때가 오기까지 그들은 순결하고(4장 1-8절), 쓸모 있고(4장 11절),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5장 4-8절) 이를 위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성령을 주셨다(4장 8절, 5장 19절). (Allen 2008:117) 이 복음은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고별 설교에서 자신이 복음 전파에 관해 저술한 내용과 완전히 일치한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설교와 복음 전파에 관한 모든 언급에 포함된 모든 요소를 포함한다. 단 한 분이고, 살아계시며 인격적이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아들로 죽음과 부활을 거친 예수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한 사실들, 사람들의 영적 필요를 채우기에 충분한 이 사실들에 담긴 의미와 능력,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 구원의 길, 회개와 믿음, 하나님 나라와 교리, 심판의 임박성 등 바울의 전한 메시지가 모두 담겨 있다. (2008:118)

그가 말하는 바울의 메시지의 가르침은 위의 메시지를 통해 삶의 본질적인 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자체가 과거로부터 완전한 단절이 내포되어 있다. 그는 믿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믿음이라는 것은 생활이 하나도 변하지 않은 채 새로운 종교 생활에 그저 지적인 동의를 표하는 것이 아니며 새로운 도덕법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며 옛 법과 단절되지 않은 채 의무적으로 새로운 스승의 본 보기만 따르는 것도 아니다. 생명과 공급을 위해 그리스도께 완전히 의존을 하는 것, 즉 과거의 생명 관념, 곧 이전에 알았던 바로 그 생명을 버리는 것을 뜻한다. 이전의 모든 것을 던져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임박한 심판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임을 분명히 인식 한다는 것이다. (2008:126)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알렌이 잘 정리하였다. 메시아 인식을 통해 전한 메시지는 회개와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회개를 통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으로 생명의 길을 발견하는 것이다. 바울의 메시지는 철저히 메시아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철저히 예수의 생애와 사역에 초점을 맞춘 그리스도의 부활, 재림, 심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바울의 선교 방법론

바울의 선교 방법론은 독특하다. 바울은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복음의 핵심을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하나님이 이룬 화해라고 지적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 나사”(고전 15:3, 4)라고 했다. N. T 라이트(N. T. Wright)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하나님은 메시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해 시켜셨고 우리에게 화해 시키는 직분주셨다. 하나님의 메시아 안에서 세계를 자기와 화해 시키고 계시고 그들의 범죄들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시키는 말씀을 맡기셨다. ...화해를 위한 이 죽음이 사도적 사역을 통해서 전달되는 방식에 주어진다. (2015:414)

이 화해의 사역을 위해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사람의 주되시길 원하신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바울은 오직 한 분인 예수그리스도를 전하려고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고 가는 곳 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의 선교 방법은 주님을 그를 부르심에 근거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메시아 인식을 통해 그가 사역을 했던 방향을 몇 가지 사역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도시중심 전략

바울은 도시를 전략적으로 이용하였다. 바울은 로마제국의 대도시들을 선교의 거점들로 삼으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설립하였다. 도시에 세워진 교회의 장점에 대해 이광순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도시에 세워진 교회는 그 주변 지역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한 곳에 오래 머물지는 않았다. 물론 에베소에서는 3년 이상이나 체류하였으나(행 20:31) 그 곳에 필요 이상으로 머물지는 않았다. 그 곳 회중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채울 준비가 되고 선교사역에 있어서 바울을 도울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는 다른 곳으로 향하였다. (1986:86)

안디옥은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도시였으며 빌립보는 그 지역의 행정중심지였다. 에베소도 소아시아의 대도시였으며 데살로니가도 큰 상업도시였다.

서정운은 이같이 대도시 중심의 사역이 신속한 복음화를 이루었다고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바울이 도시 우선으로 전도한 것은 제한된 시일 안에 더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겠다는 의도에서 인구가 집중된 곳, 보다 개방적인 곳, 공용어를 잘 이해하는 곳인 도시에 힘을 쏟았다.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면 그 주변과 사이의 지역들은 도시교회들의 전도활동에 의해 이차적으로 복음화될 수 있다고 계산한 듯하다. 이 같은 원리는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보다 신속한 복음화를 가능케 한다. (1988:35-36)

바울의 도시 선교 전략은 개인적인 회개와 회심이라는 기반 위에 세워져 있다. 바울 자신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회심 경험이 영적인 변화와 회심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성을 상기시켜 준 것이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진리를 강조했다. 그래서 바울은 회심과 그리스도께 대한 전폭적인 헌신을 선포하였다. 도시 선교 전략의 첫 번째 시금석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과 통치를 수용하는가? 그리고 그들이 마음과 삶을 그리스도께 내맡기도록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바울의 도시 선교 전략은 회심자들로부터 시작해서 교회들로, 그리고 전체 로마 사회로 이어져 나가는 것이었다.

회당중심 전략

초대교회에서는 바울의 선교는 유대인들의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러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 거기에서 전도하였다. 회당 중심의 바울의 선교에 대해 장훈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회당은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익숙한 곳이었다. 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년기 때부터 회당을 중심으로 종교생활을 하였고 따라서 회당에서 행하여지는 예배의 순서나 기타 의식같은 것은 그에게 너무나 친숙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고 어릴 때부터 율법에 충실한 유대인으로서 헬라 세계와 회당의 문화를 잘 알고 있었다. 특히 그 당시의 회당의 관습에 의하면 회당을 방문하는 랍비들에게 권면의 말씀이 있을 때에 청중들에게 연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다(행 13:15).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이 기회를 활용하였던 것이다. (1996:59)

바울은 회당을 중심으로 하여 전도하다가도 회당에서 추방을 당하면 즉시 다른 도시로 이동하였다. 다른 도시에 도착하면 곧 바로 회당을 찾아 갔다. 회당에서 많은 배척이 있었던 것이 사실일지라도 또한 회당만큼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곳도 드물었다. 그 만큼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방법중의 하나는 그 당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의 회당을 거점으로 한 선교였다.

바울이 회당 중심의 선교방법을 사용한 이유를 서정운은 두 가지로 들고 있는데, “하나는 복음을 유대인에게 우선 제공하는 것이었고, 다음은 회당에 사람들이 집결하여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군중을 모을 필요가 없는 이점이 있다”(1988:36) 라는 것이다.

박창환은 이에 대해 교회와 신학 28집에서 “바울의 선교 원칙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택정함을 입었고(갈 2:8), 그러한 직분에 특별한 금지를 가지고 있었으나(롬 1:13), “첫째는 유대인에게”(롬 1:16)라는 원칙을 고수했다. 따라서 그는 한 도시에 도착하면 곧장 회당을 찾곤 하였는데, 그것은 집결되어 있는 청중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자기 동족인 유대인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회당을 중심으로 먼저 선교를 하게 되었다. 바울의 선교에는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을 제외할 수가 없었다. 이스라엘의 주 되심을 전하여 민족이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을 적대시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계획에서 제외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박창환 교회와 목회27)

팀 중심 전략

초대교회는 팀을 구성하여 선교사를 파송하였다. 사도행전 13장을 통해 성령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팀을 이룬 첫 번째 선교사로 뽑으신 것을 알 수 있다. 안디옥교회는 그들을 팀으로 구성하여 파송했던 것이다. 마가요한에 대한 그들의 견해차이 이후에도 그들은 사역을 홀로 행하지 않았던 것이다.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는 바울과 실라와 같이 사역했다.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아굴라와 함께 천막을 만들어 팔며 복음을 전했고 그 뒤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합류하였다. 이들의 지원으로 바울은 전적으로 복음전파에 종사할 수 있었다.

박창환은 이런 바울의 사역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 한다.

만일 그가 협력자로 여러 사람을 대동하고 같이 선교 경험을 같이 하지 않았다면 바울이 죽은 후의 교회는 누가 인도했을 것이며 기독교 사상이 어떻게 이어져 갔겠는가? 바울에게 훈련받은 마가, 누가, 디모데, 디도 실라등이 없었다면 기독교회가 오늘의 교회로 발전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1996:18-19)

바울의 선교방법은 신앙적 영웅심에 의한 개인 위주의 선교활동이 아니라 동역의 선교였다. 선교는 동역이 아니면 힘이 든다. 기도와 격려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G. T. 퍼브즈(George.Tybout.Purves)는 바울의 동역자를 통한 선교에 대해 “그(바울)는 외로운 전도자가 아니라 다수의 선교사들을 지휘한 사령관이었으며 선교사역이 진행됨에 따라 동역자들의 수는 날로 증가 하였다”(1988:124)고 하였다.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작전을 총괄적으로 지휘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는 필요에 따라 그의 동역자들을 움직이게 하였다.

바울의 사역에는 반드시 그와 협력하는 선교의 동역자들이 있었다. 브루스의 표현처럼 ‘자석의 주변에 쇠붙이가 달라 붙듯이’ 바울 주위에는 언제나 친구들이 모여 들었다(2000:8).

맥가브란은 바울의 팀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한다.

선교 사역자들 가운데서 바울이 뛰어난 것은 그가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그들의 혈족을 그리스도도의 신앙으로 이끌려는 데 힘썼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울을 돕는 사람들의 열심이 없었다면 바울의 사역도 한계에 이르렀을 것이지만 그들로 말미암아 바울은 더욱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던 것이다. (1955:28)

자발적인 선교사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도 제자들과 그외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사역이었다. 바울의 인격과 삶이 사람들을 헌신케 하고 동역할 수 있도록하는 역할을 했지만 먼저 선교사 되신 주님의 사역이 모델이 되었을 것이다.

제자훈련 전략

초대교회 선교에 있어 한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일반 신자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점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스테반 집사의 선교 활동과 그의 죽음 뒤에 따른 핍박으로 신자들은 온 지역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였다(행 8:4). 그리고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성에서의 선교(행 8:5), 어떤 사람들은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흩어져 주의 복음을 전하였다(행 11:19). 그 중에 어떤 이들은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다(행 11:20).

장훈태는 초대교회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처럼 평신도들이 흩어져 전파하자 복음은 자연스럽게 일반계층에 스며들게 되었다. 바울의 평신도 선교 동역자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일한 사람이며 바울은 이런 자발적인 복음전파를 억제하지 않고 오히려 평신도들을 잘 이용하고 조직화한 것이 그의 특징이다. (1996:65-66)

바울의 선교는 지역교회 설립과 더불어 제자훈련을 통한 제자 양육과 지도자 양성이 특징이다. 바울은 교회를 설립한 후에는 전도한 개종자들을 꼭 훈련을 시켜서 교회의 일꾼과 지도자로 세운 후 성령과 주의 말씀에 부탁하고 과감하게 새로운 개척지로 선교지를 옮겼다. 가끔 한 장소에서 집중강의도 했는데 대표적인 곳이 두란노 서원에서의 말씀 강론이다. 이곳에서의 바울의 선교가 얼마만큼 효과적인가는 누가의 기록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행 19:9-10)

바울은 평신도를 선교의 중요한 자원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양육하여 자신의 선교의 평생 동역자들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오늘날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목회자들이 배워야 할 중요한 방법인 것이다.

전진기지 전략

바울은 전략적 거점을 선교의 전진기지로 삼았다. 바울의 전략은 전진기지 전략이었다.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사명은 복음을 “멀리 이방인들에게(행 22:21)” 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모든 지역을 방문할 수는 없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가장 인구가 많고 번성한 네 개의 지역, 즉 갈라디아, 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에 집중해서 전도하였다. 바울은 12년 내지 15년 동안 계속된 적극적인 선교 활동으로 광대한 지역에 중심적인 선교 기지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

전략적 중심 도시에 교회를 설립하는 전략은 도시의 편리함이나 많은 군중 때문이 아니라 그곳이 선교 기지가 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Allen 2008:35). 도시에는 개방적이고 다양한 많은 인재와 자원과 정보와 교통, 통신, 도로 등이 잘 구비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전략적 중심도시와 연계될 수 있는 중요 도시에 역시 교회를 설립하여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협력하게 하였다. 그 예로 빌립보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를 들 수 있다. 바울은 로마 행정의 중심지, 헬라 문명의 중심지, 유대 세력의 중심지, 상업의 중심지를 복음으로 공략했는데 알렌은 이와 같이 요점들을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요약했다.

첫째, 바울은 크고 작은 많은 읍들을 지나치고 로마 행정의 중심지들인 도시나 읍에서 교회들을 개척했다. 바울이 단지 더 안전하거나 복음 전파를 덜 방해하기 때문에 그곳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곳들은 세계적인 제국을 대표했다.

둘째, 바울이 선택한 모든 중심지들은 또한 헬라 문명의 중심지였다. 바울은 헬라어로 설교하고, 글을 쓰고, 가르쳤다. 헬라의 교육과 문명이 발달하면서 헬라어는 복음을 전파하는 데 유익한 도구가 되었다.

세째, 바울이 세운 모든 중심지는 또한 유대인들의 문화와 영향이 큰 중심지들이었다. 이와같은 전략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의 계층으로 누리고 있었던 특권을 이용한 것이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기금을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었고, 황제 숭배와 징집을 면제받았던 것이다.

넷째, 바울은 세계의 교차로인 세계 상업의 중심지들을 선택했다. 이곳에 세계의 물적, 지적, 부들이 몰려왔다. (2008:36-39)

사도 바울은 복음이 전략적 중심 도시들에서 주변의 읍과 시골로 퍼져나갈 것을 희망하고 그곳에 복음의 씨를 뿌렸다. 그리고 분명히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시를 맨 처음 방문한 후 일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그곳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기를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널리 퍼졌다”고 말했다(살전 1:8). 이와같이 바울은 그 당시의 대도시들을 기회로 보았다. 바울이 로마의 도시들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전 세계에 예수가 구주이심이 들불처럼 퍼져나가게 되었다.

삶을 통한 인격적 모범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있어서 사역자의 인격이 메시지의 내용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다. 알렌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루어야 할 많은 과업에 직면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 세계에 그리스도 교회를 세울까하는 큰 문제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나날이 추구하고 있다. 여기서 이방사도가 보여준 본보기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다. (1994:24)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람의 열심이 결합될 때 바른 사역을 할 수 있음을 믿고 최선을 다하였다. 인간적인 면에서 디모데, 실라를 포함한 사도들의 하나님의 은혜에 바른 인격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살전 1:5).

즉 말로만 전해진 복음은 살아 있는 복음이라 할 수 없으며 실제로 활동하는 복음이 살아 있는 복음되는 것이다.

말크센(W. Marxsen)은 “자신의 삶으로 증언되는 복음만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1986:54). 말크센은 또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바울은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는우리와 주를 본받을 자가 되었다”(살전 1:6)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리스도는 “모범”이고 바울은 그를 “본받은 자”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로서의 바울은 공동체의 “모범”이다. 여기에서 그 순서가 중요하다. 즉 그들은 바울에게 먼저 돌아오고 나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것이다(1986:57).

바울은 그의 삶에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6)는 말씀과 같이 훌륭한 인격적인 본을 보였다. 그리하여 그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 받은 자 된 것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전 11:1)는 말을 자신있게 하였던 것이다.

교회설립 전략

바울은 교회설립을 전략적으로 사용하였다. 바울은 단순히 개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했으며 할 수 있는 한 교회를 조직하고 신자들을 영구적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 통합시키려 했다. 바울은 다메섹 사건 이후 교회가 오랫동안 고대해온 메시아적 공동체이며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위한 복음의 운반자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런 영적 통찰이 바울을 교회 설립자로 만들었다. 데이비드 J 보쉬(David.J.Bosch)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바울은 선교를 통해 교회를 세웠다. 바울은 선교를 통해 그리스도안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민족, 문화, 사회계급, 성의 차별을 뛰어 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였다. 그러므로 바울의 선교는 새 공동체를 이룩하는 작업이었다. 교회가 조직되면 자치, 자립, 자력 전도하는 교회를 세우려 하였다. 이 같은 원리는 19세기 말부터 많은 지역에서 기본적인 선교정책이 되어왔다. (2000:272)

바울은 그의 설교에 반응이 약한 곳보다 반응이 좋은 곳에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하였다. 바울은 가능한 한 추수가 가능한 곳에 집중적으로 선교하였고, 잘 익은 추수 밭인 회당이나, 일꾼들의 활동이 기대되는 도시 중심으로 선교를 진행한 것이다.

서정운은 추수가 가능한 곳에 집중하는 바울의 선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교회는 선교적 일 때에 교회답다. 즉 교회는 사적 목적을 따라 모인 집단이 아니라 공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집된 공동체이다. 그 공적 사명이 선교이다. 그러므로 이상적 교회는 항상 선교적 교회(missionary church 또는 church in mission)로 존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의 사명이 선교이기 때문이다(The mission is mission). 바로 바울의 선교 전략은 사람들이 그와 더불어 선교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서정운 54-56)

허버트 케인(Hebert.J.Kane)도 바울의 관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제외하고 모두 선교에 의한 교회였다. 이 교회들은 바울과 동역자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였다. 그러나 누가는 바울이 장로를 세운일 외에 교회의 내부조직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세계의 수도인 로마까지 복음을 전파하여 나아가는 바울의 관심 때문이었다. (1990:369)

교회 설립은 바울 선교 전략의 최종목적인 동시에 세계 복음화를 위한 그의 중요한 선교 전략이다.

상황화 전략

정경호는 상황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했다.

성경적 상황화는 복음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선교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로서 복음의 초문화적인 절대적인 메시지를 문화적으로 상대적인 현재 상황에 적절한 용어로 존재케 하는 것이다. (2009:227)

이처럼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각 지역에 상황화된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절대성을 수용 지역과 수용자의 상황에 따라 변질시킨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절대성을 강화하려 했다

정경호는 바울의 상황화의 선포를 이렇게 설명한다,

바울은 구약 성경과 유대교, 로마의 영향,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부르심, 베드로와의 관계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바울은 자신이 영향을 받은 사역의 모델들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상황화 되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상황화 시켰는데 그것이 그의 선교이다. (2009:274)

알렌은 바울의 복음의 특수성을 보편적으로 적용한데 있어서 복음의 상황화의 원리로서 네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유대교회의 관습과 율법을 그대로 타지방에 옮겨 심는 것을 거부되어야 한다. 둘째 교회의 운영권에 대해 한 중심교회가 모든 교회를 지도해야 하고 따라야 하는 것을 거부되어야 한다. 셋째, 교회의 전통의 문제는 우선하여 설립하는 것은 거부되어야 한다. 넷째, 특수한 한 사례가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거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복음은 현지 문화 속에 깊이 뿌리 내려서 변혁시켜야 하는 본질적인 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울의 상황화를 바야 한다고 했다. (1994:134-135)

바울은 각 지역에 상황화된 교회를 세웠다. 그의 사역 안에서 상황화의 예가 되는 사건들은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와 모세의 율법 준수가 요구될 때(행 15장), 그리고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안디옥에서 식사 한 것이 예루살렘에서 비난거리가 될 때(갈 2장), 고린도에서 우상에 바쳐진 음식 문제가 있을 때(고전 8장), 안디옥에서 설교(행 13장) 아레오 바고의 설교(행 17장) 이다. 이때 바울은 유대인 문화 속에 있던 복음을 수신자들의 문화 속에 변질시키지 않으면서 정확하게 복음의 절대성을 통해 커뮤니케이션하려 했다.

예수님과 바울의 복음설교

예수님과 바울의 복음설교는 성경적인 설교이다. 필자는 예수님의 복음과 바울의 복음을 중심으로 설교할 것이다. 필자의 목회는 예수님의 복음과 바울 복음에 기초할 것이다.

종교 다원주의, 세속주의, 상대주의 및 타종교들이 무서운 속도로 확장되어 가고 있어 기독교는 위축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글라서를 통해 살펴본 예수님의 복음이해와 바울의 복음 인식을 통한 사역적 적용을 해보려 한다.

복음적 토착 리더십 개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다. 제자도를 중심으로 리더십을 개발하셨다. 필자는 복음적 토착 리더십 개발을 목표로 설교할 것이다. 복음은 모든 시대와 문화 상황을 넘어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분명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예수님의 자신의 권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려 하셨고 바울은 예수님이 전한 중심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만유의 주이며 하나님 나라 선포자이며 심판자라는 것이다. 즉 예수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런 복음의 핵심을 어느 상황에서 상황화가 필요하다

정경호는 바울의 상황화를 새로운 문화에 복음을 제시함에 있어 몇 가지 단계를 거쳐 상황화 할 수 있다고 한다.

첫째 수신자의 언어로 성경을 효과적으로 번역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복음의 내용을 수신자의 마음의 바탕에 적용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용자의 논리적 체계를 따라 제시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상황화를 잘못하면 진리가 상실될 수 있으므로 핵심, 내용, 적용, 표현 등 네 가지 면에서 상황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2009:287)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과된 계시와 구원이며 내용은 사도적 전승에서의 복음전통이다. 적용은 특별한 민족에게 전달되는 것이며 표현은 문화적인 배경에서 삶의 내용이다

정경호는 상황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독교는 인간이 형성하고 있는 문화, 즉 세상속에 있는 기독교가 되어 한다. 그리고 복음을 다음 세대로 전달 할 때 새로운 세대와 문화가 자신의 문화에 형대 안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고 그들의 문화에 적합한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정경호 2009:294)

복음의 내용을 변질시키지 않고 복음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참된 진리가 되도록 상황화하는 겸손함과 진지함이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다.

복음적 팀 사역

복음 안에서 선교적 동반자를 중요하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교 공동체로 만드셨다. 바울은 제자훈련을 통해 선교팀을 키웠다. 필자는 예수님의 제자훈련 모델과 바울의 동역자 모델을 바탕으로 설교할 것이다.

예수님도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함께 하셨다. 바울은 단단히 결속된 동역의 필요성과 가치를 인식했던 인물로, 선교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하나의 팀을 구성하여 교육사역을 협력적으로 감당했다.

이런 바울의 특징을 허버트 케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제1차 선교여행에서 그는 바나바와, 요한, 마가를 동역자들로 데리고 나갔다. 요한 마가의 일로 인해 바나바와 갈라선 바울은 또 다른 동역자 실라와 동행하였고, 루스드라에서 그는 디모데를 선택했으며, 드로아에서는 누가가 그 선교여행에 합류했다. 그 밖에도 소바더, 아리스다고, 세군도, 가이오, 두기고, 그리고 두로비모 등의 동역자들이 있었다(행 20:4). 바울은 그의 서신들에서 그밖에 다른 사람들도 언급했다. 로마서 16장에서 그는 30명의 사람들에게 일일이 이름을 붙여 문안했는데 그들은 다 바울의 동역자들이었다. (1990:123)

바울은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했고 동역자들을 세우는 것을 통해 사역을 지속할 수 있었다. 이런 바울의 사역 특징에 대해 강문석은 이렇게 이야기 한다.

바울이 동역자들과 함께한 선교는 먼저 교회를 맡기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바울은 그의 동역자들과 계속하여 선교여행을 수행하지 않았고 동역자들에게 여러 교회를 맡겼다. 그는 동역자 선택에 있어서 복음을 받은 현지에서 동역자를 선택했으며(디모데, 디도) 그들의 연고지에서 사역하게 하므로 자기 동족 중에 거하면서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맡겨 두었다. (1989:86)

겸손한 동역이야 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의 모습이다. 동역자를 세워주고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도록 돕는 것은 선교적 교회의 건강한 목회자와 설교자의 진정한 모습일 것이다.

종말론적 복음

복음은 종말론적이다. 설교를 통하여 종말론적 결단을 촉구해야 한다. 교회는 예수님의 종말적 선교에 동참해야 한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적 사명이 있다. 그러나

교회가 침체에 빠지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선교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교회가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본질적인 사명인 선교를 감당하기 위한 배경은 종말론적 사상이다. 김승호는 “바울 선교에 있어서 주님의 재림을 통해 세상에 임할 심판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동기가 되었다”라고 한다.(2007:143) 복음은 종말론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정경호는 데이비스 보쉬가 기독교적 신앙을 종말론적 차원에서 선교를 역사와의 역동적인 긴장관계로 보았다. 그는 종말론적 사건으로서의 선교에 대해 몇 가지로 설명하였다.

첫째, 선교가 종말을 가져오게 하는 선결조건이나 선행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둘째는 종말론적 사건으로서 선교는 교회로 하여금 교회 울타리속에서 나오지 않고 내적 성장만 시도하게 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셋째, 종말론적인 사건으로서의 선교는 교회로 하여금 교회의 과제가 결코 완성된 것이 아님을 상기시킨다. 선교는 종말론적으로 이해될 때에 교회를 위한 끝없는 자극제인 것이다. 넷째는 종말론적 사건으로서의 선교는 하나님 나라가 오직 미래의 실제인 것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현존한다는 확신에서 기인한다. 다섯째, 종말론적인 사건으로서의 선교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선교하는데 있어서 완성을 행해 접근해 간다는 것이다. 여섯째는 종말론적 사건으로서의 선교는 교회가 절망하지 않도록 무장시켜준다. (2009:357)

이와 같이 종말론적 선교는 교회 사역의 우선 순위를 선교에 두게 한다.

예수님과 바울에게 있어서 종말론적 사상은 그로 하여금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는 삶이 최우선이 되게 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믿는 자들이 종말론적 사상이 회복하여 세상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선교적 교회 설교자로 서기위해 사역적 적용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단을 하게 된다.

첫째 올바른 메시아 이해를 통해 목회 철학을 정립한다.

둘째는 사역의 대상이 되는 지역과 문화를 연구한다.

셋째는 상황화를 통해 복음을 바르게 전달한다. 복음을 문화속에 전달할 때 상황화되어 수용자의 입장에서 바르게 수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준비가 필요하다.

넷째는 동역자 의식을 준비 한다. 동역을 할 수 있기 위해 예수님의 겸손과 낮아지심을 배우는 영성이 필요하다.

다섯째는 선교적 영성을 준비한다. 바울의 선교 이해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지 자신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때 영향력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요약

본 장에서는 선교적 교회 설교자가 선포해야 할 복음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나는 먼저 예수님의 복음과 바울의 복음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이 과정에서 선교신학자인 아서 글라셔, 롤랜드 알란, 그리고 김세윤이 규정한 복음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교회성장학적 관점에서 선교적 교회의 선교에 대해 기술할 것이다

제 4 장

교회성장과 선교적 교회

본장에서는 교회성장학적 관점에서 선교적 교회의 선교에 대해 기술한다. 먼저 맥가브란의 교회 성장학을 고찰하고, 벤 앵겐의 선교적 교회를 기술하여 선교적 교회의 목회 철학을 정립한다.

맥가브란의 교회 성장학

맥가브란(Donald McGavran)은 교회 성장학의 시조이며 세계 교회 성장을 위해 일생을 바친 사람이다. 맥가브란의 교회 성장 이해를 번역한 이요한은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했다.

그는 예수의 지상 명령을 실천하기 위하여 인도의 오지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 선교사의 생활을 실천했던 행동가이며, 동시에 세계 교회 성장 현장을 광범위하게 연구하였다. 20세기 교회 성장 현장에서 가장 큰 공헌을 한 학자이다. (1987:19)

선교적 교회를 통해 교회 성장을 이루기 위한 전략적 준비를 하기 위해 반드시 그의 이론들을 배워야 한다. 다양한 교회 성장학의 원리 중에 핵심적인 원리들을 살펴본다.

성경신학적 원리

맥가브란은 성경신학적 원리를 중시한다. 그의 신학적 유산은 제자운동에 있다. 맥가브란의 신학은 19세기 초에 스코틀랜드의 미국 개척자에게서 동시에 발전된 회복운동인 그리스도의 제자운동(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들이 가장 강조한 핵심은 개혁이었다. 신앙의 모든 영역에서 편협하게 굳어진 것들에 대한 개혁에 있었다.(1981:54) 글라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맥가브란 박사의 교회성장 운동에 공허한 신학적 이론을 생각해 보고자 할 때, 우리는 반드시 과거의 신학적 유산에 대해 유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맥가브란은 교단 종파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모두 기꺼이 영접한다. 그들의 신앙적 전통에는 상관하는 않는다. 그는 교회의 지체에서 고립되는 것을 거부한다. (1981:56)

글라서는 맥가브란은 종파주의를 거부하고 십자가를 중시한다고 한다. 맥가브란의 성경과 십자가에 다음과 같이 논한다.

맥가브란 박사는 교회란 언제나 십자가와 성경의 진리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열정적으로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는 개혁자들이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그들의 양심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굳게 매어 놓는 것에 대해 존경을 표했다. 그러나 그의 판단에 의하면 개혁자들은 하나님을 다만 구원의 창시자로만 높이고 그들이 성경의 진리를 그들의 교회 안에서만 맞는 것으로 제한시키며 다만 제도상의 교회에 국한시키는 것에 대해 경계를 했다. 그는 위대한 성경진리가 길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1981:56)

글라서에 의하면 맥가브란의 성경관을 확실히 하였다.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계시이며 성경은 하나의 말씀인 것을 믿어야 하고 교회는 성경과 십자가의 진리 아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글라서는 맥가브란의 신학적 방법론은 성경중심의 방법론이라고 한다

맥가브란은 조직신학자가 아니다. 그는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서 그도 침묵하기 원하였다. 우리는 맥가브란에게서 전통적인 신학자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는 다만 교회의 책임은 성경적 우선권을 지키는 데 있다고 보았다. 성경의 핵심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고 했다. 그리고 새로운 신앙공동체가 성장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신자를 확장시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의 신학은 벨카우어(G. C. Berkouwer)의 공동 관계의 원칙(Principle of co-relationship)의 모델에 따른 것이다. 벨카우어는 공허한 신학 내용은 발전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1981:59)

또한 글라서는 맥가브란은 하나님의 복음을 강조했고 하나님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 증명된다. 대속적 제물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복음이다. 그 복음을 전하여지는 것은 제자들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 본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가 거둬 거둬 그리스도의 사랑과 만나게 한다. 그것은 그의 생명을 대속제물로 주신 사랑이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본질이다. 그리고 그의 십자가와 빈 무덤에 관한 사건은

복음의 클라이막스가 아니다. 클라이막스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진리를 전파하는 데 있다. 그것은 이것은 순종을 필요로 한다. (1981:67)

맥가브란의 신학은 전도신학(Theology of Evangelism)이다. 그는 교회성장학은 효과적인 전도를 강조하는 전도신학이라고 한다.. 교회 성장에 있어서 제자들의 전도의 책임은 성경적이며 신학적이라고 주장한다.

교회성장은 기본적으로 전도를 강조하는 신학적 입장이다.(1987:34) 우리는 사도행전 4:12, 요한복음 14:6 말씀이 참되다고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에 필수적 요소라고 믿는다. 교회성장의 기본 입장은 철저하게 성경적이고 신학적이다. 그러나 복잡한 신학이 아니다. 전도의 긴박성과 권위를 당신의 신학 안에 체계화하여 당신의 신학을 완성하라. 교회성장신학을 당신 자신의 현장 언어로 표현하라. (1987:35)

맥가브란은 교회성장을 복합적 충성(The Complex Faithfulness)으로 설명한다. 양적인 교회성장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다(1987:599). 제자들의 충성이 교회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한다. “개신교회의 성장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충성으로 인식해야만 한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1987:31).

기독교인들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내는 일에 충성함을 보이게 되면 교회는 성장하게 된다. 잃은 양을 찾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주님 되시는 목자는 증거를 찾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그는 그의 양이 발견되기를 원하신다. 그의 목적은 찾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1987:32)

하나님의 영광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교회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교회성장은 하나님의 뜻이다. 맥가브란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잃은 양을 찾고, 교회가 성장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구원되어야만 한다는 우선적인 관심을 갖고 계신다. 찾으시는 하나님은 그들이 발견되기를 원하신다.... 길 잃은 양들이 산 위에서 낙오된 채로 있으며, 혹심한 바람에 떨고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보다 많이 발견할 수록 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다. (1987:58)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백성이 돌아 올 때 기뻐하신다고 한다.

맥가브란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충성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성령이 도우신다고 말한다.

성령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확신시키고 그들을 회개로 부르며 교회에 많은 사람을 더하기 위해서 완전히 하나님께 중심을 둔 이러한 선포를 사용하실 수 있고 사용하신다...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멀리 할 수 없는 권리이다. (1987:67)

글라서는 하나님께서 교회 성장에 뜻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백성들을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교회 성장은 하나님백성들의 책임이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원하시는 이상,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의 성장에 뜻을 두고 계신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하나님께서 그의 잃어버린 자녀를 찾고 교회는 구원된 자들의 가장 이상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회의 숫자적인 성장을 통하여 당신의 불가항력적인 계시를 나타내실 것이다. 진실로 교회성장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의 사명이다. (1981:67)

수색신학과 수확신학

맥가브란은 수확신학을 강조한다. 우리는 수색신학(搜索神學)과 수확신학(收穫神學, Search Theology and a theology of harvest)을 바로 이해해야 한다.

맥가브란은 선언한다.

“수확신학은 철저히 성경적이다.” (1987:599) 선교의 특성들 가운데 중요하며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즉 선교는 거대하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찾으심이라는 것이다. 중요하고도 다른 것으로 대체 불가능한 선교의 한 목적은 교회성장이다. (1987:58)

맥가브란은 수색신학은 네 가지 요인을 통해 형성되었다.

첫째, 국내의 무관심과 해외의 적대감에 직면하여 발생하였다. 서구 교회들은 국내선교를 수행하지 않았다. 해외선교는 희생이 따르고, 정치적으로 불편하며, 간섭을 하는 일이며, 위험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 둘째, 타종교에 대한 연구에 기초한 종교 상대주의 요인이다. 하나님께로 이르는 데에는 여러 길들이 있으며, 인간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빛을 따르든지 신실함에 의해 구원받는다고 결론짓는 것은 잘못이다 셋째, 서양과 선교지의 생활수준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선교사들은 민족들을 제자삼기보다 여러 종류의 박애활동에 끌려든다. 이런 활동을 “복음을 위한 준비작업” 또는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방식”으로 옹호한다 넷째, 전도의 결과를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수색신학을

수용하였다. 수색신학은 결과를 강조하는 것을 강력하게 공격하였다.
(1987:61-64)

맥가브란은 단순한 수색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아내기 원하신다. 단순한 수색, 냉랭한 증언, 회심시키려는 열정이 없이, 전심을 기울인 설득이 없이 교인숫자가 증가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본다(1987:69).

맥가브란은 성경은 사람들을 찾아내려는 정열을 갖고 있다고 증언한다.

첫째, 주님과 사도들은 추수할 일꾼을 부르신다. 마태는(9:37) 주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주님은 “민족들을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상에서 간증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였다.

둘째, 주님은 비유를 통해 실제적인 발견을 강조하셨다. 동전을 잃은 여인은 찾기까지 노력한다. 목자는 잃은 양을 찾아 돌아온다. 큰 잔치를 배설한 주인은 “가난한 자, 병어리, 절름발이를 데려오라”고 말한다. 좋은 초대를 받아들일 다른 사람들을 찾아내야 한다.

셋째, 그리스도 안에서 정점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 자신이 찾으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해준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잃은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리스도의 교회도 그리해야 할 것이다.

넷째, 신약교회는 사람들이 응답하는 곳으로 갔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다. (1987:70-75)

맥가브란은 하나님 자신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그 자신과 화해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들을 발견하기 위하여 그들을 열심히 찾기를 명령하신다고 본다(1987:77).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선교신학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수색하시는 하나님과 수확하시는 하나님을 동등하게 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수색만”이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 (1987:79)

보편적 안개 이론

맥가브란은 보편적 안개(universal fog) 현상을 설명한다. 교회 성장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교회들과 선교회들은 교회 성장에 무지하다. 교회 성장에 있어서 안개 낀

현실을 보지 말고 정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보편적 안개 이론은 정확한 정보의 원리로 현실을 직시하여 교회 성장을 이루기 위한 이론이다.

복합적인 요인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교회성장을 자각하지 못하게 하며 교회지도자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을 조사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계획하는 것을 방해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교회성장이라는 현상을 안개에 의해 가려진 것처럼 볼 수 없게 만든다 교회성장을 발견하고 연구하며 이해하는 것이 모든 목사들, 선교사들, 선교회의 실행위원들 및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에 비후어 볼 때, 그러한 교회들과 선교회들이 교회성장에 무지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만 한다. (1987:131-2)

맥가브란은 교회 상장을 정확하게 이해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밝힌다.

첫째는 통계의 부적확성때문이다. 교인들의 수를 제멋대로 부정확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1987:136).

둘째는 행정적 요인이다. 선교 행정가들이 교회 성장이 중요하지 않은 것 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복음을 거역하는 것으로 본다(1987:137).

셋째, 문화적 편견이다. 교회성장을 교묘하게 가로막고 있는 베일은 선교사들의 자민족중심주의다. 그들의 문화적 편견이다(1987:139).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에서의 전도란 대체로 실제적인 회심에 대한 큰 기대없이 씨를 뿌리는 것을 의미한다. 본토인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들은 선교를 하고, 전도지와 쪽성경을 나누어 주며, 방송을 하고, 성경을 가르쳐 주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선한 일들을 한다. 그들은 이 모든 활동들을 전도라 부른다. 즉 전도란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본다. 이런 경우 “전도”는 사실상 교회 성장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에 돌리게 한다. 이런 문화적 편견은 안개를 증가시킨다. (1987:140)

넷째, 의미상의 원인이다. 모호한 단어들이 안개를 증가시킨다고 본다. 교회, 선교회, 사업, 증거, 관심, 전과, 만남 등이 모호한 의미로 사용되고, 모호한 단어들은 안개를 짙게한다는 것이다(1987:142).

다섯째, 심리적 원인이다. 교회들은 합리주의, 미수여구, 양보다 질을 추구하는데 이런 것은 성장에 대한 혼돈을 가중시킨다.

여섯째, 선교후원 촉구로 인한 원인이다. 선교후원을 받기 위해 선교보고에 나타난 내용이 정확하지 않으면 선교지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없게 만든다.

일곱째, 신학적 원인이다. 교회론, 타종교에 대한 태도, 봉사와 섬김을 충분한 증거로 보는 신학적 입장, 전도를 포기한 신학적 한계등이 교회성장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1987:150).

이런 안개는 민족들을 제자 삼으려는 현명한 행동을 방해한다고 본다. 만일 교회들과 선교회들이 지금까지 교회성장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또는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정확하고 의미있는 통계를 제시해 주기를 거부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시정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본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미국에서 온갖 종류의 사업이 계속해서 자료를 수량화하고 사실들을 분명히 제시하기 위해 차트와 그래프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지난 10년 동안에 이루어진 그들 자신의 성장에 대한 도표를 본 적도 없고 그것에 대해 연구해 본 적도 없다. (1987:150)

하나님이 그의 교회들을 축복하시어 성장시키는 복잡한 과정들을 보다 잘 이해하는 것은 매우 실제적인 일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 기독교인들은 먼저 그들을 감싸고 있는 안개를 인식하고, 그것을 몰아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한다(1987:151).

부흥운동 원리

부흥운동 원리(revival movement principle)가 중요하다. 부흥운동과 교회 성장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흥운동(Revival movement principle, 부흥운동의 원리)를 알아야 하고, 말씀과 기도의 원리에 집중하고, 오순절부터 시작되는 선교역사를 보는 안목을 갖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맥가브란은 기도가 부흥을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부흥은 “그리스도 교회 내에서의 성령의 활동”이고,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대개는 그것을 열렬히 기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기도가 부흥을 가져왔다. 먼저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열렬한 기도가 있고, 그리고 나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다. (1987:288, 289)

그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을 가져오는 중요한 요소이기에 그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함을 강조한다.

성경지식은 꼭 필요하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 유럽과 아메리카 교회들에서의 부흥은 오랜 세월이 걸쳐 가정과 교회에서 주의깊게 성경을 읽은 것이 낳은 결과였다. 한국의 부흥에서 큰 원동력으로 작용한 것은 장로교회가 1895년 한국에 이식되었을 때부터 교회 치리의 본질적 부분을 형성했던 철저한 성경연구였다. (1987:292)

한국에서의 사건이 부흥의 전형적인 사례임을 소개한다.

1907년 1월 첫째 주로 접어들었다. 모두가 하나님이 이 공동기도 주간 중에 그들에게 특별한 축복을 내려 주시리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즉 여덟 번째 날이 이르렀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특별히 나타나는 일은 생기지 않았다. 주일인 이날 저녁에 약 1,500명의 사람들이 중앙장로교회에 회집하였다. 하늘은 늦처럼 보였다. 정녕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구한 성령을 부어주지 않으실 것인가? 그런 데 모두가 깜짝 놀라는 일이 생겼다. 그 교회의 지도자인 길선주 목사가 일어나 이렇게 말한 것이었다. “나는 야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지 않는 것은 나 때문입니다. 약 1년 전에 내 친구 한 사람이 임종을 맞아 나를 자기 집으로 부르더니, ‘길 목사, 이제 나는 가려네. 자네가 내 집 재산을 관리해 주었으면 하네. 내 아내에게는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어서 그러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염려하지 말게, 내 그렇게 함세’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미망인이 된 친구 아내의 재산을 관리했습니다. 그러나 난 교묘히 100원의 돈을 착복했습니다. 난 하나님을 방해했습니다. 난 내일 아침 그 100원을 그 미망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막혔던 붓물이 터졌으며 성령이 강림했다는 것을 즉각 알 수 있었다. 죄에 대한 자각이 청중을 휩쓸었다. 그 집회는 주일 저녁 7시에 시작했는데 월요일 아침 2시가 되어서야 비로소 끝이났다. 그 사이에 수십명의 사람들이 자기 차례를 기다렸다가 차례가 돌아오면 일어나 울면서 자기 죄를 고백했다. (1987:293)

맥가브란은 부흥은 엄청난 능력을 보여준다고 한다.

성령이라는 선물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고백할 수 있게하고, 죄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있게 하고, 악습을 고칠 수 있게 하고, 승리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가능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납득시킬 수 있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게 하고, 교회를 든든히 성장시킬 수 있게 한다. (1987:297)

맥가브란은 부흥과 성장간의 7가지 상관 관계를 설명한다

1. 부흥이 일어난 동질집단의 다른 성원들을 상대로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가 다른 민족들을 상대로 활동을 전개하는 것 보다 더 큰 교회성장을 가져다 준다.
2. 교회 내에서의 부흥은 회심자들이 끊임없이 교회로 쏟아져 들어 올 때 교회성장을 가져다 준다.
3. 도시교회 내에서의 부흥은 다른 조건들이 충족되면 교회성장으로 연결된다.

첫째, 교인자들이 교회 성장에 대한 안목을 갖고 있는 경우.

둘째, 교역자들이 전심으로 교회성장에만 헌신하면서 여러 해에 걸쳐 일관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우.

셋째, 교회의 선교기관들이 성령이 교회성장을 위해 사용하셨던 방법들에 비추어 정책을 결정하는 경우.

4. 인간집단 운동과 거미줄 조직 전도운동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흥은 다음 조건들이 충족되면 큰 교회성장을 일으킨다.

첫째, 수용성이 높은 인간집단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

둘째, 새로운 회심자 가운데 리더를 발굴하여 훈련하는 경우.

5. 부흥운동의 지도자들이, 부흥에 대한 준비성, 성령을 방해하지 않고, 교회사역의 우선순위 등을 알게 될 때 부흥운동은 교회성장을 낳는다.

6. 부흥을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길 때 부흥운동은 교회성장을 낳는다.

7. 부흥과 지식의 결합이 한층 중요한 것으로 생각될 때 부흥은 교회성장을 낳는다(1987:309-311).

모든 조건이 바르게 충족되면 부흥에 이어 큰 교회성장이 온다. 사실 모든 조건들이 아주 바르게 충족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을 때가 바로 그러했다. 오순절에 있었던 사건은 부흥과 교회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최고의 실례이다. (1987:312)

인간집단 원리

맥가브란은 인간집단 원리(people group principle)를 강조한다. 사람들은 인종적, 언어적 계급적 장벽을 헐지 않고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 집단을 주목해야 하고 분별하여 적합한 전도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자이크 처럼 구성되어있는 수많은 민족들 사이에 “문화적 차이”가 존재한다. 그런 차이를 인정하고 모든 곳에 교회가 개척되어야 한다고 본다

세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시행될 수 있으려면, 대부분의 나라들에 있는 모자이크의 대부분의 조각들에서 생명력을 지닌 회중들의 폭발적인 증가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일은 개인구원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인류라는 이 놀라운 모자이크의 모든 조각에서 교회들이 개척되어야 한다. 그것이 교회성장의 도전이다. (McGavran 1987:128)

클라서는 인간 집단 이론을 통해 모든 곳에 교회가 개척되어야 한다는 맥가브란의 이론에 동의한다.

우리는 이 논문에서 맥가브란 박사의 입장에서 본 교회성장학의 신학적이며 방법론적인 기본 원칙을 확실하게 다루었다. 우리는 맥가브란 박사가 학문적 논쟁을 통하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정체된 19세기 선교전략을 포기하는 지혜로운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들었다. 우리는 맥가브란 박사가 인간집단 운동(People Movement) 전략이 세계 선교에 보다 적합한 방법이라는 주장을 들었다. (1981:83)

맥가브란은 숨겨진 민족들이라는 용어를 매력적으로 보고 인류의 다수가 그 용어를 소홀히 여기고 있음을 주목한다(1987:116). 그는 탁월한 구분을 따라 새로운 선교를 시작해야 하다고 주장한다(1987:110).

효과적 전도 원리

효과적인 전도(Effective evangelism)는 교회 성장에 중요한 요소이다. 교회 성장은 효과적인 전도에 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맥가브란 효과적인 전도 원리에서 잘 못된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교회성장의 정체는 잘못된 방법에 기인된 것일 수도 있다. 때때로 헛수고는 습관적인 것이며, 그 원인은 복음을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애착을 느낀 나머지, 복음을 수용하기 갈망하는 사람들을 소홀히 하면서 양들이 없는 산골짜기를 기웃거리고 다니는 데 있다. 때때로 그 원인은 수십년 동안 효과가 없음이 입증된 방법을 계속 고수하는 데 있기도 하며. 많은 교회들과 선교회들은 그러한 원인들을 제거할 때 교회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1987:90-91)

맥가브란은 선교회들과 교회들이 미미한 성장을 만족한다면 잔치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가 헛수고가 될 것이라고 한다(1987:97). 복음에 대한 수용성에 관계없이 효과적인 전도를 계속하게 될 때 교회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전도 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한다(1987:96).

수용성 원리

수용성 원리(receptivity principle)를 알아야 함을 강조한다. “교회성장을 이해하려면, 그리고 전도를 통해 교회성장을 이룩하려면 우리는 수용성을 주의 깊게 연구해야만 한다”(McGavran 1987:371).

수용성이란 전도, 복음, 메시지, 전달자의 열의에 반응하는 상태를 말한다. 수용적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순종하려는데 열려있다.

맥가브란은 오늘날 우리들이 가장 힘써야 할 일은 지구의 모든 대륙에서 점점 증가해 가고 있는 복음에 대해 수용적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증가시키는 일이라고 한다(1987:102).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복음에 대한 그들의 수용성에서 하나님을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햇빛과 비를 통해, 그의 섭리와 성령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에 대해 수용적이 되게 하였다. (1987:95)

맥가브란은 수용성이 존재한다고 한다. 교회 성장을 이해하려면 수용성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것이 공동적인 원인과 그리고 모든 나라에서의 수용성과 교회 성장간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함을 주장한다(1987:367).

수용성에 차이를 가져다 주는 공동 요인들(1987:371-382)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새로운 이주민들, 여행에서 돌아온 사람들, 피정복자들, 민족주의자들, 통제로부터 해방된 자들 사회화된 지역들이 수용성이 높다고 본다.

맥가브란의 수용성 원리는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다. 낮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기반을 만들어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수용성의 원리에서 어려운 점은 수용적인 사람들을 사전에 어떻게 알수 있느냐 하는것이다. 여기에 교회 성장학은 사회 과학을 이용한다. 복음을 전할 때 수용자의 지수가 높은 곳에 먼저 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질적인 과제는 수용성을 발견하고, 수용적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고, 그들의 이웃들을 영생으로 인도할 때까지 그러한 수용성에 맞게 선교방법, 제도 및 직원들을 조정하는 것이다. (McGavran 1987:395)

제자 우선의 원리

성화보다 제자삼기(discipling and perfecting)가 우선이다. 맥가브란은 성숙하게 하는 교육보다, 불신자를 전도하여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게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둔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훈련하기’ 과정을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구분은 인간집단개종을 위한 맥가브란의 선교전략이다. 맥가브란이 생각하는 선교의 목표는 제자삼기이다. “교회성장의 장기적 목표는 모든 민족(panta ta ethne)을 제자삼는 것이다. 그리하여 영생수의 강이 전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민족에게 신속하고 거침없이 흐르게 되는 것이다”(1987:9).

맥가브란에 의하면, 전도가 기독교 교육보다 더 중요하다.

나는 전문가로서 말한다. 나의 전공은 교육이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인도에서 교육을 담당하였다. 나는 전문적인 지도자로서가 아니라 전도를 보조하는 일, 즉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대부분의 시간을 교육하는 일에 보내고 있는 선교사의 관점에서 교회성장에 접근하고 있다. 전문가의 가장 큰 시험은 어떤 다른 사람이 사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도록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을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1987:98)

제자가 된 사람들은 훈련을 받아야 한다. 성경말씀에 순종하고, 영적으로 성숙해 지도록 훈련해야 한다. 제자들은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맥가브란은 제자삼기의 다음 단계로 “perfecting”의 단계가 있다고 기술한다. 맥가브란이 정의한 “perfecting”에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고 한다.

첫째는 제자화의 다음 단계이다. 둘째는 “perfecting” 단계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인 의로움, 진리, 사랑, 자비가 나타나 윤리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셋째, “perfecting”은 인간 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에 나타나는 사회적 변화를 수반한다. 사회적, 인종적, 그리고 정치적 정의가 실현되는 단계로 말한다. 넷째는 “perfecting”은 그리스도와 생명력 넘치는 개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영적 훈련을 받아가는 단계이다. 다섯째는 “perfecting”은 차세대 가운데 일어나는 개인 개종을 강조한다. 여섯째, “perfecting”은 중단없이 계속되는 과정이다. (1987:174)

매튜 도널드 스프들린(Matthew Donald Spradlin)은 맥가브란의 Perfecting 개념이 1971년을 기점으로 집단중심적 개념에서 개인주의적 개념으로 변하였다고 지적하였다(2012:46).

맥가브란은 이렇게 이야기 했다.

1971년 이전에는 집단개종을 염두에 둔 인간사회집단을 기술하는 용어로 perfecting을 사용하였지만, 1971년 이후에는 미국 개인주의 영향을 받아 개인적인 성장을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1987:266)

맥가브란은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성장할 수 없다고 한다. 복음 전도의 기회를 잡지 않는 선교 단체들에게 전략적인 도전을 하였다. 전도와 교육에 균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토착교회 원리

맥가브란은 토착교회(Indigenous church Principle)의 원리가 적절하게 이해될 때 복음 전파를 위해 대단한 가치를 가진다고 한다.

우리는 선교를 협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제자들이 되도록, 그리고 그의 교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이 되도록 설득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을 것이다. (1987:61)

맥가브란에 의하면, 토착화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사람을 불러내어 그의 일을 하도록 다시 세상에 보내실 때 생겨난다”(1987:336). 모든 나라에 있는 교회가 그 나라와 그 문화 속에서 교회로 형성되는 되어야 한다. 그러나 민족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맥가브란은 네비우스 토착 선교 원리들이 실질적 차원에서 주효했다고 한다 건전한 자립 전도한 교회들이 이원리를 통해 배가되었다고 본다(1987:544).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첫째, 각 개종자로 하여금 그가 불리움을 받은 부름 가운데 거하게 한다(고전 7:20). 각 개종자는 그가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영위하였던 동일한 방식으로 생계비를 벌고 그가 세례받기 이전에 살았던 곳에서 생활한다. 기독교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인식된다.

둘째, 작은 양무리를 치는 무급 평신도 지도자들(장로와 교사들)을 신뢰한다.

세째, 교회 집회를 교인들의 가정에서 하든가 아니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수준에 따라 그들에게 속한 집회처를 갖게한다.

넷째, 교회들로 하여금 유급 복음전도자들 또는 조력자들, 그리고 선교사 자신들에 의하여 지도받게 한다.

다섯째, 광범위한 훈련을 제공하라. 주일예배는 설교중심이 아니라 성경공부를 가르치는 것 중심으로 한다. 성경 이야기를 말하고 회중으로 하여금 그것을 암기하게 하며 교리문답을 설명하고 교인들로 하여금 그 교리문답을 항목별로 암기하게 한다. 교리문답은 무급 지도자들이 한다. 선교본부는 지도자들에게 1달 정도의 강도 높은 훈련을 제공한다.

여섯째, 새로운 교회개척은 기존 교회들이 개척하게 한다(1987:543-545).

맥가브란은 알렌의 책, *Missionary Methods: St. Paul's or Ours*(1912)의 공헌은 토착원리들을 성경에서 찾아냈고, 토착원리가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성경적 타당성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본다

알렌은 20여년 동안 네비우스의 영향을 받으며 바울의 토착선교 방법을 사용하여 토착 선교원리들을 위한 성경적 기초를 발전시켰다. 바울은 새로운 교회를 세울 때 유대 대행자들을 임명하지 않았다. 언제나 새로운 기독교인들 가운데 무급 장로들을 임명하였다. 바울을 모든 교회의 치리와 관련한 문제를 성령의 인도 아래 지역교회들에게 맡겼다. (1987:545)

맥가브란은 토착교회가 보다 잘 성장하는 이유에 대해 8가지로 설명한다.

1. 토착교회를 주장하는 선교사는 선교를 일차적으로 교회개척으로 해석한다. 네비우스는 교회 개척자였다.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배가하는 정열을 갖는다.
2. 비기독교인들은 토착교회 무급 지도자들을 자신과 같은 사람으로, 또는 가까운 친척으로 본다.
3. 지역교회 지도자들은 가르치면서 배운다.
4. 선교회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데 담임목사에게 지불할 돈을 절약하게 한다. 새로운 집단에 교회를 개척하는 데 제정적인 문제가 없다.
5. 전체 성원에 의한 자연적인 증가가 더욱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6. 일반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여 그의 제자들이 되고 그리스도 교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이 되라고 할 때 교회들은 뜻밖의 장소들에게 배가된다.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종족에서 종족으로 배가 된다.

7. 교회의 규모가 커지고 교인들이 증가하면 토착교회 원리는 기독교인들이 모 교회 또는 선교회가 아닌 자체 교회가 생활비를 부담하는 전임 교역자를 초청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8. 토착교회 원리는 교인 규율이 지역교회들에 위임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지역교회는 선교사의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이다. 이 원리는 교회성장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외국인이 지교회를 판단하는 불쾌감을 제거하고, 온갖 문화적 적용의 여지를 넓혀준다. 성경과 성령이 말씀하시는 바를 자유롭게 따를 수 있다. (1987:551-2)

맥가브란은 교회 성장 이론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들을 드러낸다. 그의 이론에 몇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

첫째 효과적인 전도를 통한 교회성장이다. 전도는 제자를 삼고 그 제자가 교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이 되게하는 과정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령에 의해 구성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된 새로운 질서이다.

둘째 인간집단에게 하나님의 다리를 사용하여 전도하는 것이 교회성장이다. 교회 성장이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로 진행되지만 인간의 순종이 요구된다고 본다. 그의 이론들 안에 제자된 자들의 책임과 헌신이 반영된다.

셋째 교회성장은 다양한 인간집단에 적합한 지역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교회는 추상적이거나 불가식적인 교회가 아닌 믿는 자들의 구체적인 지역 교회로 드러나야 한다고 본다.

벤 앵겐(Van Engen)의 선교적 교회

벤 앵겐은 교회성장신학자이다. 그는 선교적 교회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교회의 생명력이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선교학적 연구 분야에서 교회론은 세계 어디서나 가장 뒤쳐진 분야이다. 우리는 교회를 창조적으로 현실 상황에 적응시키는 새로운 방향들을 모색하여 복음을 잘 전하려 하기 보다는 우리가 전도한 모든 나라에 우리의 교회 정치, 교회 형태, 교회조직, 교회 전통들을 수출하여 현지인들이

그곳을 신봉하도록 주입시켰다. 우리가 교회와 문화의 관계를 이해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 관계에 대해 얼마나 더욱 심각하고 철저하게 다시 생각해야 하는지 깨달아야 한다. ..교회의 생명력은 위기를 맞고 있다. ..그들이 속한 상황속에서 그들만의 독특한 목적과 선교에 대한 비전을 발견함으로써 새로운 생명력을 발휘하게 될것이다. (2014:29)

지역 교회는 생명력이 필요하다. 지역 교회의 독특한 모습, 독특한 문화적 배경, 인적 구성, 현실적 요구들을 주지해야 한다. 교회적 선교적 목적을 분명히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선교적인 교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벤 앵겐의 선교적 교회론을 정리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

벤 앵겐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선교적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세상에 세워진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되어가는 현실을 볼 수 있게 하고 교회가 실제로 믿고 고백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한다”(2014:63)라고 한다.

벤 앵겐은 선교적 교회가 되는 단계가 있다고 한다. 선교적 교회가 되고자 할 때 교회는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선교 역사에서 발견한 놀라운 역동적인 특징들을 통해 선교적 교회에 나타나는 성장과정이 일곱가지 단계가 있다고 소개한다.

1.수명의 개종자를 얻게 하는 개척전도단계, 2. 교회가 형성된 후 설교자나 장로, 집사 등이 외부에서 온 유아기 단계, 3. 지도자 훈련 과정을 통하여 현지 목회자와 지도자들이 선발 훈련되어 책임을 맡는 단계, 4. 지방 단체를 결성하고 조직화하여 청소년, 여성, 지역 교회들이 연합체를 갖는 단계, 5. 국가적으로 교단이 조직되어 다른 나라 교회들과 관계를 맺게 되는 단계, 6. 교회 안팎에서 이사회와 예산, 계획, 재정, 건물, 프로그램을 갖추고 특수 사역이 시작되는 단계, 7. 현지 선교사들이 세계에 있는 선교사역을 위하여 보냄을 받고 다른 사역지에서 1단계부터 사역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선교적 교회 단계. (2014:68-69)

이런 단계를 거쳐 형성되는 선교적 교회는 현실과 미래의 소망 사이에 있는 긴장 관계를 이해하고 적용하여 교회론과 선교학이 만나는 장이 될것이라고 주장한다(2014:69).

벤 앵겐은 선교적 교회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선교적 교회는 참된 교회로 성장한다. 선교적 교회는 되어가는 교회이다. 선교적 교회는 교회 이상이 될 수 없다. 선교적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이상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선교사 선교 지도자 목회자,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선교적 본질 바탕위에 교회를 세워야 한다.
(2014:70)

선교적 교회가 진정한 성장을 이룬다고 주장하는 벤 앵겐의 선교적 교회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선교적 관점에서 본 교회의 네가지 본질

초대 교회 당시 바울이 뜨거운 선교적 열심으로 세웠던 교회는 통일성, 성경성, 보편성을 갖는 교회였다. 그 후세대들도 이것을 교회론으로 수용하였다. 네 번째 본질인 사도성을 381년 제 1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첨가되었다(벤 앵겐2014:97).

벤 앵겐은 예수님과 억압받는 자들을 하나라고 여기고 여기에 네가지 특성들이 매우 철저한 선교적 반응을 불러일으켜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교회의 연합은 자유함 안에서의 연합이다. 교회의 성결성은 가난함 가운데서 거룩함이다. 교회의 사도성을 십자가의 형상을 지는 것이다. 교회의 사도성은 억압받는 자들의 교회가 후원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2014:113)

네가지 교회의 특징이 선교적 교회의 손과 발로 본다. 교회를 선교 운동이나 선교적 의미가 있는 동사형 집단으로 이해할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게 된다고 설명한다.

첫째, 오직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로 통일시키는 힘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거룩한 교회는 성경하게 하는 힘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보편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화복케 하는 힘이나 능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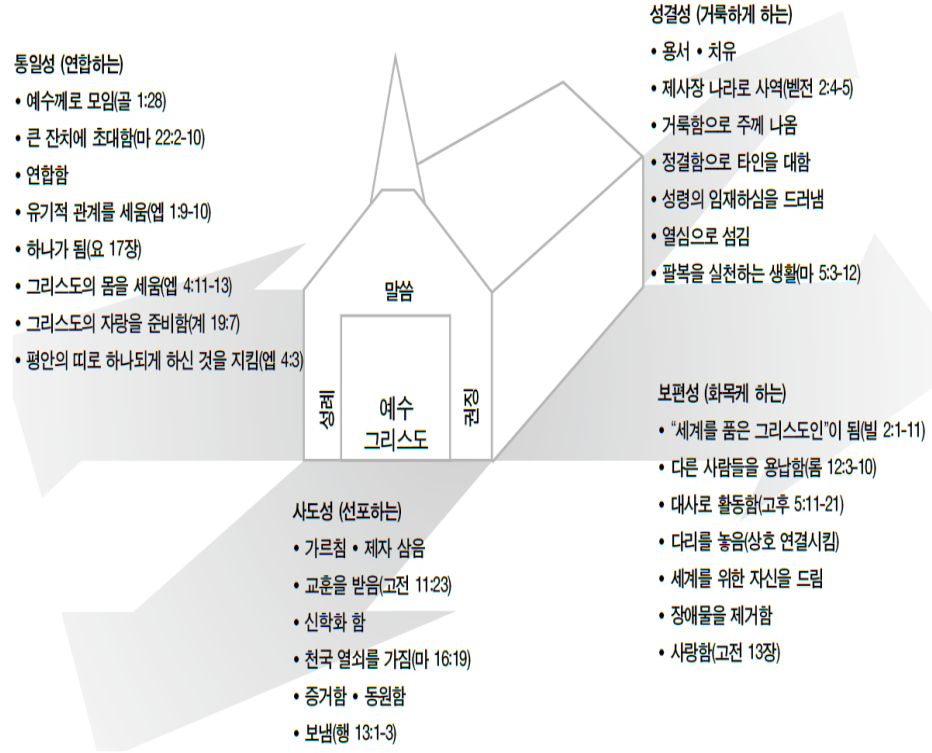
넷째 사도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선포하는 힘으로 볼 수 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기초하여 증거하고 동원하며 가르치는 공동체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2014:117).

벤 앵겐은 교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 한다.

교회는 세상에 하나가 되게하고 성경하게 하고 화복하게 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 활동이다. 선교는 교회의 본질에서 분리 된 것이

아니다. 지역 교회의 핵심적인 본질은 선교이다. 그렇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2014:118)



<그림 2>

선교적 관점에서 본 교회의 네가지 본질
(벤 엥겐 2014:116)

선교적 교회의 새로운 용어들

지역교회는 선교적 의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벤 엥겐 2014:122). 벤엥겐은 그 선교적 의도에 대해 5가지로 본다.

첫째는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고 본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으로 인류를 위해 존재한다. 교회는 그리스도 처럼 종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세상을 위하여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다. (2014:124)

둘째는 몰트만이 억압받는 자들과 함께함을 강조 한 것 처럼 교회는 세상의 억압받는 자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억압받는 자들과 함께 하는 것은 교회의 선택사항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본질의 일부인가? 후자의 관점을 갖는 사람은 선교적이 된다. (2014:130)

셋째는 교회는 선교에 대한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선교는 사도성이 의미하는 바랄 강력하게 실천하는 행위로 본다.

성경 신학적 관점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내심”에 대한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성육신은 보내심이다.선교는 성부 하나님이 계획에서 그리고 성자와 성령께서 행하신 일에서 그 근본을 찾을 수 있다. 선교는 교회의 사역중에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2014:132-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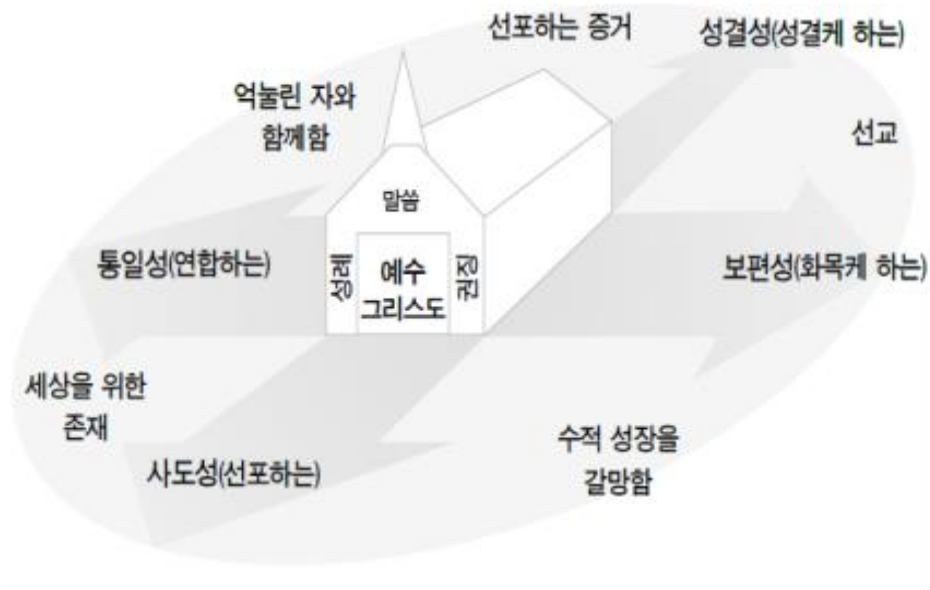
넷째, 지역교회의 선교는 선포적 증거가 구체화 되어야 한다고 본다. 선교하는 증거는 교회의 특징이다(2014:136).

다섯째, 교회에 숫적인 성장을 향한 갈망이 필요하다.

수적인 성장의 갈망이 성경에서 발견한 중요한 주제들 가운데 하나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우주적 관심, 신약에 나타난 모으심 잃은 양을 찾으심, 온전케 하심, 성장하게 하심등은 수적인 의미가 있다. 이 모두가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들이며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길 갈망한다. (2014:138)

이런 갈망을 가진 교회는 섬기기 위해 모인 교회요 다른 사람들도 함께 세상안에서 섬기기 위해 모이는 교회이다. 이런 갈망은 교회의 사도성을 깨우는 교회의 본질적인 특성이라고 한다(2014:140).

교회가 세상에서 선교하는 모습을 잘 타나내는 “새로운 용어”들을 발견해야 하고. 그런 선교적 교회의 특징은 교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그림 4를 통해 설명한다.



<그림 3>

선교적 교회의 새로운 이론들
(Van Engen 2014:141)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를 향한 비전

하나님은 선교적 교회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갖고 계신다. 그것이 지역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한다(벤 엥겐 2014:145). 그가 말하는 선교적 교회의 목적과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를 고찰해 보겠다.

선교하는 교회의 목적

선교하는 교회는 참된 목적있다. 벤 엥겐은 다음같이 이야기 한다.

교회의 참된 목적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생명을 주시는 성령,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즉 삼위 일체이신 하나님의 선교에서 찾아야 한다. 선교는 선교적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 안에 있는 지역교회에 코이노니아, 케리그마, 디아코니아, 말투리아를 실천하는 사역에 동참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2014:147-8)

구체적으로 교회의 존재 목적을 살펴보면 4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2014:149-151).

첫째는 코이노니아로 서로 사랑하라(요 13:34-35; 롬 13:4)는 것이다.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은 ‘사랑’이다. 당시 제자들은 아가페 사랑을 하나님의 백성들 삶에 최고의 덕복으로 이해했다. 사랑이 함께 하지 않는 세상을 위한 존재, 억눌린 자들과 함께 하지 않는 선교, 선포하는 증거, 수적인 갈망함등은 의미가 없다. (2014:149)

둘째는 케리그마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주 되심은 교회로 하여금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게 하신다. 교회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목적을 가진 공동체이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는 고백은 “주님은 온 세상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이다. (2014:155-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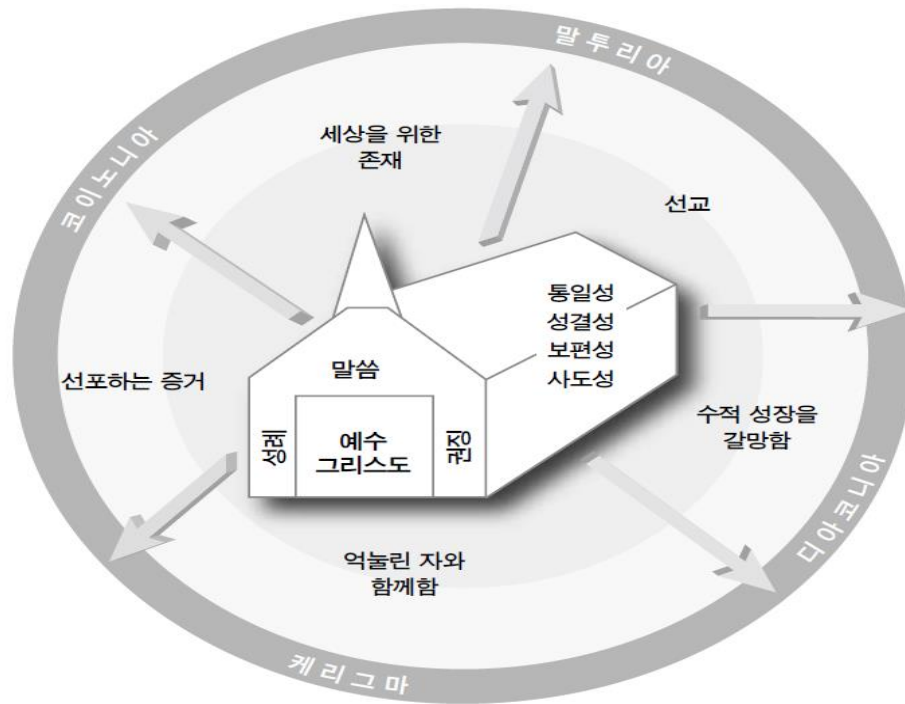
셋째는 디아코니아이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제자들은 주인을 섬기는 종으로 살아간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 청지기가 종으로서 어떻게 역할을 감당하였는지 물으신다. 디아코니아는 간단한 선행정도가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을 섬겨야하는 교회의 핵심적 본질이다. 선교적 교회는 이러한 종으로서 섬김의 모습을 지녀야한다. (2014:159-64)

넷째는 말투리아이다. “말투리아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라는 뜻이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말라투리아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서 실제로 보여지고 만져지는 역사적 사실로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입재, 선포, 설득하는 교회의 말씀 사역을 통하여 주님을 알게 된다. (2014:164-65)

선교적 교회는 스스로 화해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는 직책을 잘 감당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 복음과 섬김을 믿는 믿음의 표현인 사랑의 사역을 통해 교회는 세상을 향해 증인이 되고 존재 목적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림 4>

선교하는 교회의 목적
(Van Engen 2014:166)

언약의 공동체로서 교회

선교적 교회는 특별한 사명이 있다. 벤 앵겐은 선교적 교회는 특정 지역에 나타난 “왕 되신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라고 한다(2014:173). 이 언약의 공동체는 이방인들에게 빛과 만민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 관계라는 틀 안에서 존재 이유를 이해하였다. 이 관계는 언약의 양면인 축복과 저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왕의 언약 공동체이며 하나님 나라이다. (2014: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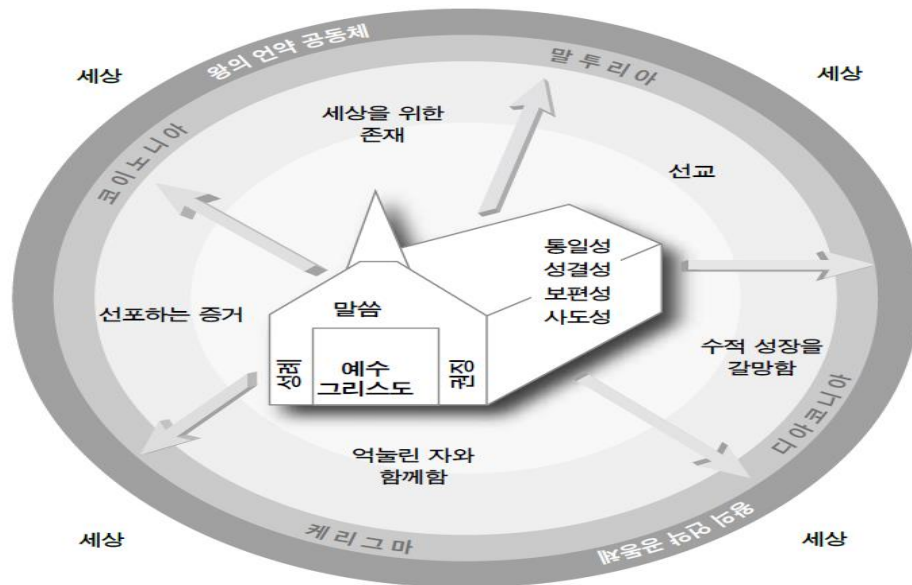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진밀한 상호 관계를 갖는다. 벤 앵겐은 언약의 공동체로서 교회를 몇가지 특징으로 설명한다.

첫째, 교회는 왕이 다스리는 공동체이다. 선교적 교회는 왕이요 구주이신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특별한 공동체로 스스로 인식해야만 한다.

둘째, 교회는 왕권통치의 중심지이다. 선교적 교회는 어떤 경우에라도 몸뚱이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특별히 다스리는 왕권 통치의 중심지이다.

셋째, 교회는 왕의 통치를 선행하는 길잡이이다. 교회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선행하는 길잡이로서 성도들을 간절한 기다림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한다.

넷째, 교회의 선교는 왕의 통치에 대한 지식을 전파하는 것이다. 선교적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한 예언자로서 왕의 통치를 세상에 알리는 소명을 받았다. (2014:185-192)



<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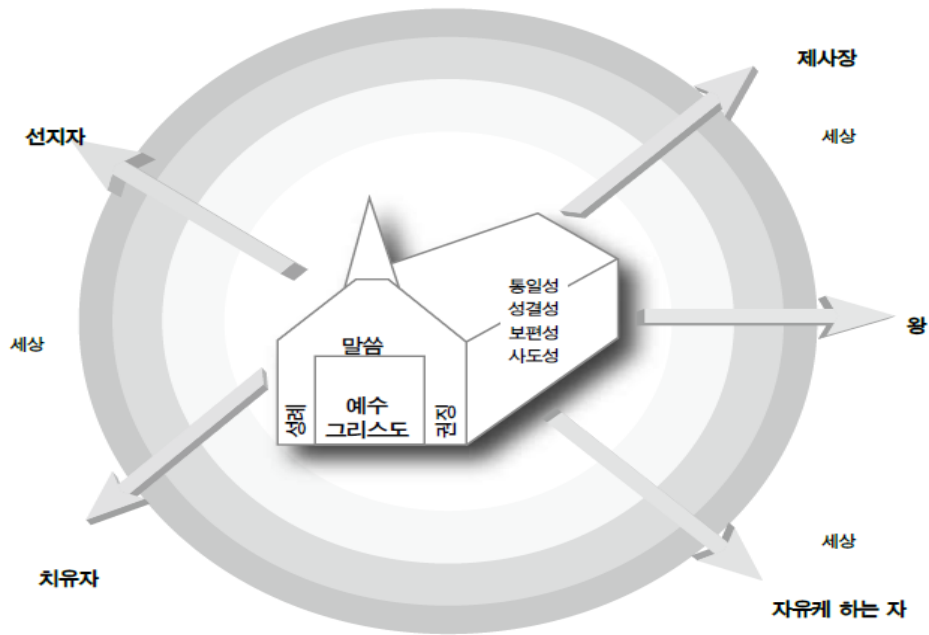
언약 공동체로서의 교회
(Van Engen 2014:172)

교회와 세상의 역할

선교적 교회는 세상속에서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다. 그 역할에 위해 예수님은 교회에 사도적 사명을 주셨고 사도직을 양도하셨다고 주장한다(벤 엥겐 2014:207).

그 사도직의 직책은 선지자와 제사장 왕의 직분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승하게 하신다. “교회는 자신을 이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승하는 자들로 인식해야 한다. 교회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에 관한 사역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벤 엥겐 2014:209)고 말한다. 또한 그리스도는 치료자와 자유케하는 분으로 보고 이것이 세상에 대한 교회의 책임이라고 밝힌다.

치유란 몸의 치유, 마음, 정신적 스트레스, 영적 질병등을 치유하는 것을 말하며 자유케 함이란 죄의 삶에서, 죄의 결과에서, 악령의 눌림에서, 율법의 징벌에서, 깨어진 관계에서 자유케 하는 것을 말한다. (2014:217)



<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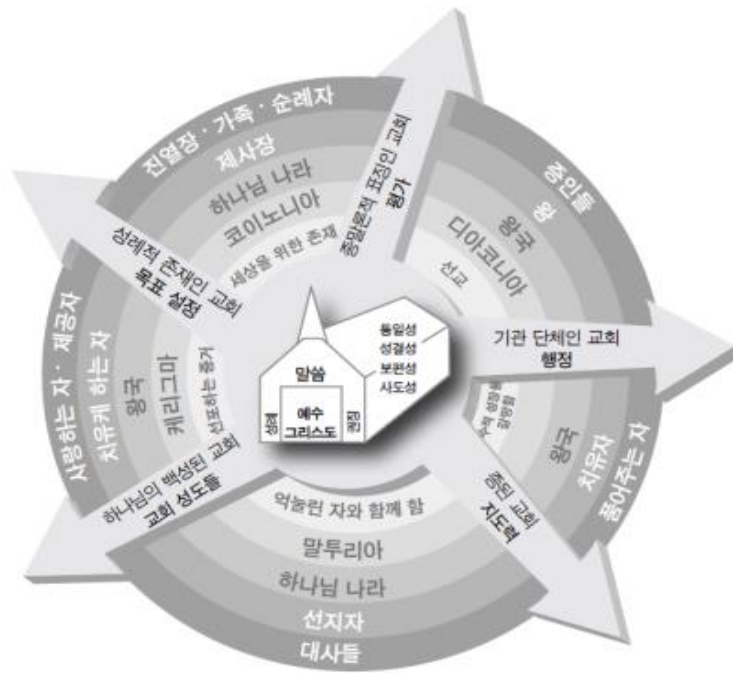
교회와 세상의 역할
(Van Engen 2014:212)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

벤 엥겐은 길게 다루지 않지만 세상에서 교회적 교회의 역할에 대해 다룬다.

성경에는 교회를 보여주는 이미지들이 있다. 설명하는 자들, 가족들, 외국인들, 증인들, 품어주는 자들, 모으는 자들, 제공자들, 사랑하는 자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표상들이다. 이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위 환경과 관계를 맺을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표상들 가운데 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이러한 표상들은 우리로 교회와 세상의 중간에서 교회 어떻게 하면 팔을 걷어 붙이고 예수님이 위하여 돌아가신 사람들을 위한 사역을 할 수 있는지를 묻게 된다. (2014:220)

그 관계를 그림 8에서 설명한다.



<그림 7>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
(Van Engen 2014:220)

선교적 교회가 되어가는 지역 교회

선교적 교회에는 선교적 목표가 필요하다. 선교적 교회가 처한 상황 가운데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는 과정을 벤 엥겐을 설명한다.

세상과 교회의 상호 조직 관계

벤 앵겐은 선교 교회의 목표 설정은 교회의 본질을 연결하는 다리놓기와 같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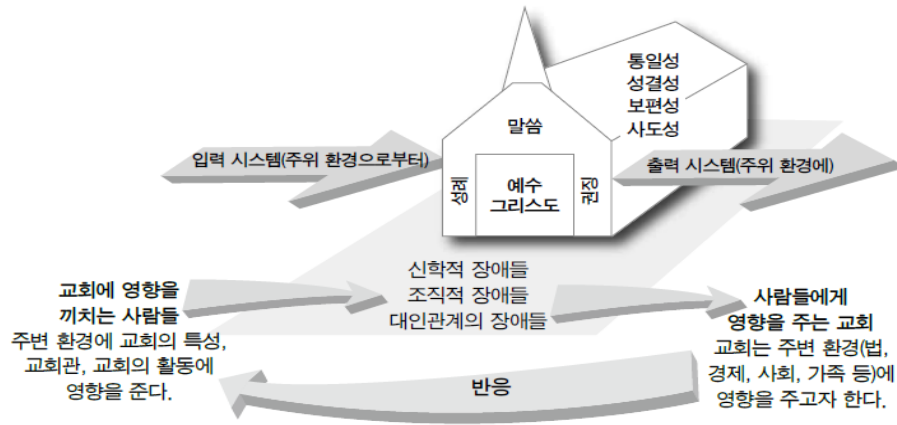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신앙고백과 실천 사이에,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유지되고 또한 하나님이 보내시는 교회의 특수성과 인간들이 같은 믿음과 소망으로 모인 보편성 사이에 중간 다리놓기의 역할을 한다. (2014:228)

모든 교회는 조직을 갖는다.

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상당히 복잡하게 연결된 조직을 갖는다. 지도자들, 사역하는 그룹들, 조직 구조, 의사 전달 창구, 지연, 학연, 혈연 관계등은 교회 내의 큰 조직 아래에 있는 여러 하부 조직들이라고 할 수 있다. 매일의 생활 가운데 여러 하부 조직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은 생산적일 수도 있고 비생산적일 수도 있다. 가정과 같이 교회도 정상적일 수도 있고 비정상적일 수도 있다. (2014:233)

세상과 교회의 상호 조직 관계에 대해 아래 그림 9를 통해 설명한다. 그림을 통해 교회와 교회 주변 상황을 역동적인 관계로 보고 있다. 어떻게 선교적 상호 관계가 일어나는지 보여 준다. 일주일 안에 일어나는 일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이런 세상과 조직의 관계를 통해 선교적 교회안에서 우선 순위 정하는 문제, 목표를 설정하는 문제, 계획을 세우는 일등을 선교적 본질안에서 연결할 수 있게 한다. 벤 앵겐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교회가 그 본질을 수선순위를 세우는 일과 목표 설정으로 전환할 때 교회는 한걸음 더 나아가 성도들이 그 모든 지식과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획해야 한다. (2014:246)



<그림 8>

세상과 교회의 상호 조직 관계
(Van Engen 2014:234)

사역을 위한 교회 조직 모델들

선교적 교회에 선교적 성도가 필요하다. 벤 엔겐은 성경적 관점에서 평신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평신도(Laity)라는 용어는 성경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백성”라는 뜻이다. 성도는 각양 은사와 역할에는 구별이 있을 수 있으나 성결함과 헌신, 선교활동에 참여하는 일과 주님안에서 누리는 특권과 권세에 있어서는 어떠한 구별도 있을 수 없다. 평신도는 그리스도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을 말한다. (2014:2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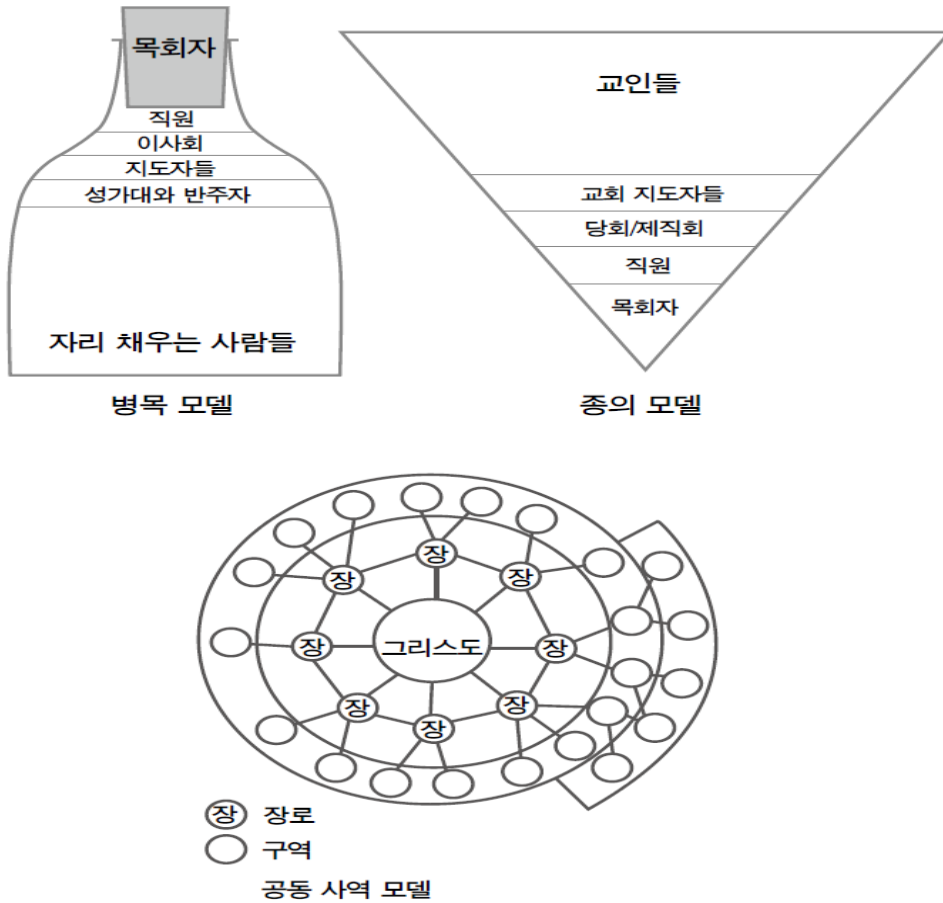
평신도라는 말이 전문가의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다. 벤 엔겐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해서 제자도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평신도는 예수를 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 사람들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균등하게 성경을 배울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교회의 교육 프로그램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 훈련하여 역동적인 제자를 양성하는 것이다. 전문인 목회자로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도를 실천하는 사람들로 키워내는데 있다. (2014:255-258)

그리스도의 몸은 선교적 교회이다. 그 교회의 특성에 대해 설명한다.

첫째, 교회 안에서는 독재가 없어야 한다. 둘째, 모든 은사와 성령의 역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셋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 자발적인 연합특성을 갖어야 한다. 넷째, 안수의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 안수는 선교와 사역의 동기를 주어 동원시키고 훈련하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것이다. 더 중요한 사람 더 높은 위치에 오르는 것이 아니다. (2014:261-266)

벤 앵겐은 그림 10에서 잘 설명한다. 세 그림은 선교적 교회가 형성 되어 가는데 안수 받은 사람이 소명을 받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역을 할 때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9>

사역을 위한 교회 조직 모델들
(Van Engen 2014:267)

선교적 교회의 지도자

선교적 교회의 지도자는 선교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교회의 구성원 모두 세상에 나가 선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벤 엥겐 2014:276). 선교적 교회는 지도자가 중요하다. 벤 엥겐은 선교적 교회의 지도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선교적 교회는 각 지체들이 가진 은사와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 세심한 배려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긍정적이며 조직화된 지도자를 필요로 한다. (2014:276)

벤 엥겐은 선교적 교회는 조직 구조나 인간 역학 관계 속에서 리더십을 정의하지 않고 리더십을 선교적 사건으로 정의 하려고 한다.

지도자가 세상을 향하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교 하도록 독려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리더십은 선교적 사건으로서의 성령의 강한 역사, 성도들의 섬기는 사역,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지도자들이 연합된 결정체이다. 이러한 리더십은 세상을 향한 선교에 강한 영향 발휘한다. (2014:279)

독재자	감독자	행정자	상담자
명령함	일하는 법을 가르침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 기간을 정함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
지도자		추종자	
순종함	일하는 법을 배움	지시를 받음	일을 행함. 자기 일로 간주
추종자에게 새로운 일	추종자에게 조금 경험이 있는 일	추종자가 자신감과 경험이 있는 일	추종자가 쉽게 할 수 있는 일

<그림 10>

전형적인 리더십 스타일과 지도자와 추종자의 상호관계
(Van Engen 2014:295)

선교적 교회는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의 소명과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하는 지도자를 발굴해야 한다고 한다. 그 지도자는 종으로서 자기 인식을 하며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도자는 섬기기 보다 다스리려 할 때 리더십은 실종되고 만다. 종의 리더십은 소극적이거나 무능하지 않다. 종의 리더십은 따른 자들에게 능력을 불어 넣고 그들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영향력으로 발휘된다. (벤 앵겐 2014:288)

벤 앵겐은 선교적 교회에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한다(2014:296). 리더십이 상황에 맞도록 변신하여 대처를 잘 하기 위해 새로운 선교 지도자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한다.

훈련이 필수이다. 선교적 교회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과 사역으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이루려고 한다면 교회안에 각계 각층의 다양한 지도자들을 훈련시켜야 하는 일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2014:2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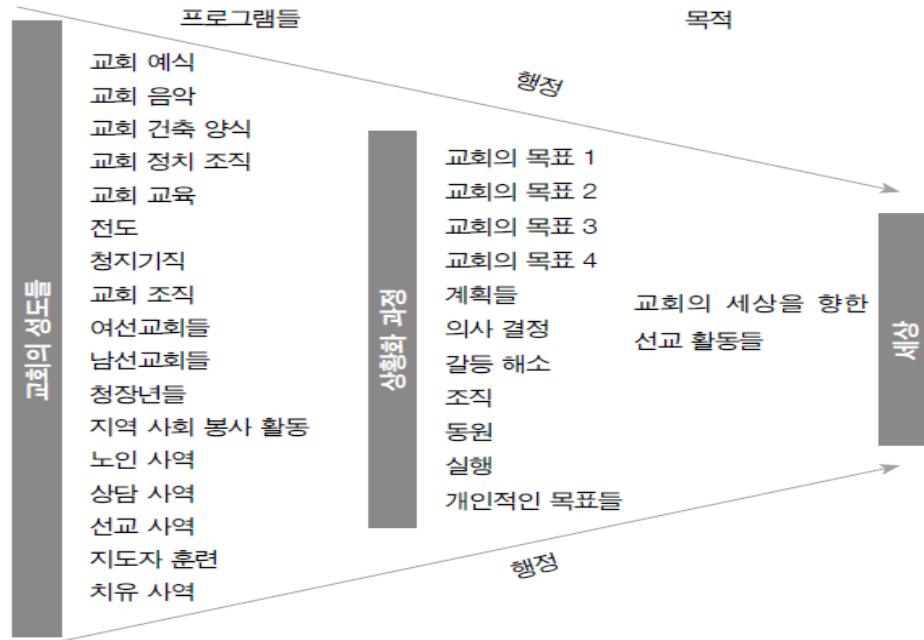
선교적 교회의 행정과 프로그램

선교적 교회의 행정은 선교적이어야 한다. 벤 앵겐은 선교적 교회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행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선교적 교회의 행정은 선교 사역에 집중한다. 지역 교회의 행정이 세심하고 확실하게 선교사역을 추진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서 선교적 교회는 생동하기 시작한다. 교회 행정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교회의 선교사명을 실제로 실행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2014:303)

선교적 교회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벤 앵겐은 선교적 교회 지도자는 탁월한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행정의 실제적 방법과 형태는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사려깊은 조직과 행정은 언제나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선교적 교회는 분명한 선교적 목적을 위해 조직과 행정력을 적극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지도자가 탈진현상에 빠진다든지, 양들이 끝없는 분열 속에서 방황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면 선교적 목적이 분명한 행정이 필요하다. (2014:309-310)



<그림 11>

선교 활동과 교회 프로그램과의 관계
(Van Engen 2014:313)

벤 앵겐은 지도자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선교적 교회의 지도자는 선교적 교회의 행정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교회의 지도자는 교회 행정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선교적으로 주도 면밀한 행정가가 되어야 한다. 선교하는 사명을 받아야 한다. (2014:313)

벤 앵겐은 행정은 유기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교적 교회는 그의 행정 체계를 통하여 실제적이고 분명하며 역동적인 형태를 갖게 된다. 이런 행정 체계를 통하여 교회의 신적인 관점과 인간적인 관점이 하나로 연합된다. 이런 행정에서 기간은 유기적인(organism) 형태를 갖는다. (2014:313-14)

그는 행정에도 선교적 본질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다.

각 지역교회가 처한 다양한 문화적 상황들은 다양한 문화적 방법으로 성도들을 세우고, 지도자를 선발하고, 행정구조를 조직하게 한다. 이일을 하기 위해 교회의 선교적 본질을 염두에 둔 행정이 필요하다. (2014:318)

요약

본 장에서는 교회성장학적 관점에서 선교적 교회의 선교에 대해 기술하였다. 먼저는 맥가브란의 교회 성장학을 고찰하고 벤 엥겐의 선교적 교회를 고찰하여 선교적 교회의 목회 철학을 정립하려고 했다.

다음 장에서는 선교적 교회의 설교자로서 한경직의 설교적 사상과 특징에 대해 기술할 것이다.

제 5 장

선교적 교회 설교자 한경직

본장에서는 선교적 교회 설교자인 한경직의 설교에 나타난 사상과 특징을 고찰하였다. 한경직의 궁극적 공헌과 은사를 분석한다.

한경직의 생애

출생과 성장

유년기와 성장기

한경직은 1902년 12월 29일 평안남도 평원군 공덕면 간리에서 4남매 둘째로 출생하다. 원래 부족할 것이 없는 중농의 집안이었으나 큰할아버지의 가산탕진으로 끼니를 이을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 한승홍은 이시기의 한경직에 대해 이렇게 서술한다.

한경직의 부친은 15살 때부터 부농 친척집에서 어느 정도 자수성가하여 독립해 나올 때까지 여러 해 동안 더부살이를 하였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이러한 가운데서도 틈틈이 글을 배워 한글과 쉬운 한자를 터득했을 정도로 부지런하고 영특한 소년이었다. 부친의 이러한 배움과 근면함과 성실함 때문에 그의 아버지는 여러 해 고생 끝에 손바닥만 한 농토를 마련할 수 있었고, 늘 어른들의 칭찬을 받았다. 한경직은 이러한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007 41-42)

그의 어머니는 불행하게도 그가 어린나이에 일찍 돌아가셔서 잘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그가 아는 어머니는 조용하고 부지런한 성품의 여인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어진 아내요, 인자한 어머니였다. 어릴 때 어머니를 따라 목화 밭에 가곤했는데 집에 돌아와서는 저녁 설거지를 끝내고 해진 옷을 깎거나 집안 일을 했다. 그가 일하시는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놀다 잠들어 버리면, 잠자리에 옮겨 재우고, 어머니는 밤늦게까지 일을 했다. 가끔 밤에 잠을 깨어 보면 밤이 깊었는데도 어머니는 등잔 불빛 아래서 물레질을 하고 계셨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젊은 여인으로서 너무 많은 일을 했다. 그녀는 몸을 돌보지 않고, 가산을 모아야겠다는 일념으로 일만을 하다 보니 병들어 제명을 다 살지 못하고 1908년에 돌아가셨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은 한경직은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를 잃은 그는 그 보다 더 열심히 교회에 나갔다. 기도도 열심히 하였다. 그시기에 대한 것을 한승홍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어린 경직은 어머니가 천당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애절한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에는 어머니의 추억이 떠올라 가슴이 울먹하고 눈물이 흘러내릴 때도 있었으며 그때에도 기도를 했다. 그럼 기도로 어머니를 만나는 것 같았다. (2007:50-51)

한경직에게 이러한 추억은 앞으로의 인생과 목회에서 큰 밑거름이 되었다. 그것은 그를 크게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요 연단과정이었던 것이다. 한경직이 살던 간리 마을은 작은 산골이었지만 일찍이 복음을 받아들인 마을이었다.

1895년 어느 날 마펏 선교사는 원산에서 선교 일을 보고 조랑 말을 타고 평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오던 한석진 조사와 함께 길을 잃었다. 그래서 잘못 찾아 들어가 하루를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곳이 간리 마을이다. 사람들은 서양 사람을 구경하러 왔다가 그의 말을 듣고 세상에 대해서 듣다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날 밤 세명의 결신자를 얻는 놀라운 일이 있었으며 그 마을 청년들이 높은 언덕에 가서 모이면서 교회가 생겼는데 그 이름이 자작교회이다. 한경직은 교회가 세워지고 태어났으며 자작교회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자랐다. 그는 그 당시를 이렇게 회고한다.

이 교회는 제가 세상에 나기 약5년 전에 북 장로교 선교사 마펏 목사님이 오셔서 세웠는데, 우리 할아버지의 동생이 그 설립자 가운데 하나였어요. 우리 동네에는 한문서당도 있었고, 교회에서 경영하는 조그만 학교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저를 어렸을 때 서당에 보내지 않았어요. 서당에는 우리 할아버지 가운데 한분이 훈장으로 계셨는데도 보내지 않고 기독교 학교에 보내서 신학문을 공부토록 했어요.그러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교회엘 나갔습니다. (이만열 1991:137)

이 교회가 한경직의 신앙의 산실이었다. 그리고 한경직의 아버지는 “내가 늦게 결혼했으니 내 아들은 일찍 결혼시켜야겠고, 내가 배우지 못했으니 내 아들은 힘닿는 데까지 공부를 시켜야겠다”고 걱정했다. 그래서 한경직은 13살 때 16살 난 김찬빈과 결혼했다(김병희 1982:9).

오산학교

한경직의 생애를 결정짓는 시점은 오산학교에서 수학했던 때다. 이 시기에 민족과 복음의 관계를 의식하였다. 그에게 첫 번째 영향을 미친 사람은 남강 이승훈 장로였다. 남강 선생과의 개인적 만남에 대해 한경직은 이렇게 회고한다.

그때는 4학년에 졸업을 할 때니깐...어느날 저녁에 졸업반 학생을 한 닷명 불렀어요. 가니깐 선생이 자리에 누웠어요. 우리가 가니깐 겨우 일어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전에 끌려가서 [105인 사건으로] 일본사람에게 무지 매를 맞아서 언제나 일년이 되면 그 맞은 자리가 아프다.’그런가 봐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그래요. 그래 아프단 이야기를 하면서 매 맞은 그 푸릇푸릇한 자리를 보여요. 그때 삼일 운동 일어나기 전해인데 그 선생의 말씀 잊지 못하는 건 이런 말을 해요. ‘지금은 일본 사람들이 모든 세력을 다 가지고 모든 걸 다 주장하니깐 일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를 않아. 그렇게 되니까 애국지사라는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변한다’고 탄식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마지막 말은 ‘다만 너희들은 분명히 알라. 다른 사람 어떻게 하든지 나 이승훈 이는 조선 사람으로 살다가 조선 사람으로 죽는다.’... 그래서 우리 남강 선생은 내가 잊을 수가 없고.... . (김병희 1982:13-4)

한경직은 오산학교에서 세가지를 배웠다고 한다. 첫째 애국사상, 둘째 현대학문 셋째 애국심이다(이만열 1072:137).

유학

이 유학의 시기에 그의 소명이 태동되었다. 방위량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 켄사스주의 엠포리아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 윤치호의 재정 도움을 받았다. 엠포리아 대학에서 철학과 심리학 분야를 공부하였고 숭실대 과정을 인정받아 학위를 받게 되었다. 이후 프린스턴 대학에서 신학공부를 하였다. 이 수학 기간에 개인이적 경건과 학문적 소양을 겸비한 목회자로 훈련받는 기간이었다.

프린스턴을 마치고 예일대에 가서 교회사를 전공하려 했으나 폐결핵에 걸려 진학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치료 받는 과정에서 그는 회복되면 한국에 나가 목회를 하기로 결심한다. 당시 그의 결심에 대해 한경직은 다음과 같이 밝힌다.

그때 같이 투병 생활하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난 살았다 말입니다. 2년 뒤에 퇴원했어요. 2년동안 병원생활하면서 이전과 같이 박사하고 학위받고 이런 생각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난 그저 이미 배운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이 민족을 위해서 내 한 몸 바치겠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한국에 나왔어요. 이러한 결단이 한국의 굴곡된 역사와 교회의 운명을 짊어지고 바꾸어 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을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때는 ‘한국’하면 일본시대인데 나가봐야 얼마 있다가 죽는다고 나가지 말라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나는 나가서 일하다 죽겠다, 죽어도 내가 이 땅에서 죽겠다’고 결심을 하고 나왔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한경직 1992:197)

목회 활동의 시기

요양을 마치고 귀국한 한경직은 오산학교와 숭실 대학에서 교사와 강사로 활동하다가 일제의 반대로 그만두게 되었다. 그 후 한경직은 목회를 시작하였다.

신의주 제2교회

1933년에 신이주 제2교회에서 전임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였다. 그 시기의 사역에 대해 한승홍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그는 이때부터 말씀 선포나 성경교육에만 제한하지 않고, 구제사업도 동시에 병행하는 전도, 교육, 봉사의 자세로 목회를 했다. 그의 목회철학이요, 목회신학이다. 그것은 그의 평생에 3 목표에 을 맞춘 목회였다. (1992:181)

그는 부임하자 먼저 예배당을 지었다. 그 후 한경직은 예배당 짓는 목회자로 소문이 나게 되었다. 그는 예배당 건립과 보린원등을 지어 교회가 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1942년에 신사참배를 노골적을 강요하는 일제에 의해 신의주 제2교회를 사임하게 되었다. 그 후 4년 동안 설립한 보린원에서 자연인으로 살면서 고아들을 돌보며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이시기에 한경직에 대한 평가를 조명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다. 신사참배의 문제이다. 조성기에 의하면 한경직은 후에 신사참배 결의를 받아 들였고 회개하였다고 한다. 역사적인 상황에서 노회의 결의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제가 말을 잘하려고 단단히 준비했는데 너무 긴장해서 그런지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경직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어느새 떨리고 있었다. “먼저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하였습니다.”라고 했다. (2003:250)

베다니 전도 교회

한경직은 월남하여 실향민 26명과 베다니 전도교회를 세웠다. 월남하여 오는 사람들에게 살 곳을 만들고 말씀을 먹이고 위로의 메시지를 먹이는 일에 온 힘을 다했다(조성기 2003:133).

전쟁 중에도 한경직은 부산과 대구에 영락교회를 세우고 초 교파적인 기독교 연합 전시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다. 미국과 유엔의 구호를 통해 전쟁중에 고통당하는 민족을 위해 구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다.

영락교회와 은퇴후에 사역

1953년 10월 25일에 서울로 돌아와 2000여명의 성도들과 예배를 드린다. 전쟁 후 영락교회는 만남의 장소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다. 한경직은 영락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진리 수호, 민족복음화, 사회봉사라는 3대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목회를 하였다. 영락교회 부흥하게 되었고 한국을 대표한 교회가 되었다. 한경직은 복음 사역, 에큐메니칼 운동, 사회 봉사 사역등을 하며 영락교회 만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사역자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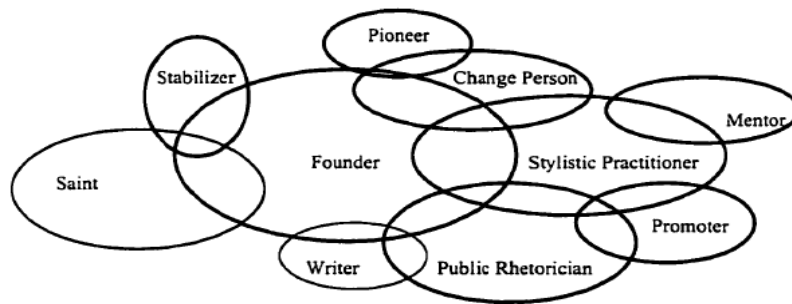
교회 사역 이외에 그가 대표적으 하였던 사역은 군복음화 사역, 교육사역, 봉사사역, 교회 연합사역, 해외 선교 사역이었다.

한경직은 은퇴후에 많은 사역을 계속했다. 1973년에 은퇴하였지만 범교단적인 기독교 사업과 거국적 행사의 총제나 위원장, 대회장등을 역임했다. 그리고 2000년 4월 19일에 98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한경직 목사의 긍극적인 공헌

한경직 목사는 독특한 공헌을 남겼다. 신선묵은 한경직의 공헌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첫째, 영남 장로교를 설립했다.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중 하나가 되었다. 둘째, 전 세계에 딸 교회를 세우고 교회 개척을 지원했다. 그는 전세계에 약 600 개의 교회를 간접적으로 개척했다. 셋째, 그는 세계 전역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다. 최찬영은 한국 전쟁 이후 최초의 선교사였다. 넷째, 대광 학교, 영남 학교, 여성 성서 학교 등 많은 학교를 설립했다. 다섯째, 성실 대학, 서울 여자 대학교 등 일부 학교를 안정시켰다. 여섯째, 그는 보린원 (Borinwon), 모사원 (Mosawon)과 같은 많은 사회 봉사 기관을 지었다. 일곱째, 그는 한국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증진했다. 여덟째, 그는 전국, 군인, 선원 및 산업 노동자들을 위한 전도 운동과 같은 전국적 또는 전 세계적 복음 전도 운동을 주도했다. 그는 1990 년대 사랑 운동의 쌀을 이끌었다. 아홉 번째, 그는 12 권의 설교를 출간하고 "기독교는 무엇인가?"라는 팸플릿을 50 만 부 발행했습니다. 열 번째, 그는 목회자 회의와 신학교에서 많은 지도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아홉째로, 그는 한국 월드 비전을 발견하고 전 세계 비전의 피어스 (Pierce of the World Vision)와 협력했습니다. (신선묵 2000:69-72)



<그림 12>

한경직 목사의 긍극적 공헌
(Shin 2000:72)

한경직 목사의 은사 벤 다이어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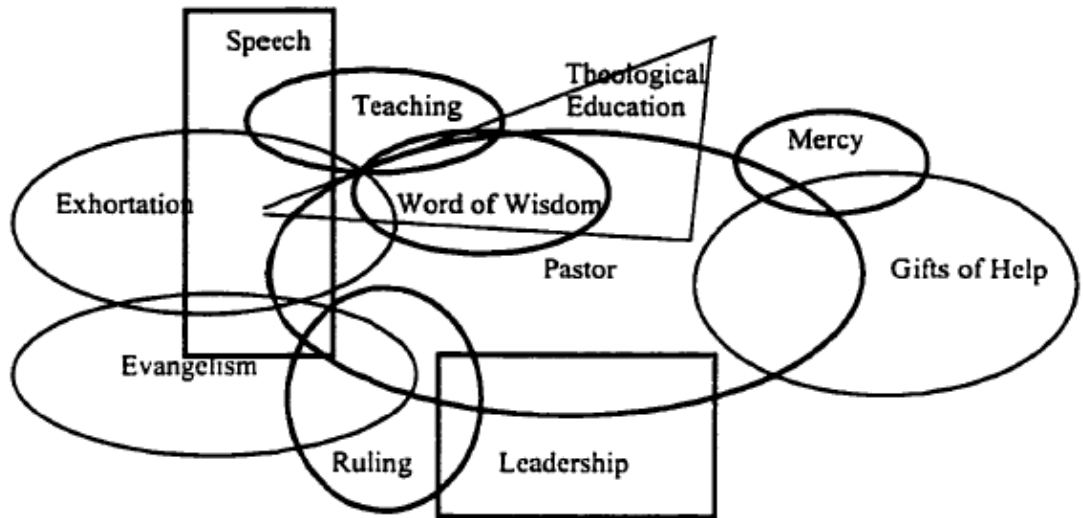
영적 은사가 사역의 핵심 요소이다. 신선묵은 한경직의 은사를 클린턴이 제시하는 벤다이어그램에 적용해 보았다.

한경직은 주요 자연 능력(연설, 지도력)과 후천적 은사(신학 훈련)는 그의 영적 은사를 지지한다. 훈계, 전도 및 도움은 그의 은사 가운데 세 가지 지배적인 영적 은사이다.

한경직 목사는 설교, 전도 및 지역 교회 목회에 관한 많은 사역 통찰력을 개발했다. 특히 군인, 산업 노동자, 선교 학교, 전도를 위한 복음 전도의 방법은 그의 삶의 목적을 보여주고 있다.

한경직 목사의 인생 가치는 복음주의, 청교도, 사회적 책임, 에큐메니즘, 전도, 봉사, 교육, 서번트 리더십, 청지기 정신 및 나라사랑이다. 그는 사역 초기에서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였다.(2000:73-75)

한경직 목사의 재능과 은사를 클린턴의 제시하는 벤다이어그램에 그려져있다.



<그림 13>

한경직 목사의 은사 벤 다이어그램
(Shin 2000:74)

한경직 설교신학

설교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한경직은 설교에 대해 “죽을 자가 죽을 자를 위해 주는 생명의 말씀이다.”(1965:29)라고 하였다. 이는 그가 설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준다. 그의 사역에 있어서 설교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웨렌 워어스비(Warren W. Wiersbe)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이 가벼운 일이 결코 아니다. 설교는 사람이 죽느냐 하는 심각한 문제이다.”(1997:21) 라고 지적했다. 것처럼 설교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한경직 목사의 사역에 있어서 설교는 그만큼 중요했다. 그의 설교를 통해 영락교회는 성장을 할 수 있었다

영락교회 성장비결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권위와 능력에 있었다. 간결하면서도 영감 넘치는 ‘영락강단’의 말씀을 듣는 이들로 하여금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케 하는 놀라운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있었다. 그리고 그 체험의 결실은 말씀 안에서 거듭나는 중생의 경험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개인적 변화는 곧 이웃과 사회에 대한 빛진자의 심정과 함께 민족을 향한 믿는 자의 사명과 책무를 인식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로 승화시켜 주었다. 말하자면 영락교회 교인들은 ‘피난 공동체’로 시작하여 말씀 안에서 거듭나는 ‘말씀 공동체’였던 것이다. (영락교회 1998:169)

한경직의 말씀이 탁월하다고 평가받는 기저에는 그가 선포한 말씀의 특징에 있다. 그 특징을 살펴봄으로 선교적 교회에 선포되어야 할 설교의 특징을 간추려 알 수 있다. 그 특징을 찾기 위해 그의 신학적 기초를 살펴보고 그의 의 설교적 특징을 정리하려고 한다.

한경직은 그의 설교를 통해 그의 신학사상과 목회 관을 정확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드러냈다. 그의 핵심 사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성경적 복음주의

한경직 사상의 첫 번째 기초는 그의 성경관이다. 그는 “올바른 신앙 노선”이라는 설교를 통해 영락교회가 나아가야 할 신앙노선을 ‘복음주의 신앙’ ‘청교회적인 생활’ ‘에큐메니칼 정신’ ‘올바른 사회봉사와 사회 참여’ 등 4가지로 요약하여 제시하였다(한경직 2009o:91). 제 일 원칙이 복음주의 신앙이다. 복음주의 신앙은 오직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다는 것이다. 이신득의의 신앙이다. 이 신앙은 오직 성서를 중심으로 신앙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한경직은 복음주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 했다.

복음주의는 ‘이신 칭의’ 신앙을 중심으로 성서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한경직에 있어서 복음주의는 “성경 중심, 그리스도 중심, 십자가 중심” 신앙을 의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2009o:91)

신앙을 중심을 성서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개신교의 신앙의 핵심은 성경을 근거해야 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대한 체험적 믿음이 전체 조건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결국 한경직의 성서에 근거한 복음주의 신앙의 강조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핵심 사상인 이신득의 사상을 이어 받으면서 종교개혁의 전통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한경직의 목회와 설교의 관심은 이신득의의 신앙으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이어 거룩한 삶으로의 변화를 강조한 것이다.

그는 설교는 성경적이어야 하고 그 성경의 중심은 복음되신 예수그리스라는 것을 강조하며 철저한 복음주의자로 목회하며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성경을 해석하는 근본 원칙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항상 잊지 아니 해야 됩니다. 그것은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썼습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교훈과 그 마음과 정신에 대하여 해석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그리스도의 정신과 교훈을 중심해서 신약과 구약을 해석해야 됩니다. (2009a: 512)

이종성은 한경직의 성서관을 “복음적 성서관”으로 이해하고 이 복음적 성서관이 오늘의 장로교회 통합측의 신학노선을 확립해 주었다고 주장 하였다(2002:30). 이러한 성서관에 입각한 한경직의 신학 사상은 한국교회의 신앙과 사상을 대변하는 중도적인 “온건한 복음주의”의 노선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궁극적으로 구원의 완성이다. 그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건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능력이다.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었던 것을 설교를 통해 밝히려고 노력하였다.

청교도 신학

한경직의 신앙관은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오직 복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복음주의 신앙이다. “복음주의 신앙이란 우리 신교의 중심사상으로 오직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는 것이며, 이신득의의 신앙입니다.”라고 말한다(2009g:416).

둘째, 청교도적인 생활이다. 그는 신행일치의 신앙생활을 강조한다. 신행일치를 위해 청교도적인 생활을 강조한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 청교도적인 청빈, 성결, 정직, 절제등을 강조하고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었다. 그는 청교도주의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청교도주의란 신의 뜻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원칙적인 신앙의 삶을 따라 신앙원칙에 입각한 생활태도의 문제를 중시하며 금욕적인 생활태도, 영육의 온전한 헌신, 직의 소명감, 근면성실, 정결과 절제, 애국심, 현실 개혁의 정신 등을 중하게 인식하였다. (2009a:83)

셋째, 에큐메니컬 사상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이어야 하는 것은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파를 초월하여 협력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에큐메니컬 정신입니다”(2009a:419). 한경직은 에큐메니컬 정신이 교회의 정신이라고 강조한다.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교단 간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그는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 총제를 하며 1984년 100주년 선교 대회에서 “순종하는 교회”라는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잘 믿노라고 애는 쓰면서도 주님이 주신 오직 하나인 이 계명을 잊어버릴 때가 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불화와 분쟁과 분열이 너무나 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불화와 분쟁과 분열이 무나 심하였습니다. 기독교 100주년을 마치고 제2세기를 맞는 한국교회는 우리의 실태를 솔직히 고백하고 지금부터 이 앞으로는 이 계명에 순종하려는 새로운 다짐이 필요합니다. 주안에서 좀 더 하나가 되십시오. 우리는 모두 한 하나님의 자녀요, 한 구주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고, 마지막에는 오직 하나인 천국에 우리가 모두 모일 것입니다. (1984:121)

그리스도 중심 신학

한경직의 신학과 삶의 중심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의 설교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인격과 사상의 균형과 통전성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

안에서 우리는 존재의 본질을 찾아야 하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 보여준 삶을 본받고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을 말하고 있다. 그가 이해한 그리스도는 고난과 섬김의 그리스도, 영광과 승리의 그리스도, 신앙생활의 중심된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이해를 서술해 보고자 한다.

고난과 섬김의 종인 그리스도

한경직의 그리스도론의 중요한 관점은 그리스도는 고난과 섬김을 종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사역과 존재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행한 그의 사랑을 드러냈음을 드러낸다. 그가 로마서 5장 1-1절을 본문을 한 설교에서 분명히 밝힌다.

여러분, 십자가를 무심히 보시지 맙시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하신 바와 같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대신 바쳐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인류를 구원하기 해서 모든 인류에게 십자가상에서 보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2009d:374)

요한복음 12장 24-33절을 본문으로 하는 설교에서는 십자가를 통해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한다. 즉 그의 신학의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으로 본다. 그 십자가를 통해 끌어당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가 무성해지고 유지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인력이 있습니다. 끄는 힘이 있습니다. 물리학을 공부한 사람은 누구나 만유인력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모든 물체는 끄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달에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월이면 밀물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령한 세계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인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끌림을 받아 주님께로 나아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인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무성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격에도 인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성품에도, 주님의 생활에도, 주님의 교훈에도 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활의 최고이 되는 이 십자가에 사람을 끄는 제일 큰 힘이 있습니다. (2009e:138)

한경직은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스도의 섬김을 꼭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스도가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겸손히 사람들의 발의 씻기는 섬김이 그의 사역의 핵심이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섬김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것이 그의 삶을 승계하는 제자의 삶이라고 강조한다.

우리는 이 사순절에 신령한 눈을 들어 발을 씻어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분명히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학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학식보다도 이 정신을 먼저 배워야 하겠습니다. 지혜가 귀합니다. 그러나 지혜보다도 먼저 남의 발을 씻어 주는 정신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이런 정신을 가진 교우들이 모인 교회는 언제나 화평합니다. 이런 정신을 가진 이들이 모인 회합은 언제나 화기애애한 가운데서 모든 문제가 처리됩니다. 모든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언제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발을 씻겨 주시는 주님의 마음과 태도를 우리는 꼭 배워야 하겠습니다. (2009e:132)

그리스도의 십자기의 고난과 섬김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으로 본다. 고난과 섬김을 통해 이루어 놓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응답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분명히 하고 있다.

승리와 영광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섬김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끝이 아니라고 한다. 한경직은 설교를 통해 십자기의 고난과 섬김 이후에 영광과 승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낸다. 죽음의 권세에 대한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권세를 보셨고 영광의 자리에 서셨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한다.

우리는 이 변화산상에서 본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빛나는 독생자의 정체를 보아야 합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그분의 영광을 신령한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주는 과연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뿐 아닙니다....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한 보아야 합니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와 동거하시는 주님을 보고 이러한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해야 합니다. (2009e:134)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인 부활의 사건이 정의와 생명과 천국의 승리라고 본다. 그리스도의 사건을 이 승리와 영광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구원의 완성으로 보는 것이다.

한경직의 그리스도론은 고난과 섬김의 종으로 시작하여 승리와 영광으로 귀결된다.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의 승리가 보장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을 얻게 밝히는 것이다.

그는 요한복음 20장 1-29절 본문으로 “부활의 기쁨”이라는 설교에서 부활을 이렇게 설명한다.

부활의 날은 모든 눈물을 말리워 주는 날입니다. 이 날은 죽음을 넘어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날입니다.... 둘째로 부활의 날은 의와 진리가 최후의 승리를 거둔 날입니다. 그러므로 기쁜 날입니다.... 셋째로 이날은 새로운 생명의 날입니다. 이 부활이 있음으로 많은 죽은 심령들이 살아났습니다. 죄로 죽었던 옛 사람을 벗어나고 새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비전을 가지게 되고, 새로운 이상과 사랑과 새로운 활동,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현재의 우리에게 이 부활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쁜 날입니다. (2009e:117-9)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 되시는 그리스도

한경직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중요한 원리는 신조나 신학보다 그리스도임을 강조한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아들이시요, 메시아 되심을 믿고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따르는 것이 참된 신앙임 강조하다. 그래서 그의 신학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안에 종속되어야 참 의미있는 삶을 강조하며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했던 것이다. 그는 에베소서 4장 1-16절을 본문으로 “영적 성장”이라는 설교를 통해 이렇게 강조한다.

모범만이 기독교가 아니고 그리스도 자신이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기독교를 압니다. 그리스도를 신학적으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이 어떠하며, 그리스도의 인성이 어떠하며, 그리스도의 선재(先在的) 상이 어떠하며, 그리스도교의 수립의 교리가 어떠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떠하며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재림이 어떠하며 그리스도의 교훈이나 그리스도의 단순한 그리스도의 모든 교훈이 어떠하며, 그리스도의 인격 내용 등의 모든 것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게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우리의 심령으로 그리스도를 알아야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교제하고 그리스도와 매일 매일의 생활을 구상해서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떠하며 그리스도의 인내, 그리스도의 자비,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교훈이 어떠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높이 그 넓이 그 복음을 좀 더 아는 자리에 나아가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장성하여 집니다. (2009c:68-73)

그리스도 자신이 기독교라고 강조하며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에 놓여진
그리스도인이 전정한 그리스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성도가 본받아야 할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교적 교회론

한경직은 선교적 교회론을 설교했다. 그는 교회는 역사하는 실체라고 보았다.
영락교회 창립 10주년 기념 예배 설교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교회가 서있는
곳에 개인과 중생의 구원이 있으니 이 개인적인 구원이 점차로 사회적 중생과 개혁에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서는 곳에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도덕, 각 방면에
새로운 부흥과 정화가 일어납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건강하게 서 있을 때 교회를 통해
세상이 변화된다고 본 것이다.

그는 영락교회 창립 10주년 교회의 3대 사명을 발표했다. 진리 수호의 사명, 민족
복음화의 사명, 사회봉사의 사명이다. 교회의 중요성을 계속 설교하며 목회를 마칠 때
견지한 교회의 사명이었다. 그의 교회론을 알려주는 것을 그의 설교 전집에서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교회는 우리가 볼 적에 인간적인 듯하나 그것은 실로
신적(神的)인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란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조직하고
사람의 힘으로 성장하고 변체되고 부흥되는 사람의 기관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둘째, 교회는 본래 희랍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여 성별된 자의
모임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건설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교회를 인간적으로만 본다면, 유대 땅 한
구석의 작은 촌 나사렛의 목수 예수를 중심으로 하고 10여 명의 갈릴리의
어부가 모인 이 집단이 어떻게 모든 원수를 이기고 지금까지 생존을
계속하여 온 세계에 두루 전파되고 있습니까? 이는 이 집이 사람의 것이
아니요 곧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인 까닭입니다.

셋째, 교회는 가견(可見的)이나 한 불가견(不可見的)인 기관입니다.
즉 교회는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바, 보이는 부분이란
교파로 나누인 모든 지상의 지교회입니다. 그러나 외적 형상뿐이고 교회의
실체(實體) 곧 그리스도에 터를 잡고 열 두 사도의 초석위에 건설된 교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야 말로 우리의 이상이요, 우리의 원원한 집인

하늘나라로서, 여기에는 교파도 없고 국별(國別)도 없고 인종별도 없습니다. 세기를 통하여 모든 성도와 성남성녀, 산자와 이미 세상을 떠난 자가 다 같이 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새 예루살렘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넷째, 우리의 육신이 비록 약한 것이나 세상에 있을 동안 벗을 수 없는 외부 기관이 되는 것처럼, 이 지상의 현실교회가 비록 결함이 있으나 이 보이지 않는 실체 교회의 외부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교회가 서 있는 곳에 개인의 중생과 구원이 있으니 이 개인 구원이 점차로 사회 중생과 혁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서는 곳에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도덕, 각 방면에 새로운 부흥과 정 그리하여 이 현실 교회는 실체 교회와 불가분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고 보이지 않는 실체 교회는 보이는 지상 현실 교회를 통하여 진리를 전파하고 천국을 건설합니다. 화가 일어납니다.

여섯째, 교회는 건전한 국가의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교회야말로 국가의 정신적 간성(干城)이며, 황야에 헤매는 대중을 인도하는 진리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며, 암야(暗夜)의 행로를 밝히는 광명한 등이며, 거친 세해(世海), 죄악의 파도에 빠져 죽어 가는 인생들의 구원선이며, 피곤한자의 안식처이며, 수난자의 피난처입니다. 교회야말로 인간의 최고 이상의 상징이니 여기서 인간은 인간 이상의 존재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1980:43-7)

그는 교회가 교회 다울 때, 기독교의 본질을 갖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6가지로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1960년 이후 개신교 일각에서는 교회를 “보이는 교회(visible church)”와 “보이지 않는 교회(invisible church)”로 나누는 것에 대해 이미 1946년에 교회를 가건 실체와 불가건 실체로 나어서 설명했다. 그는 사도 바울, 어거스틴, 루터, 칼빈으로 이어지는 교회론(敎會論)에 지지하고 있었다. 교회는 역사(役事)하는 실체로 보고 교회는 행위를 통해서 그 모습이 드러난다고 생각하고 있고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보는 관점을 전도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한경직은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으로 보고 모든 성도는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봉사하며 사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일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설교를 통해 강조했다.

고로 교회는 가건적이나 또한 불가건적인 기관입니다. 즉 교회는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 바, 보이는 부분이란 교파로 나누인 모든 지상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는 외적인 현상일 뿐이고, 교회의 실체 곧 그리스도 위에 터를 잡고 열두 제자의 초석 위에 건설된 교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이상이요, 영원한 집인 하늘나라로서, 여기는 교파도 없고 국별도 없고 인종차별도 없습니다. 세기를 통하여

모든 성도와 성남, 성녀, 산 자와 이미 세상을 떠난 자가 다 같이 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새 예루살렘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마치 북빙양(북극해)에서 떠내려오는 빙산이 보이지않는 부분이 더 큰 것 같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본질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 지상의 교회는 흠도 있고 티도 있고 부패도 있고 분열도 있으나, 불가견적인영적 교회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엡 5:27)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비록 약한 것이나 세상에 있는 동안 벗을 수 없는 외부 기관이되는것처럼, 이 지상의 현실 교회가 비록 결함이 있으나 이 보이지 않는 실체 교회의 외부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현실 교회는 실체 교회와 불가분리의 밀 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고, 보이지 않는 실체 교회는 보이는 지상 현실 교회를 통하여 진리를 전파하고 천국을 건설합니다. (2009a:19)

한경직에 따르면, 교회는 철저히 전도, 교육, 봉사를 할 때 존재의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교회 기능은 건물이나 구조로서의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에 속한 모든 신자들이 각각 감당해야 할 성도의 의무라고 본다. 그래서 성도 각자는 곧 걸어 다니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자체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한경직은 교회가 케리그마를 전하는 것뿐만 케리그마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그리스도를 닮아 항상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목회의 본질로 보았다. 그는 신의주 제2교회에서부터 영락교회에서 은퇴하기까지 이 3대원칙에 따라 목회를 최선을 다했다.

설교에 나타난 중요한 특징

한경직의 설교는 영락교회와 한국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의 설교를 통해 영락교회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홍성범은 그의 논문에 한경직의 설교 611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분류	회수	백분율(%)
성삼위 하나님	89	11
교회	10	2
십자가 보혈, 용서	53	9
천국	7	1
신앙생활	164	27

거룩한 삶	162	27
성경	14	2
사회 문제	36	6
인생문제	31	5
실천문제	45	7

<표 2>

설교 전집에 나타난 주제 분류
(홍성범 1999:45)

홍성범은 한경직 설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한경직의 설교 제목을 분석해 보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신앙”과 “거룩한 삶”으로 성도들의 삶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생활을 각각 27%로 전 설교의 54%를 차지한다. 이는 영락교회의 성장기에 있어서 민족적인 아픔을 극복함에 필수적인 주제였던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적인 문제인 죄용서, 은혜, 구원등 십자가의 은혜를 다룬 제목이 9%를 차지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성도들의 실천 문제가 45회로 7%, 성삼위 하나님의 89회 11%였다. 그외 실존적인 문제들이 주제를 이루고 있다. (1999:45-7)

홍성범이 분류한 것 처럼 한경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안에서 거룩한 삶을 통해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또한 그 백성들이 거룩한 제자가 되어 세상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도록 교육하는 것을 위해 설교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경직의 설교 신학을 통해 살펴본 그의 설교의 특징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그의 설교는 철저히 복음적이였다. 한경직의 신학과 삶의 중심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 안에서 우리는 존재의 본질을 찾아야 하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 보여준 삶을 본받고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을 말하고 있다.

둘째는 선교적이었다. 한경직은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으로 보고 모든 성도는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봉사하며 사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일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본다.

셋째는 교육적이다. 교육(敎育)하는 일도 교회의 의무 가운데 하나다. 목회 시작인 신의주 제2교회에서부터 전도, 교육, 봉사의 3 목표에 을 맞춘 실천 신학이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하는 교회’, ‘교회교육’, 바로 이런 것이 교회의 참모습이며 사명 가운데 하나임을 강하게 역설했다

요약

본장에서는 선교적 교회 설교자인 한경직의 설교에 나타난 사상과 특징을 고찰하였다. 한경직의 궁극적 공헌과 은사를 분석하였다.

다음 장은 결론으로, 지금까지 연구를 요약하고 결론에 이른 후에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함으로 논문을 마칠 것이다.

제 6 장

결론

본장은 논문의 결론으로 지금까지의 연구과정을 요약하고 결론을 제시한 후 후속 연구분야를 제언함으로 마친다.

요약

하나님께서서는 복음전도자를 부르신다. 선교적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나는 현지 선교사로 사역하고, 풀러에서 공부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적 교회 설교자로 세우시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나는 선교 신학적 관점에서 선교적 교회의 건강한 설교자가 되기 위해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제1장은 선교적 교회의 설교자 만들기에 관한 연구의 서론으로서 필자가 선교적 교회 설교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된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연구목표, 연구의 중요성, 연구의 중심과제, 연구의 질문들, 연구방법, 연구의 범위, 연구 개관을 다루었다.

제2장에서는 클린턴의 평생지도자 개발론의 관점에서 선교적 교회 설교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술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내 자신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 과정을 이해하였다. 클린턴이 말하는 ‘사역은 존재로부터 나온다’ 사실을 확인하였다.

제3장에서는 선교적 교회 설교자가 선포해야 할 복음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나는 먼저 예수님의 복음과 바울의 복음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이 과정에서 선교신학자인 아서 글라서, 롤랜드 알란, 그리고 김세윤이 규정한 복음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제4장에서는 교회성장학적 관점에서 선교적 교회의 선교에 대해 기술하였다. 먼저는 맥가브란의 교회 성장학을 고찰하고 벤 엥겐의 선교적 교회를 고찰하여 선교적 교회의 목회 철학을 정립하려고 했다.

제5장에서는 선교적 교회 설교자인 한경직의 설교에 나타난 사상과 특징을 고찰하였다. 한경직의 궁극적 공헌과 은사를 분석하였다.

제6장에서는 결론으로서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 및 제언을 하는 것으로 마쳤다.

결론

본 연구의 결론은 선교목회학적 관점에서 선교적 교회 설교자 만들기 과정을 복음적 설교, 선교적 교회론, 리더십 개발론, 그리고 한경직 목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적 교회 설교자로 만드시는 손길을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제언

이 주제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나는 후속 연구를 위하여 다음 주제를 제언한다.

첫째, 리더십 개발론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클린턴의 리더십 개발론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리더십 개발론을 적용하여 다양한 리더들의 개발과정을 연구하는 것은 선교적 교회 리더십 개발에 큰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둘째, 선교적 교회의 복음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선교지 상황에 적절한, 목회 현장에 적절한 다양한 복음 규명이 필요하다.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그리고 역사서에 나타난 캐리그마를 규정하여, 효과적인 복음전도가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 오늘의 다양한 다원주의 사회에 적절한 복음이해를 위해 성경신학적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교회성장학적 관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맥가브란은 선교현장에서 효과적인 복음전도를 위한 교회성장학을 개발하였다. 맥가브란의 교회성장학은 여러

세대를 지나면서 다양한 모습을 갖게 되었다. 맥가브란이 원래 현장 선교사로 고심했던 인간집단을 효과적으로 전도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한경직 목사의 설교학 전반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경직 목사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복음전도를 통해, 교회성장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공헌했던 선교적 교회 설교자들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한국 강단에 더 많은 선교적 교회 설교자들이 등장할 것을 기대한다.

부록

한경직 리더십 가치관

LEADERSHIP VALUES OF HAN(Sunmook 2000: 59-62)

I. Evangelical Faith

1. The goal of Christian life is to know Christ and be like Him (B. Kim 1982:242).
2. The center of the Bible is Christ. The Bible must be read, before it is criticized or discussed (B. Kim 1982:257).
3. Prayer is needed in order to receive the Holy Spirit. Christians should not quench or despise the Holy Spirit. In order to remain sensitive to the Holy Spirit, leaders should obey and be guided as He leads them (B. Kim 1982:196).
4. It is impossible to be great if we use only what we have studied. In order to be a great person, one should be wise enough to be ruled by the grace of God (B. Kim 1982:303).

II. Puritan Life Style

1. Leaders should bear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in their character and life (B. Kim 1982:269).
2. It takes time to have deep humility. Humility is the most secure place (B. Kim 1982:309).
3. Leaders who have something important to do are supposed to bear many things for that purpose. Great patience is necessary for great work. Many leaders give up at the last moment when they should be patient. When leaders are mature in their patience, they can have everything under heaven (B. Kim 1982:309).

4. Leaders regret their words if they say whatever they want to say. However, if they are patient, they will benefit from their silence (B. Kim 1982:310).

5. The secret of a successful ministry is to love those who oppose. Try to win not by force but by love and endurance (B. Kim:309).

6. Possession of the invisible (heaven) is much more important than possession of visible (material) blessing (B. Kim 1982:309).

7. Frugality is the secure way of life for leaders. Leaders should be cautious of money and fame (B. Kim 1982:311).

8. Leaders should be diligent in order to be used by God in a great way (B. Kim 1982:311).

III. The Social Responsibility (B. Kim 1982:100-101)

1. The church and politics should be separated from each other. However, the church should assume the responsibility to build the nation on the right base.

2. The church should influence society by penetrating into each department of the nation as salt and light.

3. The church should do its best to produce good leaders in secular society.

4. The church leaders should pray for the nation and give advice to the politicians.

5. Church leaders should be cautious in their involvement in politics.

IV. Ecumenism

1. Faith must be conservative. However, the church should not be divided but be united together by ecumenism (S. Han 1993:211-212).

V. Stewardship of Christians (K. Han 1991:20)

1. Human beings belong to God. Human beings possess nothing. They simply manage what God has entrusted to them. Therefore, human beings should manage not according to their own will but according to God's will.

2. Those who are entrusted by others should be diligent, wise and faithful.

3. The time will come when the steward will give account to the Lord.
4. We should serve God with the talents that have God given to us. We should respect others' gifts. We should serve our community with the gifts God has given to us.
5. We should not lose the opportunity to do good works and evangelism. We should be diligent. We should use time in a holy way. We should offer time to God.
6. Money is what God entrusts to us temporarily. We should be frugal and use money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We should offer tithes. We should be consistent in our offering. We grow spiritually through tithes.
7. We should be faithful in little things. We should be faithful to the end. We should be faithful in any environment.
8. We should not be bothered by others' judgment. We should not trust the judgment of our own conscience. We should be aware of the judgment of God.

VI. Pastor

1. A pastor should be a true Christian most of all (K. Han 1990:163).
2. A pastor should have a sense of calling and have passion for ministry, gifts, and fruits (K. Han 1990:164).
3. A pastor should have vision about God, about sinfulness of self and about mission (K.Han 1990:167).
4. A pastor should have clear vision about the church: prayer/ fellowship/ Bible study/growth (K. Han 1990:170).
5. A pastor should have vision about self, family and church, community and country.
6. A pastor should grow continually (K. Han 1990:170).
7. A pastor should be filled with the Spirit (K. Han 1990:172).

V II. Servantship (K. Han 1990:64-71)

1. We are the servants of the Lord. Therefore, we should obey the Will of the Lord.
2. We should proclaim the Word of the Lord. Everything is the possession of the Lord.

Our bodies are the Lord's.

3. We should give glory to the Lord. We should have the mark of the Lord.

VIII. Preaching

1. Sermons should be Bible-centered and Christ-centered (K. Han 1990:173).

2. Preparation of the sermon is important. However, who the preacher is more important (B. Kim 1982:294).

3. Prayers of tears are needed when leaders prepare their sermons (B. Kim 1982:295).

4. For inspiring people, the attitude of the preacher is much more important than a beautiful pulpit (B. Kim 1982:296).

5. Pastors should be able to feed the congregation with the Word of God (K. Han 1990:175).

6. Preachers should be sensitive to the newcomers. Preaching should have the goal of saving souls (K. Han 1990:177).

7. Preachers should use simple language (K. Han 1990:180).

8. Sermons must be existential. Therefore, preachers should visit the congregation to know and understand them (K. Han 1990:181).

9. Preachers should give three kinds of preaching; doctrinal, ethical and comforting (K. Han 1990:182).

10. Preachers should have the authority (K. Han 1990:184).

IX. Spiritual Authority in Preaching

1. Authority comes from the Word itself. Preachers should be faithful to expose the word of God (K. Han 1990:184).

2. Authority comes from conviction. Preachers should have conviction about their experiential faith, a clear sense of calling, and conviction about the Bible (K. Han 1990:185).

3. Authority comes from life. The life of the preacher is preaching (K. Han 1990:186).

4. Authority comes from passion for souls (K. Han 1990:187).

5. Authority comes from the Holy Spirit. We should work all day, but pray all night (K. Han 1990:188).

X. Church Administration

1. Pastors should give priority to the peaceful unity of the church. For this, pastors should keep the attitude of servant: humility and gentleness (K. Han 1990:193).

2. Pastors should not hurry in decisions. Pastors should follow the majority. Pastors should be patient (K. Han 1990:195).

3. Pastors should seek actively for reconciliation even in small conflicts (K. Han 1990:194).

XI. Visitation Ministry

1. Pastors should seek after the lost through visitation (K. Han 1990:195).

2. Pastors should seek to visit those who are in trouble (K. Han 1990:197).

3. Pastors should be fair to everyone in visitation ministry (K. Han 1990:199).

Xn. **Education** (K. Han 1990:203-207)

1. Pastors should give priority to training of the teachers.

2. Christian mission schools are important institutions.

XIII. Evangelism

1. Evangelism is not a means of church growth but of saving and protecting the souls of people (S. Han 1993:154).

2. The first priority of church should be evangelism. This must be reflected in the visitation and preaching ministry (B. Kim 1982:276).

3. The methods of evangelism are: 1) by word, 2) by life, and 3) by church community (B. Kim 1982:275).

4. Evangelism must be focused on young people (B. Kim 1982:277).

5. Pastors should teach the importance of evangelism to congregations (B. Kim

1982:277).

6. We should work hard for mission (K. Han 1990:91-93).

7. We need personal evangelism and mass evangelism. But mass evangelism must be supported by individual contacts. The church needs to train the lay people as effective individual evangelism workers (K. Han 1990:95-96).

8. For effective evangelism, we need to see mass evangelism. We should learn from Jesus Christ's fisher's law. 1) We should throw nets where there are many fish. In our evangelism, we should focus on the places where are many people, such as the army, schools, and industry. 2) We need good fishing tackle. We should use mass communication, pamphlet, newspaper, books and journals. 3) We should train good fishers. We need to train good evangelism workers (K. Han 1990: 98).

9. We need door-to-door evangelism to harvest the fruit of mass evangelism K. Han 1990:96).

10. For effective evangelism, Christian should know the world through reading newspapers, studying psychology and other religions (K. Han 1990:114).

11. We should evangelize in any situations (K. Han 1990:115).

12. We need to publish written materials on evangelism (K. Han 1990:117-118).

13. Christian leaders should be ready to suffer for evangelism (K. Han 1990:118-119).

XIV. Service

1. We should serve the poor and isolated in our church (K. Han 1990:208).

2. The church needs to build social institutions (K. Han 1990:212).

3. Social service is impossible with money alone. We need true love (K. Han 1990:213).

4. Church growth is possible through the grace of God and the service of people (B. Kim 1982:74).

5. To serve people is to serve God (S. Han 1993: 177).

6. The strong should help the weak (B. Kim 1982: 226).

XV. Patriotism

1. Christians should love their country. For this, they should love the land, the people, and its history (S. Han 1993:215).
2. The true way to love the country is not to resist but to cooperate (B. Kim 1982:87).
3. Because of the communists in North Korea, the church should participate in politics, not by demonstration but by constructive advice (B. Kim 1982:88).

ENGLISH SUMMARY

God calls for evangelists. He desires for missional church to grow and mature. During my time working as a missionary in the field and studying at Fuller Seminary, I experienced the process of God training me to be a preacher of a missional church. I started this research in order to become a healthy preacher of a missional church from a mission theological perspective.

The first chapter is an introduction of the research in the makings of a preacher of a missional church. It addresses the research background, research purpose, research objective, research significance, central undertaking, research inquiry, research methods, research scope, and research overview.

In the second chapter, I describe God's history of creating preachers of missional churches from the perspective of Clinton's lifelong leadership development theory. Through this process, I understood God's work and providence in my life. I realize what Clinton meant by 'ministry flows out of being'.

In the third chapter, I describe the gospel that a preacher of a missional church should proclaim. First, I explain the gospel of Jesus and the gospel of Paul. I describe gospel based on the gospel postulated by mission theologians Arthur Glasser, Roland Allen, and Sae Yoon Kim.

In the fourth chapter I describe the mission of the missional church from the perspective of church growth. I review McGavran's view on church growth and Van Engen's view on missional churches in order to establish the pastoral philosophy of the missional church.

In the fifth chapter, I explain the thoughts and characteristics of Kyung Jik Han's sermons, a preacher of a missional church. I analyze the contributions and spiritual gifts of Kyung Jik Han.

The sixth chapter is the conclusion in which I conclude by summarizing chapters one to six and provide recommendations.

In this research, I explain the process of forming preachers of missional churches through perspective of missional ministry by examining missional churches, missional ecclesiology, leadership development, and Pastor Kyung Jik Han's case. Through this research, I was able to confirm God's guidance in shaping me to become a preacher of a missional church.

인용 문헌(REFERENCES CITED)

- 강문석
1989 *선교신학개론*. 서울: 성광출판사.
- 강병도
2007 “고린도전서.” *호크마 주석*. 서울: 기독지혜사.
- 김병희
1982 *한경직 목사*. 서울: 규장 문화사.
- 김상근
2004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기독교 역사(Christian History which changed the main stream of World History)*. 서울: 평단문화사.
- 김세윤
1994 *마을 복음의 기원*.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95 *예수와 마을*. 서울: 도서출판 제자.
- 김승호
1995 *예수와 마을*. 서울: 도서출판 제자.
- 김연택
2007 *마을 선교에 대한 이해*. 서울: 토라출판사.
- 김은수
2011 *칼빈과 개혁신앙*. 서울: SFC.
- 김은일
2008 *교회성장과 목회자의 리더십*. 서울: 콤파출판사.

- 박도호
1988 *현대개혁주의*.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박세환
2001 *존칼빈의 신학 사상과 설교*. 서울: 도서출판영문.
- 박희민, 임윤택
2012 *사람을 품으라*. 서울: 두란노서원.
- 서정운
1988 *교회와 선교*. 서울: 두란노서원.
- 안승오
2006 *건강한 교회성장을 위한 핵심원리 7가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와타나베 노부오
2010 *칼빈의 교회론(The Ecclesiology of Calvin)*. 고양: 도서출판갈뱅.
- 영락교회
1998 *영락교회 50년사*. 서울: 영락교회.
- 이광순, 이용원
1986 *선교학개론*. 서울: 한국 장로교출판사.
- 이만열
1972 *한국 기독교 문화운동사*. 서울: 한국기독교출판사.
1991 *한국 기독교와 역사*. 서울: 기독교문사.
- 임윤택
2001 *소망교회이야기*. 서울: 베드로서원.
2009 *디아스포라 설교신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9 *해방 후 최초의 선교사 체험기*. 서울: 두란노서원.
2009 *플러*. 서울: 아이러브처치.

- 장훈태
1996 *초대교회의 선교 신학*. 서울: 솔로몬출판사.
- 정경호
2009 *바울의 선교 신학*. 서울: CLC.
- 조성기
1995 *예수와 바울*. 서울: 도서출판 제자.
- 한경직
2009 *한경직 설교전집 1-15*. 서울: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2010 “나의 감사.” *칼한경직 구술 자서전*. 서울: 두란노.
- 한승홍
1992 *한경직 예수를 닮인 인간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교부*. 서울: 북 코리아.
- 황대우
2003 *한경직 평전*. 서울: 김영사.
- Bosch, David. J.
2000 *변화하고 있는 선교(Transforming Mission)*. 김병일, 장훈태 역.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 Bruce, F. F.
1992 *바울(Paul: Apostle of the Free Spirit)*.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0 *바울결의 사람들(The Pauline Circle)*. 윤종석 역. 서울: 기독지혜사.
- Conn, Harvie M.
1981 *교회 성장의 신학(Theological Perspectives on Church Growth)*. 김남식 역. 서울: 성광문화사.
- David, Watson
1987 *제자도(The Discipleship)*. 문동학 역. 서울: 두란노.

- Eddie, Gibbs
 1990 나는 교회성장을 믿는다(I Believe in Church Growth). 송용조 역. 서울: 고려서원.
- 2004 미래목회의 9가지 트렌드 NEXT CHURCH. 임신희 역.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 George, Peters, W.
 1992 교회성장신학(A Theology of Church Growth). 임흥빈 역. 서울:기독교서회.
- Glasser, Arthur F.
 2006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Announcing the Kingdom). 임윤택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 Hull, Bill
 1994 목회자가 제자 삼아야 교회가 산다(The Disciple Making Pastor). 박경환 역. 서울: 요단출판사.
- Kene, Hebert. J.
 1976 선교의 신학적 기초신(The Thepological Basis of Mission). 이재범 역. 서울: 나단.
- Kistmaker, J. Simon
 2002 예수님의 비유(The Parables of Jesus). 김근수, 최갑종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Klooster, Fred H.
 1987 칼빈의 예정론(Calvins Doctrine of Predestination). 신복윤 역. 서울:성광문화사.
- Ladd, George E.
 1964 *Jesus and the Kingdom*. New York: Eerdmans.
- Marxsen, W.
 1986 데살로니가 전후서.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 McGavran, Donald A.
 1955 *The Bridges of God: A Study in the Strategy of Missions*. London, England: World Dominion.

- 1970 *Understanding Church Growth*. Grand Rapids, Mi: Eerdman.
- 1970b “*For Such a Time as This.*” Unpublished address given at Fuller Theological Seminary buffet dinner, Pasadena.
- 1974 *교회성장학(Understanding Church Growth)*. 고원용 역. 서울: 보이스사.
- 1980 *Understanding Church Growth*. Grand Rapids, Mi: Eerdmans.
- 1987 *교회성장이해(Understanding Church Growth)*. 전재옥, 이요한, 김종일 역.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 1993 *하나님의 선교전략(Bridges of God: A Study in the Strategy of Missions)*. 이광순 역.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 McGavran, Donald A. & Win Arn
- 1976 *Church Growth Principles*. Bayswater, Victoria, Australia: Vital.
- 1993 *교회성장의 열단계(Ten Steps for Church Growth)*. 오태용역. 서울: 신망애출판사.
- McGavran, Donald A. & G. G.헌터.
- 1983 *교회성장학*. 박은규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 McIntosh. L. Gary
- 2004 *성경적 교회성장(Biblical Church Growth)*. 이재강 역. 고양: 크리스찬출판사.
- Peter, Wagner C.
- 1980 *교회성장원리(Your Church can Grow)*. 권달천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 1984 *교회성장을위한 지도력(Leading Your Church to Growth)*. 김선도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 1990 *Church Planting for a Greater Harvest*. Ventura, CA: Regal.
- 1994 *성서적인 교회성장(Church Growth and The Whole Gospel)*. 홍철화 역. 서울: 보이스사.
- 1995 *교회성장 교과서(The Book of Church Growth)*. 홍용표역. 서울: 예찬사.
- 1999 *교회성장 될 수밖에 없는 성령의 은사 27가지(Your Spiritual Gifts can Help Your Church Grow)*. 김재서. 신현경 역. 서울: 예찬사.

- Pierson, Paul E.
2009 *기독교 선교 운동사(The Dynamics of Christian Mission)*. 임윤택 역. 서울:기독교문서 선교회.
- Richard, Baxter
2003 *참목자상(The Reformed Pastor)*. 최치남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 Roland, Allen
1994 *바울의 선교 방법론(Missionary Methods:St Paul and Ours)*. 김나식 역. 서울: 베다니출판사.
- Robert, Clinton J. & Richard, Clinton W.
2005 *당신의 은사를 개발하라(Unlocking Your Giftedness)*. 황의정 역. 서울: 베다니출판사.
- Robert, Clinton J.
2009 *영적 지도자 만들기(The Making of a Leader)*. 이순정 역. 서울: 베다니출판사.
2011 *지도자 평생 개발론(Leadership Emergence Theory)*. 장남혁, 황의정 역. 서울: 하늘기획.
- Spradlin, Matthew Donald
2012 *The Role of "Perfecting" in Donald McGavran's Church Growth Thought.*, Ph.D Dissertation.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 Schwarz, Christian A.
2005 *자연적교회성장*. 정진우 역외. 고양: 도서출판 NCD.
- Steele, David N. and Thomas C. Curtis
1962 *칼빈주의의 5대 강령(The Five Points of Calvinism)*. 서울: 생명의말씀사.
- Van Engen, Charles E.
2009 *교회성장 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 김석원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4 *하나님의 선교적교회(God's Missionary People: Rethinking the Purpose of the Local Church)*. 임윤택 역. 서울: CLC.
- Wiersbe, Warren W.
1997 *상상이 담긴 설교(Preaching & Teaching With Imaging)*. 이장우 역. 서울: 요단.

- Wright, N. T.
2015 *바울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박문재 역.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 박창환
1996 “바울 선교의 원칙.” *교회와 신학* 28집. 장로회신학대학교.
- 이종성
2002 “한경직 목사의 신학.” *한경직 목사 탄신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서울: 영락교회.
- 한경직
1965 “교역자의 자세.” *교회와 신학*, 1권 장로회신학대학교.
1984 “순종하는 교회.” *월간교회*, 통권100호.
- 한승홍
1992 “한경직의 생애와 사상.” *목회와 신학*, 통권 39호.
- 박기선
2015 “한경직 목사의 설교에 나타난 민족 구원론에 대한 연구.” 박사석사 학위 논문. 장로회신학대학원 목회전문대학원.
- 박상현
2000 “교회성장이론의 비교연수”(멕가브란 이론과 슈바르츠 이론을 중심으로). 석사학위(Th.M) 논문. 영남신학 대학원
- 박재식
2017 “한경직의 인격과 설교의 상관관계 연구.” 석사학위(Th.M)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 신선묵
2000 “Clinton’s Focused Life Concepts in the Korean context: A Comparative study of four highly effective leaders.” D.Miss Dissertatio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 신영일
2012 “한경직의 생애와 목회에 대한 연구.” 석사 학위(Th.M) 호서대학교 연합신학 전문대학원

홍성범

1999

“한경직의 생애와 설교연구.” 석사학위(Th,M) 장로회 신학 대학교대학원.

약력(VITA)

필자 이현용(Hyun Yong Lee)은 아버지 이병천과 어머니 강유순 사이에 3남 1녀 중 차남으로 출생했다. 충청도 금산에 초등학교 3학년까지 살았고 서울에서 초.중.고를 마치고 장로회 신학대학 신학과에 입학였고 장로회 신학 대학원을 마쳤다.

신학대학원 2학년 때 아내인 임은정과 결혼하여 딸 이다예와 이다인을 낳았다.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던 양평동교회에서 처음 교육전도사를 사작했고 서울 영락교회에서 교육전도사와 전임 전도사로 사역을 하였다. 그리고 인천 주안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부목사로 2년간 사역을 하였다. 2000년 1월에 토론토로 이주하여 토론토 영락교회에서 선교와 행정을 담당하는 부목사로 사역을 하였다.

2005년에 키르키즈스탄에 선교사로 파송받아 13년간 교회개척, 신학교, 현지 리더양육등의 사역을 하였다.

2018년 2월에 목포 복음교회 담임목사가 되어 선교적 교회를 위해 목회한다.

2010년에 풀러신학교(Fuller Theological Seminary)에서 선교목회학박사 과정(D.Min.)을 입학하여 2018년 풀러 신학교에서 “선교적 교회 설교자 만들기(MAKING OF A MISSIONAL CHURCH PREACHER)”라는 주제로 선교 목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Graduate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at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CA, Doctor of Ministry in Global Ministries).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믿으며 선교적 교회의 설교자로 건강하게 사역하는 사역자가 되고 싶다.